

# 海女調查研究\*

金榮敦\*\* 金範國\*\*\* 徐庚林\*\*\*\*

目 次	
一. 머리말	II. 漁村共同體의 自然的 經濟的 環境과 海女の  역할
二. 經濟的 側面	III. 漁村共同體의 社會構造
I. 序 論	IV. 漁村共同體의 法規範
II. 제주도 水産現況	V. 結 語
III. 제주도 海女現況	四. 民俗學的 側面
IV. 海女の 地域經濟 및 家庭經濟에의 寄與度	I. 海女の 生活과 作業
V. 要約 및 建議	II. 海女の 出稼
三. 法社會學的 側面	五. 要 約
I. 序	

## 一. 머 리 말

男性도 아닌 연약한 女人이 거친 바닷속으로 무자맥질하는 生業이란 점에서 海女作業은 특이할 뿐더러, 海女는 韓國과 日本에만 분포되어 있으므로 그 존

\* 이 논문은 1984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 教授

\*\*\* 社會科學大學 經營學科 教授

\*\*\*\* 社會科學大學 法學科 副教授

재는 異色的인 셈이다. 근래 급격한 社會變動과 產業構造의 改變으로 말미암아 海女들의 작업양상은 나날이 탈바꿈되고 있을 뿐더러, 이의 激減現象이 두드러지므로 해녀조사연구작업은 참으로 시급한 時點에 놓여 있다.

해녀에 대한 調查研究課題가 이처럼 시급하고 한라산처럼 쌓였는데도 이제까지는 몇가지 觀點에서 부분적으로만 접근해 왔을 뿐, 이를 綜合的, 立體的으로 조사 분석하는 작업은 아직 이뤄진 바 없다. 또한 해녀에 대한 조사연구는 마치 거창한 수풀속에 들어선 듯 그 接近方法과 조사작업이 쉽지 않다. 이처럼 時急, 重要한 해녀 조사연구는 그 과제가 울울창창한 수풀 같지만, 대체로 ① 民俗學的 側面, ② 經濟的 側面, ③ 音樂的, 文學的 側面, ④ 法社會學的 側面, ⑤ 生理學的 側面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몇가지 측면의 고찰은 제각기 分立되었다기보다 서로가 두루뭉수리로 연관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生理學的 側面에서의 조사 연구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어차피 海女研究는 시급히 活性化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우리 調查陣은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現場調査를 바탕으로 접근해 보았다.

○經濟的 側面—金範國

○法社會學的 側面—徐庚林

○民俗學的 側面—金榮敦

調查陣은 효율적 조사방법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몇차례 거듭하고난 다음에야 조사진 공동의 合同調査와 個別調査로 나누어 그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는바, 그 합동조사일정과 조사대상지는 다음과 같다.

○1985. 8. 5~8. 7. 南濟州郡 安德面 大坪里

○1985. 8. 16~8. 18. 北濟州郡 舊左邑 杏源里

○1985. 8. 22~8. 24.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소섬)

○1985. 12. 2~12. 3. 北濟州郡 朝天邑 北村里

또한 現場調査를 위한 學術情報 確保와 水産關係 實務者들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몇몇 관계기관을 방문, 면담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 1985. 4. 18 ~ 4. 19 水産業協同組合濟州道支部, 濟州市水産業協同組合
- 1985. 7. 18 翰林水産業協同組合
- 1985. 8. 21 城山浦水産業協同組合
- 1985. 9. 20 濟州道水産課

이 공동조사연구는 조사진들의 긴밀한 討論과 合議를 전제하면서 이루어졌고, 앞으로 深層的으로 조사연구할 同學들에게 海女 및 海女社會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바탕을 이룩하고자 하는 意圖 아래, 각기 200자 200장 정도의 분량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했다. 그 調查研究의 主眼點은 다음과 같다.

- 經濟的 觀點
  - ① 제주도의 水産現況과 海女現況은 어떠한가.
  - ② 해녀의 地域經濟 및 家庭經濟에의 寄與度는 어떠한가.
- 法社會學的 觀點
  - ③ 漁村共同體의 自然的, 經濟的 環境과 해녀의 역할은 어떠한가.
  - ④ 漁村共同體의 社會構造는 어떠한가.
  - ④ 漁村共同體의 法規範은 어떠한가.
- 民俗學的 側面
  - ⑥ 海女는 어떻게 生活하며 作業하는가.
  - ⑦ 지난날의 해녀의 出稼實態는 어떠한가.

## 二. 經濟的 側面

### I. 序 論

바다를 밭으로 삼아 파도와 싸우며 家計를 이끌어 왔으며 제주도 地域經濟에도 크게 寄與해온 제주도 海女가 1974년 이래로 점차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몇년 이내에 그 수가 몇백명으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 제주도 당국이나 水協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豫見하여 뒤늦게나마 海女の 福祉厚生面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脫衣場施設의 현대화를 위해 傭자금과 지원금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수가

를 할인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해녀의 激感現狀은 여전하여 1983년 현재 제주도의 해녀수는 7,885명으로 1970년의 23,930명에 비하면 33%에 불과하다. 제주도의 수출고 중 73.5%를 차지하는 魚種을 생산하여 제주도 地域經濟 발전에 主導的 役割을 담당하고 있으며, 家計費의 80% 이상을 충당함으로써 漁村에서도 절대적인 위치를 담당하면서 사실상의 家長의 역할을 수행해 오던 해녀가 이제 後繼者 養成을 포기하고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당국이나 관계당국에서 이들의 비중을 너무 가볍게 보아온 것은 아닌지, 이들의 본도 수출에의 寄與度를 過少評價하고 너무 安易하게 관리해왔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 말하면 해녀의 경제적 측면을 너무 소홀히 다루어 온 것에 海女激減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부터 검토하고 분석해 보아야 할 단계에 와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우선 제주도 水産業의 현황을 漁業從事者和 生産 및 輸出 動向으로 구분 概觀하고 여기에 제주도 해녀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함으로써 濟州道 海女の 위치를 再照明하는 데 그 초점을 둔다.

제주도 해녀의 위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첫째, 海女人口의 增減推移를 분석·과약해야하므로 이를 漁業依存度別, 연령별, 학력별로 細分함으로써 海女減少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究明하려고 한다.

둘째, 제주도 水産物 生産高 중에서 해녀에 의해 漁獲되는 수산물의 비중과 이를 魚種別로 분류하여 제주도 수산물 수출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아울러 분석함으로써 해녀의 위치를 재확인한다.

셋째, 해녀들이 海女作業에 소비하는 日數와 時間은 어느 정도이며 최근에 와서 작업시간의 연장으로 해녀의 건강과 水産資源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究明해 보려고 한다.

네째, 해녀작업에 필요한 作業道具와 이들 道具의 耐用年數 및 價格을 과약함으로써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약하고 아울러 해녀수입과 비교한다.

끝으로 해녀에 의해 漁獲되는 수산물이 제주도 수출에의 寄與도와 해녀수입의 家庭經濟에의 기여도를 분석함으로써 제주 해녀의 현재의 위치와 앞으로의 위치를 再照明해 보려고 한다.

따라서 여기에 提示되고 다루어지는 資料는 주로 제주도 海女の 經濟的 側面

에 중점을 두게 된다. 여기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필자는 해녀마을이라고 일컫는 舊左邑 演坪里 漁村契와 杏源里 漁村契, 安德面 大坪里 漁村契와 감독 기관인 濟州市水協 그리고 城山浦水協을 방문하여 필자가 미리 작성한 조사항목에 대해 책임자 및 실무자와 면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해녀의 生活實態와 作業實態는 해녀와 직접 면담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제주도 해녀의 經濟的 側面을 분석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가 現地調査에 의해 부분적으로 수집되었으나, 우리나라의 全漁業從事者와의 비교분석 과정에서 이들 자료는 補助資料로 이용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時系列分析이나 세부 항목에 대한 모든 분석은 부득이 농수산부의 農水産統計年報 및 總漁業調査報告書와 濟州道의 水産現況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중에서도 농수산부의 總漁業調査報告書を 주자료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1983년의 해녀수와 이에 따른 세부 분석 항목에서 農水産統計와 차이가 있음을 밝혀 둔다.

## II. 제주도 水産現況

### 1. 제주도의 漁業從事者<sup>1)</sup>

제주도의 漁業從事者는 1983년말 현재 11,312명으로 1965년의 30,149명의 약 38%에도 미달하는 숫자이며 濟州道人口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이다. 그런데 <표1>에서 보면 1970년의 37,107명(제주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을 고비로 2만명선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제주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3년에는 1965년의 비중보다 6.6%가 적은 2.2%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漁業從事者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海女數의 감소에 起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965년의 해녀수는 23,081명으로 제주도 漁業從事者에서 약 77%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73년에는 12,787명으로 약 1만명이 감소하였으며, 1974년을 고비로 급격히 감소하여 1965년 해녀수의 약 3분의1을 약간 넘는

1) 어업종사자에 대한 각 부문별 분석을 위해 부득이 第2次總漁業調査報告書의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983년 통계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1〉 濟州道 漁業從業者 現況

연 도	제 주도인구 (A)	어업종사자 (B)	$\frac{B}{A}$ (%)	해녀 (C)	$\frac{C}{B}$ (%)
1965	326,406	30,149	9.2	23,081	76.6
1966	336,694	31,672	9.4	24,268	76.6
1967	346,816	34,029	9.8	23,979	70.5
1968	358,282	34,640	9.7	21,122	61.0
1969	370,105	35,392	9.6	19,805	56.0
1970	365,522	37,107	10.2	23,930	64.5
1971	373,198	24,447	6.6	14,143	57.9
1972	380,926	23,437	6.2	14,457	61.7
1973	390,450	20,632	5.3	12,787	62.0
1974	408,246	14,613	3.6	8,402	57.5
1975	412,021	20,572	5.0	11,316	55.0
1976	420,830	16,492	3.9	8,017	48.6
1977	431,897	17,497	4.1	8,434	48.2
1978	443,708	18,887	4.3	9,774	51.7
1979	456,988	17,618	3.9	8,850 (9,054)	50.2 (51.3)
1980	462,755	12,216	2.6	8,850	72.4
1981	467,876	12,192	2.6	7,131 (7,135)	58.5 (58.5)
1982	473,967	11,496	2.4	6,907	60.1
1983	477,861	11,312 (10,550)	2.4	6,648 (7,885)	58.8 (74.7)

資料 : ① 인구는 濟州道 統計年報, 1984에서 작성.

② 어업종사자 및 해녀수는 제주도, 水産現況, 농수산부, 農水産統計年報에서 작성.

\* ( )는 第2次 總漁業調査報告書의 수치임.

8,402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海女數의 급격한 감소현상은 經濟開發과 더불어 産業의 高度化에 따른 제1차산업과 제2, 3차산업간의 必然的인 人口移動의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한편 제주도의 높은 進學率에 따른 教育水準의 향상이 그 주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本道の 전어업종사자 10,550명을 漁業依存度別로 분석해 보면, 어업에만 종

사하는 인구는 1,656명으로 16%에 불과하며, 어업을 주로 하는 종사자는 3,253명으로 전어업종사자의 3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어업을 副業으로 종사하는 인구는 5,641명인데 이는 전어업종사자의 반이 넘는 53%에 해당하는 수로서 本道 어업종사자 84%가 副業으로 漁業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農業을 主業으로 하면서 틈틈이 바다에 나가 주로 第1種共同漁場에서 海藻類의 採取나 軟體動物을 採捕하며 가계비 및 자녀의 학비보조에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어업종사자 중 75%인 7,885명이 여자종사자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를 시군별로 보면 濟州市는 7.3%인 776명에 불과하며 北濟州郡이 5,259명으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南濟州郡은 43%인 4,515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어업을 專業으로 하는 종사자는 濟州市가 15%, 北濟州郡 49%, 南濟州郡이 35%로서 전어업종사자중 濟州市가 비교적 어업종사자중 어업을 專業으로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다. 이것은 어업에만 종사하는 인구중 動力船 등 漁船을 이용한 남자 漁業 專業 종사자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남녀 구성 비율을 보면 濟州市는 거의 비슷한 남자 394명 대 여자 382명인데 비해, 北濟州郡은 남녀 비율이 23% 대 77%로서 오히려 여자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南濟州郡의 경우도 24% 대 76%로서 여자 종사자가 8할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을 副業으로 하는 종사자도 濟州市는 2.7%에 불과한데 비해 北濟州郡과 南濟州郡은 어업종사자중 거의 반에 가까운 48%, 49%로서 농업을 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2참조).

어업종사자의 연령별 구성은 40세 미만이 3,780명이며 40세 이상은 6,770명으로 36% 대 64%인데 이를 性別로 구분해 보면 40세 미만의 남자 종사자는 1,071명이며 여자 종사자는 2,709명이고, 40세 이상은 각각 1,594명, 5,176명으로 여자 종사자의 비중이 훨씬 높아 3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40세에서 59세까지의 연령층에서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표3참조).

〈표2〉 濟州道 漁業從業者의 漁業依存度別, 性別 現況

지역별	계		어업에만		어업이 주		어업이 부					
	합	계	남	여	남	여	남	여				
	합	남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0,550	2,665	7,885	1,656	981	675	3,253	934	2,319	5,641	750	4,891
제주시	776	394	382	254	142	112	365	184	181	157	68	89
북제주군	5,259	1,188	4,071	815	524	291	1,754	350	1,404	2,690	314	2,376
남제주군	4,515	1,083	3,432	587	315	272	1,134	400	734	2,794	368	2,426

資料 : 농수산부, 第2次 總漁業調查報告書, 1982에서 작성.

〈표3〉 濟州道 漁業從業者의 漁業依存度別, 年齡別, 性別 現況

연령별	계		어업에만		어업이 주		어업이 부					
	합	계	남	여	남	여	남	여				
	합	남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0,550	2,665	7,885	1,656	981	675	3,253	934	2,319	5,641	750	4,891
14~19	182	85	97	52	34	18	99	42	57	31	9	22
20~29	1,016	316	700	274	159	115	370	108	262	372	49	323
30~39	2,582	670	1,912	439	276	163	832	228	601	1,311	166	1,145
40~49	3,899	977	2,922	547	327	220	1,224	343	881	2,128	307	1,821
50~59	2,146	434	1,712	253	138	115	580	152	428	1,313	144	1,169
60~69	636	157	479	78	38	40	141	58	83	417	61	356
70이상	89	26	63	13	9	4	7	3	4	69	14	55

資料 : 농수산부, 第2次 總漁業調查報告書, 1982.



## 2. 水産物生産 및 輸出動向

### 가. 生産動向

四面이 바다인 제주도는 水産資源의 寶庫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海岸線의 길이가 2백53km에 달하며 大陸棚이 廣闊하고 氣候도 溫和하여 水族繁殖에도 극히 好適한 환경에 있어서 定着性水族 및 洄游性魚族으로 풍부한 漁場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海藻類가 풍부하여 第1種共同漁場에서의 漁獲量이 本道漁獲庫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83년도 本道の 水産物 총생산량은 36千여톤으로서 전국 생산량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나 海藻類는 4%를 차지하여 비교적 높은 편이다.

본도의 수산업은 第1種共同漁場을 중심으로 하여 海藻類 부문에 중점을 두어 육성해 나가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本道の 수산물 생산량 增減趨勢를 '79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준년도 38,389% 생산량이 '81년도에는 35,753%으로 약 3千%이 감소되었고, 그 이듬해인 '82년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기준년도 생산량의 76%에 불과한 29,135%이었으나 '83년에는 36千%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漁業別로 보면, '83년 漁獲 생산량중 가장 많은 생산량은 第1種共同漁場이 21,167%으로 전체 생산량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많은 생산은 延繩漁業으로서 11%인 3,845%, 낚시어업 3,242%의 순이다.

'82년의 생산량 激減은 第1種共同漁場 생산량이 基準年度 27,043%에서 '82년에는 基準年度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15,024%의 수준에 머물른 데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도의 수산업은 第1種共同漁場 생산량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표4참조).

본도의 수산업 생산량을 魚種別로 그 비중을 <표5>에서 보면 第1種共同漁場에서 漁獲되는 海藻類<sup>2)</sup>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83년 海藻類 생산량은 16,852%으로 水産業 전생산량의 4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海藻類 생산량에서도 본도가 가장 많은 비중인 38%를 점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준년도의

2) 海藻類: 도박, 말, 툫, 우뭇가사리, 기타가사리, 기타.

〈표4〉 濟州道 水産物 生産量 増減推移

연도별	단위: %											
	세	지인망	선망	부망	유자망	남시	인승	통발	정치망	진수기	제1종 공용	기타
1979	38,389	557	988	3,349	2,757	840	1,820		432	600	27,043	3
1980	38,172	448	804	9,706	2,034	1,142	2,270	28	1,304	323	20,077	36
1981	35,753	448	333	5,319	2,445	1,494	2,005	42	301	390	22,967	9
1982	29,135	546	459	4,811	1,931	2,530	2,445	214	771	395	15,024	9
1983	36,175	709	155	2,664	2,053	3,242	3,845	424	1,419	461	21,167	36

資料: 농수산부, 水産統計年報에서 작성.

생산량에 비하면 68%의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생산량이 격감한 연도인 '82년에는 생산량이 11,862%으로 기준년도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에 머물고 있다. 軟體動物<sup>3)</sup>의 생산량은 5,604%으로 본도 총생산량에서 제3위의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특히 軟體動物은 대부분의 수산업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데 반해 꾸준히 생산량이 증가해

〈표5〉 濟州道 水産物の 魚類別 生産量

연 도 별	계	어 류	갑각류	연체동물	단위 : %	
					기수산물	타수산물
1979	38,389	10,520	124	2,977	41	24,727
1980	38,172	17,331	135	1,959	134	18,613
1981	35,753	11,637	218	3,162	475	20,261
1982	29,135	12,527	232	4,039	475	11,862
1983	36,175	12,632	270	5,604	817	16,852

資料 : 농수산부, 水産統計年報에서 작성.

온 魚種이다. 생산량 5,604%은 기준년도와 비교해 보면 188% 증가한 수치로서 이는 꾸준한 養殖事業으로 소라고동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나. 輸出動向

본도의 총수출고는 1975년 이래 계속 伸張되고 있으며 1984년 현재의 수출고는 23,755千弗로서 1975년을 기준으로 볼 때 10년 사이에 약 2.6배가 증가하였는데 이 가운데서 水産物 輸出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1975년 총수출고의 69%인 6,268千弗에서 현재는 19,064千弗로서 水産物 輸出高에서 2.8배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1979년에는 총수출고 중에서 86%의 비중을 차지하여 水産物 수출 비중이 가장 높았고 '84년 현재도 本道 수출고에서 8할을 차지함으로써 濟州道の 수출고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品目別로는 소라와 툇이 主宗을 이루어 이 두 品目の 수출고가 水産物 수출고 중에서 81%를 차지하고 있어서 본도의 수출 戰略品目이 되고 있다(표27참조).

3) 軟體動物 : 전복류, 소라고동, 기타패류, 문어.

工產品 輸出이 거의 없는 본도의 수출고를 伸張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총수출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산물 수출에 전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四面이 바다인 본도의 立地的 條件으로 보나 製造企業의 규모가 零細한 본도의 여건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표6참조).

〈표6〉 濟州道の 輸出實績

연 도 별	단위 : 千弗		
	총 수 출 고	수산물수출고	%
1 9 7 5	9,048	6,268	69.3
1 9 7 6	10,939	7,565	69.2
1 9 7 7	13,027	9,683	74.3
1 9 7 8	13,903	11,411	82.1
1 9 7 9	15,420	13,256	86.0
1 9 8 0	18,764	15,268	81.4
1 9 8 1	19,270	15,899	82.5
1 9 8 2	18,964	15,972	84.2
1 9 8 3	21,357	17,832	83.5
1 9 8 4	23,755	19,064	80.3

資料 : 제주도, 水産現況에서 작성.

### Ⅲ. 제주도 海女現況

#### 1. 海女數의 增減趨勢

이 지구상에 海女가 있는 나라는 韓國과 日本뿐인데, 일본의 경우는 數千에 불과하고 한국 海녀의 거의가 濟州道에 몰려 있으므로 海녀라 하면 한결같이 제주 海녀에 焦點을 둔다.

제주도는 마을이 대부분 海岸線을 따라 형성되어 있고 이 해안마을마다 그 수가 많은 적든 海녀들이 있다.<sup>4)</sup>

4)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 「國文學報」 第5輯, 1973, p.111.

이 해녀들이 제주도 水産業의 中樞役割을 담당해 왔으며 제주도 수출고의 83.5%를 차지하는 수산물 생산의 主役을 맡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海女數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海女島라고 하는 牛島에서조차도 1973년의 海女數 896명이<sup>5)</sup> 현재는 484명으로 10여년 사이에 반 가까이 감소하고 있다. 現地住民과의 대화에서 해녀 수입에서 教育費가 마련되기만 하면 자녀들을 고등학교에 進學시키고 있다.

어떻게든 직장에 就業시켜 해녀 직업을 택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해녀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그래서 教育費 마련을 위해 부지런히 海女作業을 하려고 바다로 나간다.

農家 593세대, 非農家 98세대인 이 섬은 農産物 所得이 6억원인데 漁獲高는 그 1.5배에 달하는 9억96백만원을 올리고 있다.

“아들은 나면 애 엉덩이를 쳐 때리고, 딸은 나면 돼지 잡아 잔치한다”<sup>6)</sup>는 말까지 전해오던 이 섬의 주민들, 특히 여자들의 意識構造는 이제 서서히 改變하고 있는 것이다.

종전의 해녀 작업에 대해서 그들 나름의 自矜과 自慰를 느끼던 意識이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意識의 改變現狀은 비단 이 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제주도 海岸 마을 해녀들의 공통된 의식으로 서서히 擴散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의식이 변화되어 오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해녀 실태는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지를 해녀수와 漁業依存度別, 年齡別, 學歷別 분포상황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 가. 海女數

濟州道 海女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거니와 실제조사에 의해 파악하기도 어렵다. 다만 水協에 등록된 漁村契員 중에서 女契員만을 海女로 集計한 것이 水協이나 濟州道の 해녀수에 대한 공식적인 統計이다.<sup>7)</sup> 따라서 非公式 統計資料에 의한 분석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성도 결여되기 때문에 농수산부

5) 김두희, 김영돈; “海女漁場紛糾 調査研究”, 「論文集」 第14輯, 제주대, 1982.

6)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前掲論文, p.112.

7) 실제 해녀수는 어촌계의 女契員數의 약 2배에 이르는 1만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면서 제주도 水産現況 자료를 補完資料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7>에서 보면 1983년 말 현재 제주도에는 7,885명의 해녀가 있다. 이 숫자는 제주도 漁業從事者 10,550명의 75%를 해녀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수산업 종사자중 남자는 4분지1에 불과하다. 269,495명 가운데 남자 종사자 164,680명으로 61%, 여자 종사자 104,815명, 39%인 점과 비교해 보면 제주도가 과연 海女島라는 실감이 난다. 가히 해안마을의 主導權은 해녀들의 손에 있다는 표현이 나올 법한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 漁業從事者의 급격한 減少現狀은 바로 海女數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표7> 濟州道 人口趨勢

연도별	계	남자	여자(A)	해녀(B)	$\frac{B}{A}$
1970	365,522	175,193	190,329	23,930	12.5
1971	373,198	178,870	194,328	14,143	7.3
1972	380,926	182,053	198,873	14,457	7.2
1973	390,450	187,820	202,630	12,787	6.3
1974	408,246	197,324	210,922	8,402	3.9
1975	412,021	199,733	212,288	11,316	5.3
1976	420,830	203,612	217,218	8,017	3.6
1977	431,897	209,057	222,840	8,434	3.7
1978	443,708	215,041	228,667	9,774	4.2
1979	456,988	221,842	235,146	9,054	3.8
1980	462,755	226,558	236,197	8,850	3.7
1981	467,876	227,444	240,432	7,135	2.9
1982	473,967	230,767	243,200	6,907	2.8
1983	477,861	233,577	244,284	7,885	3.2

資料：濟州道，濟州道 統計年報，1984，p.62에서 작성.

20년전 1965년의 海女數는 23,081명으로 전체 어업종사자의 77%를 차지하고 있었다. 1983년 현재보다 어업 종사자중에서의 비율은 약 2% 정도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 수준이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1971년에 14,143명으로 '65년도

의 3분지 2선밖에 안되는 61%로 약 1만명 정도가 감소되었으며, 1974년에는 1만명 이하의 수준으로 격감되어 1965년을 기준으로 볼 때 3분지 1선인 8천여명이 되었고, 漁業從事者의 남녀비율도 43% 대 57%로 거의 비슷한 구성비율이 되었다. 1980년에는 남녀 구성비율이 다시 28% 대 72%로 남자 漁業從事者는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의 남자 어업종사자 8,768명에 비하면 약 5천명이 감소되었으며, 전체 어업종사자도 12,21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1%가 감소한 것이다.

한편 海女數가 가장 많았던 1970년의 해녀수는 23,930명으로 濟州道 여자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6%로서 해녀가 8명 중 1명꼴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듬해인 1971년에는 41%가 감소한 14,143명으로 여자인구중 차지하는 비중도 7.3%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녀수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물론 教育水準의 向上과 이에 따른 意識改變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표8>에서 보는 바와같이 柑橘 재배면적 및 成果面積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생산량 急增現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감귤 재배현황을 살펴보면 1960년대 후반기부터 정부의 보호아래 幾何級數의으로 불어나서 1953년 약 17ha의 재배면적에 생산량 6.3%에 불과하던 감귤이 15년후인 1968년에는 1,645.2ha의 재배면적에 생산량 3,548.6%에 이르러 1953년 생산량의 약 560배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增加現狀은 특히 1970년에 들어서면서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감귤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계속 증

<표8> 濟州道の 年度別 柑橘 生産量

면적 : ha  
생산량 : %

연 도	면 적	成 果 面 積	생 산 량
1953	16.8	18.0	6.3
1958	57.3	25.0	266.7
1963	380.5	110.6	494.0
1968	1,645.2	316.0	3,548.6
1973	8,408.8	4,668.0	26,231.0
1978	12,089.48	11,006.02	125,950.0

資料 : 濟州道, 濟州道誌, 1982, p.93.

가현상을 가져온 데에 起因한 것이다.<sup>8)</sup> 이에 따라 勞動力 需要가 급증하고 감귤 소득향상에 따른 生活水準의 向上과 教育機會의 擴大 등은 해녀를 兼業으로 생활해 오던 農漁村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1971년을 基點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해녀는 여자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감소하여 1983년에는 7,885명으로 3.2%에 불과하다.

#### 나. 漁業依存度別

제주도 해녀는 대부분 밭에 나가 농사를 짓는 사이 물때에 맞추어서 자유롭게 바다에 나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해녀의 漁業依存度는 상당히 낮아서 농사를 主業으로 하면서 兼業하는 비율이 91.4%나 되며 상대적으로 어업에만 專業하는 해녀는 8.6%인 675명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專業漁民(full-time fishman)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兼業漁民(part-time fishman) 91.4%중에도 臨時的 漁民(occasional fishman)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9)</sup>

이를 지역별로 보면 專業海女는 濟州市가 112명으로 專業海女 가운데서 16.6%인데 濟州市 해녀에서의 비중은 29.3%로서 타지역 해녀의 專業海女 비율보다 상당히 높다. 北濟州郡과 南濟州郡 지역 專業海女 비율은 거의 비슷하여 큰 차가 없으나 北濟州郡 지역 專業海女가 南濟州郡 지역보다 약 3%정도 높다. 그러나 지역별 해녀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약 7%인 반면 兼業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 특히 어업을 副業으로 하는 해녀(臨時的 漁民)가 지역별 해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南濟州郡 지역이 가장 높아서 약 71%나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南濟州郡 지역이 농업(감귤)에서의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臨時的 漁民(해녀)이 앞으로 타직업으로 이동하거나 해녀 직업을 포기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濟州道 海女는 계속해서 그 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8) 제주도 ; 「濟州道誌」, 1982, pp.90~93.

9) 1959년 9월 스코틀랜드의 에딘바라에서 개최된 北大西洋地域의 어업통제에 관한 FAO 專門家會議에서 채택된 건의서에 의하면 전업어민이란 최소한 어업에 그의 生計의 90% 혹은 노동시간의 90%를 의존하는 사람이며, 겸업어민이란 그의 30~90%를 의존하는 사람이며, 그리고 그의 30% 이하인 사람은 임시적 어민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張設鎬 ; 「漁村契에 관한 研究」, 太和出版社, 1980, p.87.



제주도 해녀중 臨時的 漁民의 성격을 띤 해녀수는 4,891명으로 推算되는데 이것은 전해녀수의 62%나 되는 높은 비중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해녀의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나 移職 防止對策 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다(표 9참조).

〈표9〉 濟州道 海女の 漁業依存度

지 역 별	계	어업에만	%	어업이 주	%	어업이 부	%
계	7,885	675	8.6	2,319	29.4	4,891	62.0
제 주 시	382	112	29.3	181	47.4	89	23.3
북 제 주 군	4,071	291	7.1	1,404	34.5	2,376	58.4
남 제 주 군	3,432	272	7.9	734	21.4	2,426	70.7

資料：農水産部，農林水産統計年報，1984에서 작성.

다. 연령별

1969년의 海女 構成比를 연령별로 보면 30~39세 연령층이 4,676명으로 1969년 전해녀수 14,143명 가운데서 3분의1이상을 이 연령층에서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은 20~29세 연령층 23%로서 이를 합하면, 즉 20세에서 39세까지의 海女가 56%로서 반을 훨씬 넘고 있다. 14~19세 연령층도 8%인 1,165명이나 된다. 海女作業을 시작하는 연령을 15, 6세 전후로 보면<sup>10)</sup> 14~

19세 연령층과 20~29세 연령층 해녀수가 전해녀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연령층이 해녀수 증가에 결정적인 役割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50세 이상의 나이가 많은 海女는 상당히 낮은 13.8%에 불과하다. 그런데 '83년에는 50세 이상의 연령층이 全海女數에서 28.6%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인 반면 14~19세 연령층은 겨우 1.2%인 97명에 불과하며, 20~29세의 연령층도 9%에도 미달되는 낮은 비율이다. 29세 이하의 해녀 비중이 10%에 불과하고 40세 이상의 海女가 3분의2 가까이 될 뿐만아니라 그것도 臨時的 漁民의 성격을 띤 兼業海女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앞으로 海女數의 감소는 불가피한 것일 수밖에 없다(표10참조).

10)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前掲論文，p.113.

〈표10〉 濟州道 海女の 年齡別, 漁業依存度別 現況

구 분	계	14	20	30	40	50	60	70세 이상	
		?	?	?	?	?	?		
1969년 ①	14,143명	1,165	3,260	4,676	3,084	1,310	648		
1983년 ②	계	7,885명	97	700	1,912	2,922	1,712	479	63
	어업에만	675	18	115	163	220	115	40	4
	어업이 주	2,319	57	262	604	881	428	83	4
	어업이 부	4,891	22	323	1,145	1,821	1,169	356	55

資料: ① 農水産部, 第1次 總漁業調査報告書, 1972에서 작성.

② 農水産部, 農林水産統計年報, 1984에서 작성.

住民所得이 農業所得보다 漁業所得이 높은 牛島 海女の 연령구성도 40세 미만 연령층이 상당히 적은 반면, 40세 이상의 연령층은 389명으로 全海女の 3분지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濟州道 全海女の 연령별 구성비율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표11참조).

〈표11〉 牛島 海女の 年齡別 構成

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484(명)	15	80	164	165	60
100(%)	3.1	16.6	33.8	34.1	12.4

資料: 筆者 現地調査에 의함(연평 어촌계 제공), '85.12. 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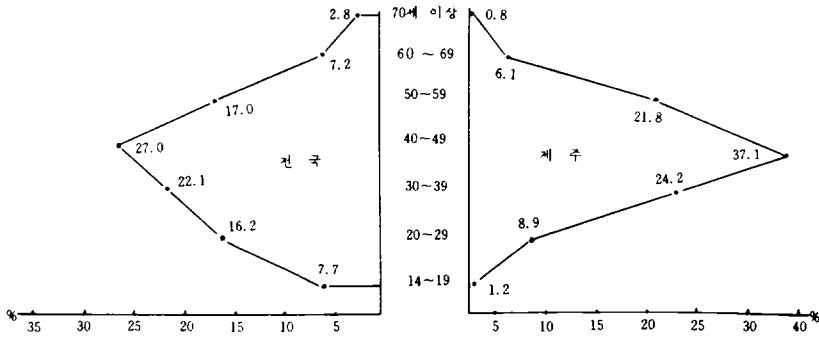
한편 전국 여자 漁業從事者 연령별 구성을 보면 14~19세 연령층이 본도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70세 이상의 연령층은 본도의 0.8%에 비해서 2%가 높은 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색인데 이렇게 이 연령층 종사자가 비교적 많은 것은 육지부의 여자 漁業從事者가 종사하는 분야가 대부분 養殖業이므로 본도의 해녀작업에 비길 수 없는 輕勞動이기 때문이다(표12 및 도1참조).

옛날에는 沿岸이 漁家經營의 全收入源이며, 그 가족의 모든 生計維持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며 절대적인 존재였으나 최근의 공업화 경향, 漁業資源의 枯

〈표12〉 年齡別 女子 漁業 從事者 分布 및 構成比

구 분	계	단위 : 명, ( ) %						
		14 ~ 19	20 ~ 29	30 ~ 39	40 ~ 49	50 ~ 59	60 ~ 69	70세 이상
전 국	126,625	9,765 (7.7)	20,461 (16.2)	28,006 (22.1)	34,238 (27.0)	21,475 (17.0)	9,171 (7.2)	3,509 (2.8)
계 주	7,885	97 (1.2)	700 (8.9)	1,912 (24.2)	2,922 (37.1)	1,712 (21.8)	479 (6.1)	63 (0.8)

資料 : 農水産部, 農林水産統計年報, 1984에서 작성.



〈도1〉 女子 漁業 從事者의 年齡別 構成比

渴, 어촌의 도시화 경향, 학력수준의 향상 등에 의하여 어민의 漁業外就業이 확대되고, 특히 都市와 그 近郊地 漁村 등에 있어서의 漁業依存度는 年間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업종사자의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sup>11)</sup> 표13참조).

라. 學歷別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海女職業을 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녀의 연령별 학력구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1) 張設鎬; 前掲書, p. 89.

〈표13〉에 의하면 3분지2에 가까운 해녀가 학력이 國卒이며 無學도 29.5%나 된다. 제주도 해녀의 대부분인 9할 이상이 國卒 이하의 학력이다.

전국의 여자 漁業從事者의 학력수준과 대비해 보아도 본도의 해녀가 國卒 이하의 학력비율이 높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中卒 학력 소지자는 7%, 高卒 학력 소지자는 겨우 0.7%로서 中卒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전해녀의 1할에도 훨씬 미달하는 7.7%에 지나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29세 미만의 해녀는 國卒 및 無學이 519명으로 全海女중 6.6%라는 낮은 비율인데, 中卒 이상의 학력은 3.5%인 278명이다.

그런데 40세 이상에서는 無學 및 國卒 해녀는 6할 이상이나 되는 5,046명이며 특히 이중 淚學인 해녀가 2,216명인 3할 가까이 된다. 또한 30세 이상은 6,750명으로 85%를 상회하고 있다. 한편 40세 이상의 해녀중 中卒 이상의 학력 소

〈표13〉 濟州道 海女の 學歷別・年齡別 從事者數

구 분	계	국 졸	중 졸	고 졸	초급대졸 이	무 학	
						글을 안다	글을 모른다
전 국	126,625 (100)	74,066 (58.5)	12,079 (9.5)	2,189 (1.7)	56 (0.04)	16,665 (13.2)	21,570 (17.0)
계	7,885 (100)	4,941 (62.7)	553 (7.0)	57 (0.7)	6 (0.07)	1,533 (19.4)	795 (10.1)
14 ~ 19 세	97	48	46	2		1	
20 ~ 29 세	700	462	209	21		7	1
30 ~ 39 세	1,912	1,601	190	16		74	29
40 ~ 49 세	2,922	2,154	97	13		511	144
50 ~ 59 세	1,712	613	11	4	2	730	353
60 ~ 69 세	479	61			3	201	217
70 세 이상	63	2		1	1	9	51

資料 : 農水産部, 第2次 總漁業調査報告書, 1982에서 작성.

지자는 132명에 불과하며 전해녀 중에서 中卒 이상 학력 소지자 비중도 20%에 지나지 않고 있다. 30세 이상의 해녀중 無學인 해녀의 비중이 3할에 가까운 2,300명 이상에 이른다는 사실에서 濟州道民의 소득수준이 보잘것 없었던 예전

에 出稼海女들에 대한 權益侵害 문제가 非一非再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낚설은 異域千里에 나가 <저승 길이 오락가락> 생사를 걸어 놓고 裸潛漁業하는 出稼海女들은 갖은 방법으로 人權蹂躪과 收奪만을 당해 왔다.

第1種共同漁場の 不法賣買에 따른 漁場主의 苛酷한 收奪과 橫暴, 惡德 引率者의 不當搾取와 採取物 代金清算의 不當遲延, 地先民들의 냉대와 出稼地 有關기관들의 不實, 入漁慣行權의 무시 등등 그 收奪樣相은 ——이 枚擧할 길이 없다.<sup>12)</sup>

본도의 여자 中學 進學率은 <표14>에서 살펴보면 198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계속 증가하여 1984년에는 국민학교 졸업자수 6,567명에서 98.4%가 중학교에 진학함으로써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濟州市와 北濟州郡이 99%, 西歸浦市는 104.7%(南濟州郡 및 타지역 졸업자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됨), 南濟州郡 91%(상당수가 西歸浦市로 진학한 것으로 생각됨)에 달하고 있다.

潛水技術은 短期間의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 진학 연령 때부터 持續的으로 習得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해녀수의 감소는 學

<표14> 濟州道 地域別 中學進學率(女子)

구 분	국민학교졸업자수	중학교입학자수	진 학 륜
1980	5,526	5,111	92.5
1981	6,139	5,946	96.9
1982	6,014	5,798	96.4
1983	6,323	6,170	97.6
1984	6,567	6,459	98.4
제주시	2,523	2,494	98.9
시군별 서귀포시	1,126	1,179	104.7
북제주군	1,598	1,583	99.1
남제주군	1,320	1,203	91.1

資料：濟州道, 濟州道統計年報, 1985, pp.235 ~ 237에서 작성.

12) 「石宙善教授回甲紀念民俗學論叢」, 1971, p. 321.

歷水準向上 要因이 크게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해녀작업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 요인이 없는 한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牛島의 경우는 中卒 학력의 해녀수가 118명으로서 우도 전해녀수에서 24%를 차지하며 <표13> 본도의 전체 비율 7%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비중이지만, 高卒 학력의 해녀는 한 명도 없다. 所得向上과 이에 따른 教育機會의 확대는 고등학교 진학율을 높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牛島에서조차도 해녀수의 점증적인 감소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표15참조>).

<표15> 牛島 海女の 學歷別 分布

연령별 \ 학력별	계	국졸	중졸	고졸
계	484	366	118	
20대	15		15	
30대	83		83	
40대	164	144	20	
50대	162	162		
60대 이상	60	60		

자료: 연평 어촌계 제공

## 2. 海女の 魚種別 漁獲高

제주도의 水産物 漁獲高는 물론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나 소득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魚種은 第1種共同漁場에서 해녀에 의해서 採取하는 貝類와 海藻類가 主宗을 이루고 있다. 10여년전까지만 해도 3월에서부터 9월까지 7개월간은 월평균 出潛日數는 18일로 1개월중 약 절반 이상을 해녀작업에 임하지만 10월서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5개월간의 월평균 出潛日數는 8일에 머물렀다.<sup>13)</sup>

그러나 1970년경부터 잠수복이 전해녀에게 보급됨에 따라 産卵期를 제외하고는 바람이 없고 바다만 잠잠해지면 年中 어느 시기나 가리지 않고 계절에 관

13) 이경남; "濟州道 海女の 勞動生産性 實態", 「濟州道」第34號, 제주도, 1968, p. 136.

제없이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出曆日數 및 潛水時間의 증가로 漁獲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표5〉에서 魚種別 漁獲高를 살펴 보면 1983년의 총어획고는 36,175%인데 이 가운데서 漁船을 사용하여 어획하는 魚類는 12,632%으로 약 3분의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의 3분의2의 어획고는 第1種共同漁場에서 해녀에 의해 採取되는 魚種이 차지하고 있다. 해녀에 의해 採取되는 漁獲高 가운데서 가장 많은 魚種은 海藻類가 46.5%인 16,852%이며 軟體動物은 15.5%로서 海藻類 다음으로 많은 魚種이다.

5년간의 魚種別 漁獲高의 增減推移를 살펴 보면, 魚類는 1980년에 총어획고 가운데서 45.4%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어획고를 기록했으나 그 이후 점차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甲殼類는 어획고에 큰 변동이 없으며, 비중은 1%에도 미달하는 극소량이 어획되고 있을 뿐이다. 軟體動物은 漁獲量이 계속 증가하여 1979년 전어획고의 7.8%이었던 것이 5년후인 1983년에는 전체 어획고에서의 비중은 1979년 어획고의 거의 2배인 5,604%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소라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海藻類의 생산량은 1979년에는 전어획고의 64.4%를 차지하는 24,727%을 생산하여 높은 실적을 올렸으나, 1980년에는 48.8%로 감소하고 1981년에는 다시 생산량이 증가하여 같은 해 전어획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간 감소하였고 1983년에는 46.6%인 16,852%을 생산하였으나 어종별 어획고에서는 단연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주종을 이루는 魚種은 툃과 우뚝가사리이다.

주민소득과 수출전락에 직결되는 魚種을 파악하기 위해 魚種別 生産量을 세분화하여 〈표16〉에서 보기로 하겠다.

우선 第1種共同漁場에서의 생산량은 1983년에 기타 海藻類가 7,355%으로 第1種共同漁場 총생산량 21,167% 가운데서 34.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툃 생산량도 5,043%으로 23.8%로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이외에 전복, 해삼, 성게, 청각, 파래 등의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魚種으로 손꼽을 수 있다.

5년간의 第1種共同漁場 생산량 추이는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漸減一路에 있다. 1979년 생산량 27,043%을 기준으로 볼 때 1983년에는 생산량이 21,167%

으로 1979년 생산량의 78.3%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1982년의 생산량은 기타 海藻類 생산의 감소로 인하여 1979년 생산량의 반을 약간 상회하는 56%인 15,024%으로 격감하였다.

연도별로 生産推移를 보면, 특히 소라와 우뚝가사리는 생산량이 점증하여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편 기타 海藻類는 1979년 第1種共同漁場에서의 생산량 27,043% 가운데서 3분지2에 가까운 17,579%을 생산할 정도로 그 비중이 상당히 높았으나 1982년에는 약 8할 이상이 감소한 2,979%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본도의 第1種共同漁場에서 主宗 魚種이라고 할 수 있는 우뚝가사리, 소라, 툫 등의 생산량은 본도에서 뿐만 아니라 全國 生産量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소라 생산량은 1979년에 全國 總生産量의 3분지2 수준에 달하는 2,650%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생산을 기록하였으나, 그후 점차로 생산량이 감소하다가 1983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3,570%을 생산함으로써 전국 생산량의 61.7%를 점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과 응자에 의하여 蓄養事業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979~1982년까지 4년 동안에 507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3,713%을 對日輸出함으로써 어민의 소득과 제주도의 수출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전북도 5년전에 비해서 전국생산량의 42.6%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량이 증가하였는데, 이 또한 蓄養事業의 결과로 나타난 生産增大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産卵期の 異常氣溫과 水質汚染에 의한 養殖소라의 多量斃死 事例 등은 소라자원의 감소추세에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단기간의 増殖이 불가능한 자원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資源枯渴에 따른 地先民間에 새로운 漁場紛糾가 일어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툫은 5년간 생산량에 큰 변동없이 전국생산량의 약 32%의 수준으로 안정된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漁村契員들의 協同作業에 의해 앞으로 계속 이 수준의 생산량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툫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輸出戰略 商品이다.

그런데 앞으로 경쟁국의 등장으로 對日 輸出不振이나 價格下落에 대비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현재 툫 생산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漁村契의 운영방법이나 수협당국의 安逸한 지도에서 탈피하여 多品種商品을 개발함으로써



〈표16〉 濟州道 第1種共同漁場 魚種別 生産量

연도별	단위 : %															
	세 1 종 계	진 북	소라 고동	반지락	홍합	해삼	성게	우렁챙이	미역	청각	말	돛	우뭇가사리	기타 가사리	외배	기타 해조류
1979	27,043	64	2,650	9	4	19	17	5	66	5	306	4,679	2,038	149	5	17,579
1980	20,077	62	1,477	10	1	46	82	1	141		386	5,370	1,329		8	11,281
1981	22,967	128	2,218	2	32	45	423	6	2,866	32	509	3,382	2,289	9	40	10,992
1982	15,024	80	2,792		3	34	429		121	43	77	6,225	2,264	15	52	2,979
1983	21,167	142	3,570			125	666	26	317	160	82	5,043	3,562	45	173	7,355

자료 : 농수산부, 農林水産統計年報, 1984에서 작성.

〈표17〉 濟州道の 主要 魚種 生産量 比較

연도별	진 북						국						주						
	(A)			(B)			(A)			(B)			(A)			(B)			
	소라	진 북	돛	우뭇가사리	소라	B/A	진 북	돛	B/A	우뭇가사리	소라	B/A	진 북	돛	B/A	우뭇가사리	소라	B/A	
1979	4,382	458	12,932	7,671	2,650	60.5	64	14.0	4,679	36.2	2,038	26.6							
1980	3,985	540	15,853	7,941	1,477	37.1	62	11.5	5,370	33.9	1,329	16.7							
1981	4,497	558	13,743	7,178	2,218	49.3	428	22.9	3,382	24.6	2,289	31.9							
1982	7,052	453	19,849	7,366	2,792	39.6	80	17.7	6,225	31.4	2,264	30.7							
1983	5,787	333	15,335	7,354	3,570	61.7	142	42.6	5,043	32.9	3,562	48.4							

자료 : 농수산부, 農林水産統計年報, 1984에서 작성.

국제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뭇가사리는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여 1983년에는 전국 생산량중 절반에 가까운 3,562%의 생산실적을 올리고 있다(표17참조).

1968년에 6,640%으로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하여 漁民所得에 크게 기여했던미역은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1983년에는 1968년 생산량의 20분의1에도 미달하는 317% 생산에 머물고 있다. 1964년경부터 시작된 육지부의 미역養殖으로 1974년에 들어와서는 육지부의 양식미역 생산량이 187천톤에 이르게 되어 본도의 黃金魚種이었던 미역은 販路를 찾지 못하고 바다에서 썩히게 되는 뼈아픈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더구나 소라양식에 필요한 日照量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동원해야 하는 귀찮은 魚種으로 轉落하고 말았다.

미역解警하는 날에 信號로의 白色旗·나팔·貝類고동 등을 이용하여 알리고 나이 어린 少女에서부터 80高齡의 노파에 이르기까지 바다에 몰리며 남자들은 女人들이 캔 미역을 저 나른다고 아우성치던 漁村의 풍경도 요즘에는 찾아볼 수 없는 전설이 되고 말았다.<sup>14)</sup>

요즘은 對日輸出의 所産으로 鹽場加工技術이 발달하여 국내시장에도 염장미역의 유통량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시장개척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소비시장의 限定性을 감안하여 생산량 증대보다는 다양한 食品開發, 海藻工業原料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비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계관초(고장풀)는 3년전부터 새로운 有望 輸出魚種으로 등장하여 1982년 132%, 1983년에는 110%의 對日輸出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中共의 시장침투로 販路가 위축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多角的인 市場戰略이 요구되고 있다.

### 3. 海女の 作業日數 및 作業時間

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면 漁村契員의 자격은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漁業을 經營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5)</sup> 따라서 60일

14)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前揭論文, p. 115.

15) 水産業協同組合法 第26條(組合員의 資格).

이상 漁業에 종사하여야 하나 자료에 의하면 60일 이하 작업 종사자도 1할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漁獲作業이 불가능한 産卵期나 禁採期에도 밭에 김을 매는거나 마찬가지로 바다에 나가 雜草除去 작업을 하게 되며, 소라·진복·양식을 위해 種苗를 附着하든가 不純物을 제거한다든가 하여 연중 해녀들은 바다를 떠날 줄 모른다. 따라서 60일 이하 작업하는 해녀가 1할 가량이라는 統計는 순수한 漁獲作業에 임하는 日數를 集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8〉에서 해녀의 作業日數를 몇 단계로 구분해 보면 1970년에는 30~59일을 작업하는 해녀가 14,143명 가운데서 가장 많은 4,509명으로 약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으며 60~99일 작업은 23%인 3,363명이고 200일 이상 작업하는 해녀도 1,198명으로 8%에 달한다.

그런데 1983년에는 30~60일 작업 해녀는 1970년과는 대조적으로 가장 적은 14%에 불과한 1,134명이며, 반면 1970년에 8%에 불과했던 180일 이상 작업하는 해녀가 전해 7,885명 가운데 2,584명으로 약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90일 이상을 작업하는 해녀는 60% 이상으로서 1970년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90일 이상 작업에 임하고 있는 해녀수를 연령계층으로 보면 가장 年少層인 14~19세의 연령층에 있는 해녀중 8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이며 나이가 많을수록 그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50~59세의 연령층도 과반수가 넘는 53%가 90일 이상의 작업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90일 이하를 작업하는 해녀는 상대적으로 낮은 3분의1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다.

1970년과 비교해 볼 때 作業日數別 從事者數는 거의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에는 99일 이하 작업 해녀수가 같은 해 海女數의 반이상인 8,338명인데 반해 10여년이 지난 1983년에는 잠수복 보급에 따라 90일 이상 작업에 임하는 해녀수가 3분의2선을 차지하고 있다(표18, 19참조).

합성고무로 된 잠수복 보급에 따라 파도가 거칠어서 작업을 못하거나 또는

〈표18〉 濟州道 海女の 漁業 日數別 從事現況 1970년

계	29일이하	30~59	60~99	100~149	150~199	200~249일
14,143(명)	466	4,509	3,363	2,482	2,125	1,198

자료 : 농수산부, 第1次 總漁業調査報告書, 1972.

禁採期間과 産卵期를 제외하고는 연중 작업이 가능하여 자연히 作業日數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잠수복을 착용하면 거의 무명옷과는 달리 海水를 遮斷하며 체온의 下落을 막아주므로 추운 겨울에도 장시간 바다에서의 작업을 가능케 한

〈표19〉 濟州道 海女の 年齡別, 漁業日數別 從事者數

구 분	계	30~60 일	60~90 일	90~180 일	180 일 이상
계	7,885 명	1,134 명	1,993 명	2,174 명	2,584 명
14 ~ 19 (세)	97	9	8	16	64
20 ~ 29	700	51	127	178	344
30 ~ 39	1,912	209	425	596	682
40 ~ 49	2,922	350	783	840	949
50 ~ 59	1,712	302	507	461	442
60 ~ 69	479	171	134	79	95
70 세 이상	63	42	9	4	8

자료 : 農水産部 : 農林水産統計年報, 1984에서 작성.

다.<sup>16)</sup> 漁村契에서는 資源保護나 해녀의 건강을 위해서 월 작업일수를 10일 이상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면 월 평균 작업일수는 얼마나 될까?

잠수복이 전해녀에게 보급된 지금은 월 평균 15일 이상 작업이 가능하다. 고무잠수복 보급이 4분지1쯤에 불과했던 1973년에는 겨울과 여름철 작업일수에 起伏이 심해 겨울철인 11월~1월까지의 월 평균 5일 작업을 하였고 6월~8월까지의 여름철에는 월 평균 15일 작업을 하여 월 평균 작업일수는 10일이었다.<sup>17)</sup> 따라서 10여년전에 비해서 월 평균 5일, 연 60일의 작업일수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海女作業은 일반 工業 勞動者와 같이 작업 시작시간과 마치는 시간에 규정되어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밭에 나가 농사일을 하다가 바다로 나가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家事일을 하다가 干潮가 되어 작업에 알맞은 시간이 되면 바다로 나가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해녀의 작업시간은 潮流에 따라 流動的일 수밖에 없다.

16) 이기욱; “도시와 도서민 : 마라도”, 「濟州道研究」第1輯, 제주도연구회, 1984, p. 170.

17)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前揭論文, p. 115.

1968년에 조사한 1회의 出漁時間은 <표20>에서와 같이 평균 92.5분인데 자료에 의하면<sup>18)</sup> 평균 出漁回數 1.5회로 하면 純作業時間은 약 2시간 19분으로

<표20> 濟州道 海女の 1日 出漁時間

구 분 \ 연 도 별	1968년*	1984년
순 작업 시간	2시간 19분	3시간
바다까지의 왕복시간	1시간	1시간
휴식 시간	30분	1시간
총 소요 시간	3시간 49분	5시간
월 총 작업 시간	38시간(10일 작업)	75시간(15일 작업)

\*자료 : 이경남, 前揭論文, p.137.

계산되고 있다. 여기에 작업자가 바다까지의 往復時間을 평균 1시간, 出漁回數간의 휴식시간을 30분으로 하면, 1시간 30분이 소요되므로 해녀가 하루의 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3시간 49분이 된다.

그런데 잠수복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겨울철 작업은 1회 1시간 정도였으나 잠수복을 着用함으로써 계절에 관계없이 작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연 작업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牛島, 大坪, 杏源地方을 중심으로 필자가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漁村契단위로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평균 작업시간은 3시간으로 잡고 있다. <표20>에서 해녀의 작업시간을 1968년과 비교해 보면 1984년의 작업시간이 약 1시간 정도 연장되고 있다. 그러나 고무잠수복 착용 이후부터는 작업중 排泄物 處理 때문에 식사를 거르고 작업에 착수함으로써 작업후는 거의 脫盡狀態가 되어 발에 나가 농사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총소요시간은 위 <표20>에서와 같이 하루 5시간으로 계산되지만 작업일에는 일반 공장노동자나 마찬가지로 도구준비와 피로회복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일반노동자나 마찬가지로 8~9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海女作業 자체가 워낙 고되기 때문에 작업시작 직전에 약을 服用하는 것이 보통이다. 잠수할 때의 水壓 때문에 心臟系統의 疾患은 물론, 불규칙한 식사로 胃腸病은 일반화되어 鎮痛劑와 胃腸藥은 항상 휴대하고 다닌다.

18) 이경남 ; 前揭論文, p.137.

작업시간의 연장으로 漁獲高는 상당히 증가하여 단기적으로는 해녀의 수입에 크게 보탬이 되고 있지만 해녀간의 지나친 경쟁이 자원의 급속한 枯渴現狀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지의 지적이다. 또한 고무잠수복과 오리발 着用으로 해녀의 職業病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오리발 착용으로 깊은 水深에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水壓에서 오는 頭痛現狀과 장시간 작업 때문에 排泄物에 의한 피부병, 일부러 식사를 거르고 작업에 임하기 때문에(空腹狀態에서 잠수가 용이하다고 함) 진통제 服用으로 말미암은 위장병 등은 해녀 누구나 가지고 있는 職業病이 되다시피 되었다. 그래서 S섬에는 가정마다 진통제나 위장약은 물론 영양제 주사를 갖추고 있으며 남자들은 주사를 놓을 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해녀들은 약 이름, 영양제 주사 이름을 철척 외우고 있다. 진통제를 服用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中毒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느 漁村契 職員은 資源枯渴을 막기 위해서나 해녀의 건강을 위해서 합성고무잠수복 着用을 금지해야 한다고 열을 올린다.

#### 4. 海女の 收入과 作業道具

##### 가. 海女の 收入

잠수복 착용 이후 海女の 收入은 급속히 증가하여 종전의 약 5배에 달한다. 해녀의 수입은 응답자에 따라 차이가 있게 마련이므로 정확한 수입액 산출은 어렵다. 그러나 上軍(상잠수), 中軍(중잠수), 下軍(하잠수) 계층의 수입액에 대해서는 응답자 모두가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1〉 濟州道 海女の 收入 1984년

구	분	우	도	대	평
	특				300,000
상	군	300,000			200,000
중	군	200,000			100,000
하	군	100,000			70,000
월	평	200,000			167,500

자료 : 필자 현지조사에 의함.

牛島の 경우 上軍의 월 수입을 30만원으로 하여 10만원씩의 격차를 두고 있는데 上·中·下軍을 포함한 전체의 월 평균 수입은 20만원이 된다.

大坪리는 特·上·中·下の 4단계의 격차를 두고 있는데 월 평균 수입은 167,500원이다.

두 마을의 조사결과를 평균한 월 평균 수입은 183,750원으로 계산될 수 있다. 해녀의 월 평균 작업일수가 15일이므로 해녀 1인당 일당 평균 수입은 12,250원이 되지만 上軍과 下軍의 수입액 차이는 크다. 즉 上軍은 일당 수입이 16,600원인데 비해 下軍의 일당 수입은 5,660원으로 그 차액은 일당 약 11,000원으로 上軍이 下軍보다 약 3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上軍은 각 漁村契別로 약 10%미만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 漁船非使用 漁業從事者の 소득율을 보면 粗收入은 年 1,843,574원인데 작업에 소요된 諸經費는 287,810원으로서 純所得은 1,555,764원이다. 따라서 어업소득율은 84.4%, 어업소득에 투하된 諸經費는 15.6%가 된다.

이를 농업종사자의 소득율 70.8%, 경비 29.2%와 비교해 보면 농업종사자보다 낮은 經費支出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도 해녀 1인당 연간 粗收入은 2,205,000원인데 이에 필요한 경비는 <표22>에서와 같이 海女道具 65,120원, 種苗代 12,891원, 養殖施設 補修 42,423원, 漁村契 年會費로서 30,000원, 이를 합하여 150,434원이 되며 여기에 기타경비를 10%로 계산하면 165,434원이 投資되어 純收入은 2,039,566원이 된다. 따라서 所得率은 92.5%로서 전국 어업종사자 소득율 84.4%보다 훨씬 높다. 즉 적은 경비를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경비면에서 전국 漁船非使用 漁業從事者가 投資하는 경비보다 10%가 덜 투자되고 있다.

下軍(하중수)의 경우는 粗收入 1,020,000원이므로 경비를 빼면 소득은 854,566원이 되어 소득율은 83.3%로 전국 어업종사자의 소득율보다 약간 낮다. 그러나 농업종사자보다 소득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비지출 비율도 훨씬 낮다.

#### 나. 海女の 作業道具

해녀의 작업도구는 비교적 단순하며 低廉하다. 그중 가장 값이 비싸며 생산량을 急増시키는데 原動力이 된 合成 고무로 만든 잠수복과 발에 신고 헤엄쳐 몸놀림을 빠르게 하는 오리발은 1970년대 초에 개발되어 보급된 새로운 海女裝

〈표22〉 全國·濟州의 所得率 比較

구분	조수입	경비	소득	소득율(%)	가계비	가계비증속도(%)
전국	4,701,737	1,370,776	3,330,961	70.8	4,053,675	82.2
농업	1,843,574	287,810	1,555,764	84.4	2,547,837	61.1
어업	2,205,000	*165,434	2,039,566	92.5	2,547,837	80.1
해녀	1,020,000	*165,434	854,566	83.8	4,641,811	43.9
하군						

\*

구분	금액	액
계	165,434	
해녀	65,120	
도구	12,891	
대	42,423	
양식시설보수	30,000	
어촌계연회비	15,000	
기타(경비10%)		

자료: ① 제주도 해녀의 粗收入과 經營는 필자의 현지조사에 의해 작성.  
 ② 농수산부, 農林水産統計年報, 1984에서 작성.



備이다. 그외는 在來式의 간단한 道具들이다.

作業道具別로 價格과 耐用年數를 <표23>에서 보면 국내에서 製造되는 잠수복은 종전에는 제품의 질이 좋아 2년이상 사용이 가능했으나 점차 질이 저하되어 요즘 제품은 1년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작크가 없어져 입고 벗기가 불편하며 찢어지기가 쉽다. 그런데 日本製 잠수복은 질이 좋아서 2~3년은 사용할 수 있으며 작크가 附着되어 입고 벗기가 수월한 편이다.

박양생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무명옷을 입었을 때 22.5°C의 물에서 1시간 작업하면 해녀들의 체온이 35°C로 떨어진다고 한다.

체온이 33°C가 되면 사람의 의식이 흐려지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므로 해녀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대체로 체온이 35°C에 이르면 물밖으로 나와 불을 쬐며 체온을 높인 후 다시 작업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온잠수복은 海水와 피부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여<sup>19)</sup> 체온의 하락을 늦어지게 하므로 자연 水中作業時間이 늘어나게 된다.

잠수복, 오리발 등 현대식 장비가 해녀들에게 보급되어 漁獲量 增加를 가져왔으나 이 利點에 못지 않게 여러 가지 副作用이 파생되고 있다. 작업일수 및 작업시간 증가로 資源枯渴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장시간 작업으로 인

<표23> 海女 作業道具

종 류	가 격	내용년수	감가상각(년)
잠 수 복	60,000	1년	60,000
오 리 발	3,000	2년	1,500
빗 장	1,000	"	500
정 개 호 미	1,000	"	500
눈	1,200	"	600
망 사 리	1,000	"	500
태 왁	2,000	"	1,000
작 살	500	"	250
골 각 지	500	"	250
계	70,200	"	65,120

자료: 필자 현지조사에 의함.

19) 이기욱; 前揭論文, p. 162.

한 해녀의 職業病이 늘어나고 있다. 우선 고무냄새를 독하게 풍기므로 오랫동안 안 냄새를 맡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리고 입고 있을 때 몸에 밀착되기 때문에 얼굴이나 손발이 부어오르게 된다. 그밖에도 浮力이 증가하여 잠수하기가 힘들게 되므로 허리에 남덩어리를 차게 되는데 이것이 허리에 부담을 주고 腰痛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sup>20)</sup> 특히 장시간 작업때문에 排泄物處理가 안되어 이것이 피부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외의 道具는 그 모양이나 性能이 改善되지 않은 채 在來式 그대로 내려오고 있으며 가격도 低廉하여 장만하는데 별어려움이 없다.

월평균 海女道具에 투자되는 비용은 5,427원 꼴이 되므로 生産原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은 편이다.

## 5. 第1種共同漁場의 面積 및 管理

社會經濟的 觀點에서 일반적으로 漁場이라 할 때에는, 漁獲活動이 수행되는 水域이며, 구체적으로는 「漁業技術의 대상이 되는 生物群, 곧 水産資源을 經濟的으로 採捕할 수 있는 場所」라고 할 수 있다. 이 의미에서 보면 共同漁場이란 「두 사람 이상의 다수 작업자가 水産資源을 經濟的으로 採捕할 수 있는 場所」라고 규정할 수 있다.<sup>21)</sup>

漁村契에 있어서 共同漁場의 主宗은 第1種共同漁場과 養殖漁業의 漁場이다. 第1種共同漁場은 貝類, 海藻類 이외에 水産廳長이 정하는 定着性 水産物의 採捕를 목적으로 하는 漁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sup>22)</sup>

이 어업은 全國海岸의 대부분에 걸쳐 散在하고 있으며, 漁場은 海岸으로부터 平均水深 10미터 이내의 범위안에 설치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로 江原道, 慶尙北道, 濟州道는 15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되며 또한 그 이내라 하더라도 원거리에 위치한 無人島, 落島, 孤島 등 실질적으로 共同行使를 할 수 없는 水面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다.<sup>23)</sup>

20) 이기욱; 前揭論文, p.162.

21) 張設鎬; 前揭書, pp.122~123.

22) 水協法 第8條 ①-4.

23) 水産業法施行令 第11條-②.

第1種共同漁場은 해녀들로서는 밭의 延長이다. 농사를 짓는 물의 밭만이 밭이 아니라, 漁場 또한 밭이다.<sup>24)</sup> 漁場은 해녀들에게는 바로 生計를 위한 作業場이기도 하다.

農水産部の 總漁業調査報告에 의하면 <표24>에서와 같이 濟州道の 第1種共同漁場의 면적은 16,462.8ha로서 전국에서 가장 넓은 漁場을 가지고 있어 天惠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어업 가구당 차지하는 면적은 1,699ha로서 전국에서 4번째이며 어업종사자 1인당 면적은 1.654ha로 京畿道, 江原道에 이어 3번째가 된다.

<표24> 第1種共同漁場 施設規模

		면적 : ha				
도	별	제 1 종공동어장(A)	가구수(B)	$\frac{A}{B}$	종사자(C)	$\frac{A}{C}$
경	기	4,111.6	1,030	3.991	1,707	2.408
강	원	2,165.6	1,054	2.054	1,115	1.942
전	북	715.0	458	1.561	807	0.885
전	남	8,285.0	12,320	0.672	21,976	0.377
경	북	11,357.3	8,726	1.301	8,822	1.287
경	남	15,665.5	6,190	2.530	10,494	1.492
체	주	16,462.8	9,689	1.699	9,952	1.654

자료: 농수산부, 第2次 總漁業調査報告書, 1982에서 작성.

그러나 이러한 어장이 資源의 枯渴로 荒廢化되어 가고 있다.

현지 漁村契마다 資源枯渴에 따른 資源保護問題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물론 養殖技術 개발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해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잠수복을 着用함으로써 종전보다 작업일, 작업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 잠수복 착용 이전에는 겨울철 작업시간은 1시간을 넘기기가 힘들었으나 잠수복이 보급된 이후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장시간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漁獲量도 종전의 5배 이상에 달하고 있으니 資源枯渴問題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4) 김두희·김영돈; 前掲論文, p.18.

또 한가지 문제는 潛水器船의 不正漁業이다. 잠수기선의 不法漁業은 최근에 와서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표25참조) 본도가 소유하고 있는 漁業指導船 3隻으로 본도의 廣闊한 漁場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성들여 養殖하고 보호해 온 海産物을 마구 잡아가는 것을 해녀들은 발을 구르며 바라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국에 연락해서 團束船이 현지에 도착하기 전에 고속엔진을 갖춘 不法潛水器船은 유유히 살아지기 일쑤여서 團束에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非法人 D漁村契에서는 자체에서 團束員 3명을 고용하여 5개월간 월 30만원의 人件費를 支拂하면서 漁場保護에 힘 기울이고 있다. 法人漁村契에도 漁場管理에 필요한 適正人員을 增員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販賣高에 의한 漁協手數料의 일부를 漁村契 收入으로 보조함으로써 漁村契 自體資金 造成基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표25〉 潛水器船 不正漁業 團束現況

연	도	부정 어업 단속 건수
1975		7
1976		7
1977		2
1978		4
1979		1
1980		1
1981		3
1982		
1983		1

자료 : 제주도, 水産現況에서 작성.

濟州道에서도 水産施策을 第1種共同漁場의 協業養殖場화와 水産資源 造成 및 保護에 두고 꾸준히 施策을 펴 오고 있는데 그 실적을 보면 〈표26〉과 같다.

貝類養殖에 사업의 중점을 두고 繼續事業으로 소라種苗區 施設을 하여 1974~1984년까지의 소라增殖事業 實績은 582ha에 사업비 1,055百萬원을 투자하고 있다.

소라가 海女收入의 60%를 점하고 있을 정도로 그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고

〈표26〉 濟州道 延岸漁場의 協業養殖場

연도별 구분	1979	1980	1981	1982	1983
貝類養殖	6ha	10ha	10ha	10ha	20.3ha
전복稚貝撒布	34,100尾				60만尾
増殖事業					3건
種苗培養場					1개소

자료: 제주도, 水産現況에서 작성.

있으나 소라稚貝의 購入難과 소라人工種苗 量産技術의 未治으로 増殖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소라 생산량의 變動推移를 보면 〈표27〉과 같다.

〈표27〉 濟州道の 소라 生産推移

연도별 구분	'60	'70	'80	'81	'82	'83	'84
생산량 (%)	702	1,591	2,145	2,929	3,368	3,648	3,332
금액 (百萬元)	2,496	82,732	4,102	5,400	7,368	8,760	9,116

자료: 제주도, 水産現況, 1985, p.15.

한편 전복양식에 있어서도 제주도 당국에서 전복稚貝撒布計劃을 계속 추진한 결과 그 실적이 〈표26〉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培養場 3곳에 敷地面積 16,344m<sup>2</sup>, 水面積 944m<sup>2</sup>로 生産能力은 115萬尾의 施設規模를 갖추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82년에 80.8萬尾, 1983년에는 100萬尾의 生産실적을 올리고 있어서 전복생산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水産物 輸出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표28참조).

이에 따라 道와 水協에서도 國庫, 地方費, 融資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계속 사업으로 매년 貝類養殖 면적을 확장해 오고 있다. 1979년 이후의 養殖事業 實

〈표28〉 전북 種苗培養場施設 및 生産實績

施設年度	施設規模			生産實績	
	부지면적	水面積	생산능력	1982년	1983년
계	16,344 $m^2$	944 $m^2$	115 萬尾	80.8 萬尾	100 萬尾
1972	9,200	500	70	50	60
1978	697	164	15	0.8	5
1981	6,447	280	30	30	35

자료: 제주도, 水産現況에서 작성.

續을 〈표26〉에서 보면 1979년 6ha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계속 시설을 확대한 결과 1983년까지의 양식사업 실적은 56.3ha에 이르고 있다. 말하자면 마구잡이 漁業에서 기르는 漁業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풍부한 資源을 바다는 제공하지 않는다. 일구고 가꾸고 다듬어야 沃土가 되듯이 바다도 철저히 관리해야 黃金漁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에서도 沿岸漁場의 協業養殖場化에 重點施策을 두고 지속적인 養殖事業과 魚礁施設 事業을 전개해 오고 있다.

현재 第1種共同漁場의 資源管理 手段은 일반적으로 漁具 漁法の 制限, 禁止, 漁期の 制限(禁漁期), 漁場의 制限(禁止區域), 漁獲物의 體長制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sup>25)</sup> 그러나 작업 때마다 해녀를 감독하기가 어려운 점, 漁村契員만을 중심으로 漁場管理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락민의 협조체제 조성이 어려운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漁場管理權을 전부락민이 共同管理토록 위임함으로써 부락민 모두가 어장에 대해 애착심을 갖도록 하고 漁場資源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5) 金基柱·孔泳共; 「水産資源學」, 부산, 태화출판사, 1978, pp. 204~293.

## Ⅳ. 海女の 地域經濟 및 家庭經濟에의 寄與度

### 1. 濟州道 地域經濟에의 寄與度

본도의 수출고는 매년 증가하여 1983년에는 21,357千弗로서 1975년의 9,048千弗에 비하면 2배가 넘는 높은 伸張을 이루었다.

이 가운데서 水産物 수출도 계속 증가하여 1975년 6,268千弗의 수출이 1983년에는 284%가 증가한 17,832千弗로서 수출 증가율이 본도 총수출고의 伸張率을 앞지르고 있다.

본도 수출고 가운데서 水産物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1975년 69.3%이었던 것이 1983년에는 83%를 점함으로써 제주도의 수출실적은 수산물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9〉에서 보면 輸出品目的 대부분이 第1種共同漁場에서 해녀에 의해서 漁獲되고 원료가 되는 소라고동, 툫, 海藻粉, 알긴산, 전복<sup>26)</sup> 등이 主宗을 이루고 있다.

水産物 輸出高 가운데서 海女가 漁獲한 어획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75년 64.6%이었던 것이 급격히 증가하여 1977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80%이상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1983년에는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魚種別로 가장 많은 수출고를 기록한 것은 소라인데 1975년 수출고 2,148千弗로서 水産物 輸出高에서의 비중이 34.3%에 불과했던 것이 1983년에는 12,457千弗을 기록함으로써 1975년 기준으로 볼 때 무려 580%가 증가했으며 水産物 輸出高에서의 비중은 약 70%선에 육박하고 있고, 濟州道 總輸出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이 넘는 58.3%를 점하고 있다. 또한 海女 漁獲物 輸出高에서의 비중도 80%를 차지하는 輸出戰略品目으로 등장하고 있다. 결국 濟州道の 海外輸出은 해녀의 어획물이 좌우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소라가 主導的인 役割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 이 중 잠수기선에 의해 어획된 어획물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분류하기가 어려워 포함시킴.

〈표29〉 濟州道 海女 漁獲物 主要品目別 輸出實績

연도별	분도총 수출고 (A)	수산물 수출고 (B)	B A	해녀 주요 어획물 수출고										C A	C B	
				세(C)	소라	전복	해조분	전돛	알긴산	기 해조류	타 해조류	세관초	성계			불가 사리
1975	9,048	6,268	69.3	4,048	2,148	169	21	1,583	117	10	44.7	64.6				
1976	10,939	7,565	69.0	5,662	3,339	174	117	1,846	177	9	51.8	74.8				
1977	13,027	9,683	74.3	7,915	4,643	167	210	2,562	333		60.8	81.7				
1978	13,903	11,411	82.1	9,568	5,581	55	219	1,221	324	2,168	68.8	83.8				
1979	15,420	11,025	71.5	9,084	7,328	254	1,330	172			58.9	82.4				
1980	18,764	15,268	81.4	13,284	7,124	71	1,644	708	3,737		70.8	87.0				
1981	19,270	15,899	82.5	13,125	10,052		1,672	749	652		68.1	82.6				
1982	18,964	15,972	84.2	14,549	11,069		1,108	173	1,585	614	76.7	91.1				
1983	21,357	17,832	83.5	15,499	12,457		2,022		106	779	72.6	86.9				

자료: 제주도, 수産現況에서 작성.



돔의 수출고도 1977년에는 2,562千弗로서 같은 水産物 輸出高에서의 비중은 26.4%로 약 4분지1을 차지하는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고비로 그 후 계속 輸出高가 하락하여 수산물 수출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위이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소라의 수출고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때문이며 수출고로 볼 때는 2,022千弗로서 비교적 높은 輸出實績을 기록하고 있다(표29참조).

소라의 生産高는 전국에서도 으뜸인데 1979년 전국 생산량 4,382千弗 가운데서 2,708千弗을 생산하여 전국 생산량의 61.8%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3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3,649千弗으로 63.1%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우뭇가사리의 生産高도 1979년의 27.9%이던 것이 1983년에는 전국 생산량 7,354千弗의 48.4%를 차지하는 3,562千弗을 생산하고 있다.

돔은 1979년 5,642千弗을 생산하여 전국의 43.6%를 차지했으나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여 1983년에는 5,043千弗으로 32.9%의 生産量에 머물고 있다.

전복류는 1983년에 전국 생산량 333千弗 가운데서 142千弗을 생산, 42.6%를 점할 정도로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여 오고 있는 魚種이며 濟州道の 輸出戰略 品目으로 수출실적에 기여하고 있는 魚種이다(표30참조).

이와 같이 濟州道の 輸出戰略 魚種은 제주도에서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生産增進을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養殖事業과 漁村契 中心의 共同漁場 管理로 誘導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魚種에만 의존하는 輸出戰略은 자칫하면 경쟁국의 등장으로 輸出不振이나 價格下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魚種을 漸進적으로 개발하고 또한 市場情報를 통한 적극적인 市場開拓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情報센터의 설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2. 家庭經濟에의 寄與度

〈표31〉에서 보면 전국 漁船非使用 漁業家口의 家計費는 2,547,837원이며 이 가운데서 음식물비는 871,905원으로 恩給係數는 34.2이다.

그러나 農業者口의 평균 가계비는 이보다 훨씬 높은 4,053,675원으로 恩給係數는 30.4가 된다.

또한 都市近郊 농촌의 家計費는 4,641,811원인데 이는 전국 농업 노동자의

〈표30〉 濟州道 海女の 地域經濟에의 寄與度

연도별	전 부 류		소라고동		해		삼		성		미		역		뚝		우뚝가사리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1979	458	65	14.2	4.382	2,708	61.8	3.325	62	1.9	2,719	10,028	155	1.5	12,932	5,642	43.6	7,671	2,137	27.9		
1980	540	56	10.3	3,985	2,142	53.8	3,139	87	2.8	3,383	10,244			15,853	5,494	34.7	7,941	1,897	23.9		
1981	558	133	23.8	4,497	3,000	66.7	3,534	50	1.4	5,212	19,313			13,743	3,500	25.5	7,178	2,288	31.9		
1982	453	80	17.7	7,052	3,368	47.8	3,678	34	0.9	5,565	6,191			19,849	6,225	31.4	7,366	2,208	30.0		
1983	333	142	42.6	5,787	3,649	63.1	3,966	125	3.2	5,260	666	12.7	5,835	317	5.4	15,335	5,043	32.9	7,354	3,562	48.4

자료: 농수산부, 農林水産統計年報에서 작성.

〈표31〉 漁村 및 都市近郊 農村의 家計費 構成

구	분	가	계	비	음	식	물	비	광	열	수	도	비	교	육	비	주	거	비	피	복	비	가	계	잡	비	영	결	계	수		
농	(전국평균)	4,053,675	1,232,663	30.4	169,669	500,238	306,771	183,148	1,661,186																							
		%	100	30.4	4.2	12.3	7.6	4.5	41.0																							
어	(어선비사용가구)	2,547,837	871,905	34.2	167,896	308,217	195,082	147,354	857,383																							
		%	100	34.2	6.9	12.1	7.7	5.8	33.7																							
농	(도시근교)	4,641,811	1,496,691	32.2	213,765	510,929	377,008	267,397	1,776,021																							
		%	100	32.2	4.6	11.0	8.1	5.8	38.3																							

자료: 농수산부, 農林水産統計年報에서 작성.

가계비나 漁船非使用 가구보다 높은 지출이다.

濟州道 漁業家口の 家計費 支出은 실지조사가 어렵고 또한 이에 대한 統計資料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農水産 統計의 資料에 의해 海女收入이 家庭經濟에의 寄與度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주도 漁村의 生活水準이나 教育水準과 教育熱은 타 어촌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따라서 都市近郊의 농촌 가계비 支出水準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가계비 지출을 本道の 漁村 家計費 지출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전국 漁船非使用 漁業家口の 가계비 充足度 61.1%와 비교해 보면 본도 해녀의 수입이 가계비의 충족도는 훨씬 높은 80.1%로서 가계비 지출에 海女收入이 80%이상인 층당되는 셈이 된다(표22참조).

그러나 濟州道の 어촌 가계비를 全國 都市近郊 농촌의 가계비 지출과 비교해 보면 海女收入이 가계비에 寄與度는 43.9%로서 가계비의 절반 정도도 層당하지 못하는 셈이 된다. 즉 가계비 4,641,811원이 지출되는데 비해 수입은 2,039,566원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生活水準이 향상되고 教育熱이 높아짐에 따라 高等教育(대학)의 기회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교육비와 가계잡비의 증가로 가계비 지출은 漸増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해녀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계비에의 層당율은 점차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下軍의 漁業所得은 854,566원이므로 漁船非使用 家計費에의 寄與度는 33.5%에 지나지 않으며 都市近郊 농촌 가계비에 대한 기여도는 18.4%에 불과하다. 上軍이 되기 위해서는 중학교 진학 연령부터 꾸준히 海女技術을 익혀야 하는데 본도의 1983년 여자 국민학교 졸업생 6,323명 중 6,170명이 진학하여 97.6%의 높은 진학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미진학자는 15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표14참조).

중학교를 졸업하여 海女職業을 선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몇년간은 下軍의 수입을 넘지 못할 것이므로 가계에의 寄與度는 보잘것 없기 때문에 海女職業을 선택하는 경향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성들이 모든 일에 消極的이고 受動的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가족의 생계는 해녀들의 노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馬羅島와 같은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海女收入이 家計經濟에의 寄與度는 점차적으로 감소

하고 이에 비례하여 海女の 地位도 그 빛을 잃어갈 것으로 생각된다.

## V. 要約 및 建議

이상에서 濟州道 海女の 現況과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고찰하여 보았는데, 다음에서 각 항목별로 간단히 요약·정리하면서 本稿를 쓰며 절실히 느꼈던 水産當局과 해녀자신들에 대한 몇가지의 建議事項을 살펴봄으로써 本稿를 맺기로 하겠다.

### I

1. 濟州道の 海女는 1974년을 고비로 점차 減少趨勢에 있으며 앞으로 몇년 이내에 그 수는 몇 백명으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격감할 것이 예상된다.
2. 1983년말 현재 海女數는 7,885명으로 1970년의 23,930명의 33%에 불과하다.

### II

1. 濟州道の 漁業從事者는 10,550명으로 1965년의 30,149명의 약 35%에도 미달한다. 이와 같이 漁業從事者가 급격히 감소한 主原因은 海女數의 격감에 의한 것이다.
2. 濟州道 漁業從事者의 漁業依存度別 분포를 보면 어업에만 종사하는 인구는 16%인 1,656명이고 어업을 주로하는 종사자는 3,253명으로 3분지1, 어업을 副業으로 하는 인구는 53%인 5,641명이다. 따라서 漁業을 主業으로 하는 어업종사자는 약 16%에 불과하다.
3. 水産物 總生産量은 36천여톤이며 전국 생산량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나 海藻類는 전국 생산량 중 약 4%의 생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第1種共同漁場을 중심으로 하여 海藻類 部문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政策的 支援이 있어야 하겠다.
4. 漁業別 生産量에서 보면 第1種共同漁場에서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주로 해녀에 의한 생산량이 濟州道の 水産業 生産량을 좌우하고 있음을 뜻한다.
5. 濟州道 輸出高 中 水産物 수출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아서

1984년 총수출고 중 80%를 차지하고 있다. 水産物 輸出高 중 소라와 툇의 수출고가 81%를 점하고 있어 濟州道 輸出戰略 品目이 되고 있다. 따라서 製造企業의 규모가 零細하여 工産品輸出이 거의 없는 本道の 輸出高를 伸張시키기 위해서는 水産物 輸出에 역점을 둔 關係當국의 多角的인 支援策이 필요한 실정이다.

### Ⅲ

1. 濟州道 漁業從事者의 75%를 海女가 차지하고 있다.

1970년의 海女數는 濟州道 여자 인구의 12%를 점하고 있었으나 1983년에는 3.2%에 불과할 정도로 격감되었다.

2. 濟州道 海女の 漁業依存度別 분포를 보면 海女職業을 專業으로 하는 종사자는 10%에도 못 미쳐 90% 이상이 海女職業을 兼業으로 하고 있다.

3. 1983년말 현재 연령별 분포는 40세 이상이 3분지2를 차지하고 있어서 1969년의 39세 이하의 연령층 해녀의 비중 64%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젊은 연령층의 海女數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의 海女數 감소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濟州道 海女の 9할 이상이 國卒 이하의 학력이다. 본도 여자 중학교 진학률이 1984년 98.4%임을 감안할 때 해녀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한 海女數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본도의 수산물 수출고가 전체 수출고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海女數의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나은 脫衣場施設 등 作業環境의 改善과 厚生福祉施設의 擴充, 模範海女の 産業視察, 優秀海女會 施賞 등 精神的, 經濟的인 報償策이 요구된다.

5. 海女에 의해서 漁獲되는 魚種중 가장 많은 어획고는 海藻類가 46.5%로 首位이며 그 다음이 軟體動物로서 15.5%를 차지하고 있다. 海藻類 중 主宗을 이루는 것은 툇과 우뭇가사리이며, 軟體動物 중 소라 생산량은 1979년 전국 총생산량의 3분지2 수준에 달하는 2,650%를 기록하였고 1983년에도 61.7%를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또한 툇과 우뭇가사리도 전국 생산량 중 각각 32%와 50%의 수준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툇, 소라 등 일부 魚種의 생산에만 치중하는 것은 앞으로 수출경쟁국의 등장으로 輸出不振, 價格下落 등의 不確實性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對日輸出에만 依存하고 있는 輸出市場을 多邊化하고 多品種商品 개발로 국제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對處해 나

갈 수 있는 장기적인 戰略樹立이 시급하다. 특히 각종 魚種의 消費市場의 限定性과 資源枯渴에 대처하기 위하여 생산량 증대보다는 다양한 加工食品의 개발과 海藻를 사용한 工業原料의 생산 등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관계당국의 政策推進이 필요하다.

6. 海女の 作業日數는 합성고무 잠수복이 보급됨으로써 파도가 거칠거나 禁採期間을 제외하고는 계절에 관계없이, 年中 작업이 가능하여 월평균 15일이며 작업시간도 하루 3시간 작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깊은 水深과 장시간 작업에서 생기는 頭痛, 皮膚病, 胃腸病 등의 職業病으로 海女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연1회의 정기 健康診斷과 並行하여 월1회의 정기 巡廻診療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 의료수가 할인제(병원 30%, 약국 20%)를 더욱 확대하여 他職種別 의료보험조합과 같은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국이 배려해 줌과 동시에 財政的인 뒷받침도 요구된다.

7. 海女の 收入은 上軍·中軍·下軍에 따라 格差가 있으나 평균하여 월 183,000원 정도로 볼 수 있다. 여기서 作業道具 購入에 소요되는 諸經費를 연 165,434원으로 보면 濟州道 海女の 所得率은 전국 어업종사자 소득률 84.4%보다 높은 92.5%이다.

8. 四面이 바다인 濟州道の 第1種共同漁場의 면적은 16,462.8ha로서 전국에서 제일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어 天惠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잠수복 보급, 潛水器船의 不法漁業과 廢水에 의한 汚染 등으로 漁場이 荒弊化되고 있으며 資源枯渴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不正漁業의 강력한 團束과 해녀작업 일수 및 작업시간 제한 등을 통해 資源保護에 힘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養殖事業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추진과 魚巢施設 사업 추진으로 마구잡이 漁業에서 기르는 漁業으로 漁場管理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IV.

1. 海女에 의해 漁獲된 生産物이 濟州道 水產物 輸出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특히 소라는 水產物 輸出高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2. 濟州道 輸出高 중 水產物 輸出高가 83%를 차지하고 이 중 海女에 의해 漁獲된 生産물이 90%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海女가 濟州地域 經濟에 큰

공헌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3. 전국 漁船非使用 漁業家口의 가계비는 2,547,837원으로 가계비 充足度는 61.1%인데 濟州道 海女家口의 가계비 충족도는 80.1%로서 가계비중 80생 산량 이상이 해녀의 수입에 의해 충당되고 있어서 자녀의 학비보조 등에 유익하게 쓰여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濟州道 漁村의 生活水準은 타어촌보다 높아 都市近郊 농촌의 생활수준에 달할 것으로 생각하면 海女收入의 가계비 충족도는 약 44%에 불과하여 앞으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教育水準 향상으로 海女職業을 선택하는 비율은 낮아질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海女の 地域經濟 및 家庭經濟에의 寄與度를 감안하여 앞에서 지적한 海女數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對策樹立이 필요하다.

### 三. 法社會學的 側面

#### I. 序

國家權力에 의하여 支持되는 法만을 「法」이라고 觀念한다면, 이러한 法과는 무관하게, 또는 獨自의 領域을 형성하여 「法 없이 사는」 農漁村의 生活秩序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法社會學 내지는 法人類學的 觀點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法 없이 사는 사람」이란 存在할 수가 없는 것이며 法이 없는 社會도 存續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람은 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는데, 이것은 실은 規範을 잘 內面化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sup>1)</sup> 또 이 경우의 「法」이란 주로 國家制定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法現象을 관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國家라는 要因이 포함된 法概念에 한정시켜, 그것에 구애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처음부터 法概念을 規定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共同體의 힘에 의하여 유지되는 社會規範을 일단 널리 法概念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共同體의 힘이란

1) 李璋鉉外, 「社會學的 理解」, 法文社, 1982, p.453.

만드시 國家의 힘이 개재된 것이 아닐지라도 그 社會의 構成員 個個人을 초월하는 共同體 全體의 해, 예컨대 「동네 매」와 같은 物理的인 것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도 心理的 壓力에 의해 構成員을 완전히 소외시키는 것까지도 포함할 수가 있다.

현존의 어느 社會의 規範을 과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우선 그 사회는 어떤 社會構造(social structure)를 가지고 있나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社會構造라는 말이 학자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행동할 수 있는 範圍나 行動樣式을 성해주는 社會的 定義 내지는 틀로 이해하고자 한다. 모든 社會構造는 두 사람 이상의 社會的 相互作用에 의해서 형성되며, 이 社會的 相互作用은 그 社會的 關係가 어떠한냐에 달려 있다. 여기서 社會的 關係란 두 사람 사이의 人間關係가 각자의 地位와 役割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安定的인 相互作用의 類型을 이룰 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요컨대, 어느 社會의 構造 내지 構成要素는 구체적이 사람이 아니라 그 役割에서 파악된다. 사람은 동시에 수많은 役割을 담당하며, 이 役割은 결국 사회적으로 규정된다. 役割은 일정한 權利와 義務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文化의 內容, 특히 價値와 規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결국 法規範도 役割期待를 형성하는 한 因子로서 궁극적으로는 役割期待 속에 살아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觀點에서 濟州道の 典型的인 漁村을 골라 그 漁村共同體의 社會構造와 法規範과의 相互關係를 살피고자 한다. 특히 濟州道の 大部分의 漁村에서는 他道와는 달리 海女들이 그 사회에 기여하는 社會·經濟的 役割이 막대하므로 여기에 焦點을 맞추어 그 機能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參與觀察(participant-observation)을 통하여 漁村의 生活相을 分析하는 方法이 最善이라 하겠으나, 시간의 제약으로 이 方法이 충분히 지켜질 수 없었다.

濟州道の 漁村은 調查過程에서 다시 몇개의 類型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즉 生産形態를 중심으로 純漁, 主漁從農, 半農半漁로 대별할 수가 있었다. 이 區別도 一刀兩斷으로 잘라서 나눌 수 없으나, 그 漁村 전체의 所得의 거의 전부를 漁業에 의존하고 있을 경우에는 純漁, 半 정도를 漁業에 依存하고 있을 경우에는 主漁從農, 所得의 殆半이 漁業에, 그 나머지를 農業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半農半漁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나누어진 漁村의 類型에 따라 각기 海



女の 役割이 어느 정도이며 또 入漁慣行의 強度가 얼마만큼 「法的」인지를 비교하여 보았다. 이와 함께 純漁인 漁村의 規範生活을 純農인 農村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그러한 規範이 배태될 수 있는 自然的·經濟的·社會的 條件을 규명하여 그 規範의 社會科學的 根據를 밝히고자 한다. 또 같은 漁村이라고 하더라도 濟州道의 漁村과 他道의 漁村과는 상당히 다른 生活相을 보이고 있다. 특히 海女の 役割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點이 他道와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點에 유의하여 他道의 漁村과도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II. 漁村共同體의 自然的·經濟的 環境과 海女の 역할

濟州道는 四面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육지부와는 원거리에 놓여 있다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사회에 비하여 그 社會構造가 특이하다. 따라서 이에 따른 慣行 내지 法規範 역시 다르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社會構造는 그 社會가 처해 있는 自然的 環境과 상당한 함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기서는 우선 고찰대상이 되는 漁村의 自然的 環境을 개괄하고자 한다. 濟州道內에서도 그 環境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것을 세 가지로 類型化하여 그 환경에 따른 海女の 役割을 살피고자 한다.

### 1. 純漁의 경우

완전히 純漁라고는 할 수 없으나 거의 純漁에 가까운 곳이 馬羅島라고 할 수 있다. 馬羅島는 濟州島의 附屬島嶼로서 우리 나라의 최남단에 있는 고립된 섬이다. 濟州 本島에서 11km, 인근 加波島와는 5.6km 떨어져 있는 孤島로서 총면적 0.3km<sup>2</sup>, 海岸線의 총 길이는 1.5km에 불과하다.

이 섬은 전체가 현무암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주변 해역 역시 많은 현무암이 뒤덮여 있어서 海藻類나 貝類, 기타 海産物의 最適 棲息地를 형성하고 있다. 섬의 동쪽 해안은 태평양의 거센 파도에 의해 끊임없이 侵蝕되어 39m나 되는 벼랑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벼랑은 서쪽 해안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쪽과 유사하며, 북쪽과 남쪽만이 완만한 경사로 이어져 海水面과 맞닿고 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암석이 불규칙하게 깔려 있어 선박의 통행이 사실상 불

가능하다. 이와 같이 험난한 地形과 強風으로 인한 氣候의 제약 때문에 외부 지역과의 교통이 어렵고, 따라서 주민들의 生計 活動도 전적으로 島嶼內的 資源 利用에 限定되고 있다.

이 섬의 人口는 總 25家口에 남자 66名, 여자 42名으로 구성되어 있다(1981年 基準).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은 이유는 남자 중 20名이 非常住人口로서 도서 경비대와 등대직원 등이 있기 때문이다. 常住人口는 이 섬의 토지 및 주변 해역의 資源단에 대한 所有權 및 利用權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非常住人口와 구별된다. 이 原住民들은 사실상 이 섬의 주민으로서 마을의 자치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行使하는데 意思決定을 하고, 새로 전입하여 오는 사람들의 迎入如否를 決定하기도 한다. 原住民의 人口는 20家口에 남자 46명, 여자 36명으로 되어 있고, 남자 중 6명이 漁業에 종사하며, 여자 중 18명이 海女로서 이 섬의 資源利用을 통한 生計活動에 핵심적인 役割을 하는 사람들이다.

섬 내의 거주 人口數는 50名 정도로서 他地域에 轉入해 나가므로 항상 일정한 數로 유지되고 있다. 人口 移動의 원인은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島內에는 없고, 특히 資源이 빈약하여 남자들의 주된 生計活動인 고기잡이가 힘들어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原住民들은 인근 해안의 資源에만 의지하여 生活하여야 하고, 또 이 資源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것을 의식하여 가급적이면 이 資源을 利用하는 人口를 줄이려는 試圖가 다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 섬에 특유한 鄉約은 오랜 세월을 거쳐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살아 있는 法」으로서 그것의 要諦는 한정된 資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人口를 줄이려는 戰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點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住民들이 이용가능한 資源은 土地資源, 섬주변 共同漁場의 沿岸資源, 그리고 深海資源 등이다.

土地資源은 섬 內의 10만평의 척박한 땅이 있을 뿐이다. 개척되기 이전에는 원시림으로 뒤덮혀, 토양은 비교적 비옥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 숲이 제거되었고, 여기에 태풍이나 계절풍 등 자연적 작용으로 토질 층은 얇아져 점점 불모지화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섬 남단의 일부에서만 農耕이 가능하다. 그것도 고구마나 감자 등 球根類밖에는 다른 것은 경작이 불가능하다.

과거의 營農方式은 각 가정별로 남자는 밭을 갈고 씨뿌리는 일을 맡고, 여자는 김매는 일을 전담하였다. 다만 수확만은 남녀 모두가 협동하였다. 耕作規模가 各家庭이 自家消費에 충족될 수 있는 정도의 곡식을 생산하고 있었으므로, 勞動力의 需要도 각 가정 단위로 충당되었다. 따라서 협동노동의 형태인 두레의 풍습은 없었다. 그러나 품앗이는 흔히 행해져 밭갈이 하루에 3日間 김을 매어주는 交換勞動의 形態가 支配的이었다.

土地의 所有形態는 私有와 共有가 혼성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이 섬은 國有林野地였으나, 100여년 전인 1883년에 開拓되면서 당시 開拓者들이었던 6인의 名義의 所有로 登記되었다. 그 후 1965년에 이 섬의 分校를 증축시켜 주는 조건으로 당국에서는 學校 敷地의 기부를 요구하였다. 최초의 登記 名義人이었던 6인은 이미 死亡하여, 그 후손들의 동의하에 섬은 住民들의 共同牧場으로 登記되었고, 學校 敷地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현재는 國有地인 燈臺 敷地와 郡所有地인 學校 敷地를 제외한 섬 전체가 共同 牧場으로서 住民의 共有地가 되고 있다. 이렇게 共同牧場으로서의 登記가 용이했던 이유는 우선 농사가 되지 않아 土地 自體가 重要視되지 않았고, 大部分의 農土가 牧草地化되어 土地利用 과정에서도 사실상 共有化하여 私有地라는 관념이 희박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住民들의 人的 構成이 모두 初期 移住者들(姻戚이나 血族으로 얽혀져 있었던)의 후손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가 없다.

섬 住民들 사이에 잠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土地의 私有形態는 土地를 所有한다기보다는 오히려 土地를 使用·收益만 할 수 있는 權利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도서 내에 居住하고 있는 동안은 土地를 排他的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他地로 移住할 경우에는 이 使用權은 가까운 親戚에게 讓渡되는데, 이것은 持分の 讓渡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주변 해역은 水産資源이 풍부하다. 따라서 섬사람들의 主要 生計는 海産物 채취로 유지된다. 土地의 불모화는 더욱 이 水産資源에 매달리게 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특히 근래에 와서 海産物の 輸出과 水協을 통한 流通構造의 개선 등으로 需要가 늘게 되어 海産物の 채취작업은 더욱 유리한 生計方法이 되고 있다. 이 水産資源은 두가지 方法으로 利用된다. 즉 남자들은 어선을 이용하여 고기잡이를 하며, 海女들은 近海에 잠수하여 海産物을 채취한다. 그런데, 고기잡이는 포구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날씨의 변화에 대비하

여 漁船을 물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1ton 內外의 발동선 2척밖에 없다. 따라서 漁業에 종사하는 인원도 6名밖에 안 된다. 이 두척의 각 배에는 배의 所有主人 船主와 船主 外의 2人이 동승하여 作業한다. 船主를 포함한 3人은 저마다 自己 所有의 그물과 낚시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다. 그물을 가설할 때는 서로 협동하여 작업한다. 이 어부들이 자기의 그물로 잡은 고기는 물론 그 개인의 所有가 되지만, 船主에게는 잡은 어획량의 10%가 뱃값으로 돌아간다.

漁船을 利用한 고기잡이가 남자들만의 일이듯이 해안에 서식하는 海產物을 채취하는 潛水業은 여자들이 전담하고 있다. 개척 초기에는 깊은 물 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쉽게 채취할 수 있을 정도로 海產物이 풍부하였으나, 居住人口가 늘고, 또 農事가 불가능하여짐에 따라 住民들 모두가 이 채취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따라서 海產物도 稀少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제는 가격이 높은 海產物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깊은 물 속에서 오래 잠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일은 海水의 寒冷 자극에 강한 여성들이 전담하여 채취하고 있으므로, 生計活動에 있어서의 女性의 役割이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여러 가지 잠수도구를 사용하여 海底資源을 채취하고 있는 海女數는 18名으로 原住民 20家口 중 15家口의 부녀자들이다. 이들이 海女會의 회원들로서 스스로 정한 規約을 엄격히 지켜 나가고 있다. 수익은 작업량에 따라 각자가 所有하게 되므로, 동료들 사이의 競争力도 대단하다. 따라서 이 作業은 근본적으로 協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競争 속에서 개별적인 勞動에 의한다.<sup>2)</sup>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동료들보다 좀더 깊이, 좀더 멀리 헤엄쳐야 한다. 물론 작업시에는 海女 모두가 모여서 함께 물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것도 協同을 위해서가 아니라, 全體 海女가 公平하게 資源을 채취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規約에 따른 것이다. 이런 規約을 어겨 혼자서 물에 들어갈 때에는 海女會의 制裁를 받게 된다. 즉 密採取者는 水鏡 기타 잠수도구와 채취한 海產物을 압수당하고 일정금액의 罰金을 물게 된다.

이상의 잠수업은 海女들만의 作業分野에 해당되지만, 男女가 共同的 參與下에 이루어지는 作業이 있다. 그것은 미역과 툇이 中心이 되는 海草를 채취할

2) 李起旭, "島嶼와 島嶼民," 「濟州島研究」 第一輯, 濟州島研究會, 1984, p.171.

때 행해진다.

툇은 70年代에 이르러 日本으로 加工하여 수출하게 됨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고, 따라서 중요한 資源으로 부각되었다. 툇의 채취는 마을의 自治規範인 鄉約에 의해 禁採期間이 정해져 있어서 이 기간에 밀채할 때에는 상기한 경우와 같이 制裁를 받는다. 禁採期間이 設定된 것은 툇이 가장 성숙한 時期에만 채취하도록 하여, 마을 전체의 수익을 높이려는 데 있으므로, 이 禁採律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採取時에는 외지로 나가 있는 住民들까지 참여하여 마을 共同作業이 자발적으로 이루어 진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理由는 收益金이 參與者의 數에 따라 公平하게 分配되기 때문이다.

미역은 종래에는 툇의 경우와 같이 禁採期間이 정해져 있었고, 이에 대한 違反의 경우에 같은 制裁를 받게 되었으나, 근래에 와서 양식된 미역이 많이 나와, 이제는 미역의 商品價値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미역에 대한 禁採律도 없어서, 미역의 채취는 任意대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채취된 海産物은 自家消費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소재의 매 정읍을 통해 매매한다. 매매방법은 水協을 통해 매년 入札價格에 따라 판매되고 있다. 馬羅島 收益의 主種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역시 海女들의 收益이다. 이들의 收益으로 子女들은 外地의 中학교나 高等學校에 다니고 있으며, 어떤 가족은 收入의 상당한 부분을 저축하여 타지로 이주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馬羅島 住民들의 生活水準이 그렇게 낮은 것만은 아니다.<sup>3)</sup> 島嶼民이 박한 環境에 머무르는 것도 결국 그들의 서식지가 살아갈 만한 與件이 되고 있고, 또 그러한 與件에 적응하기 위한 지혜를 짜모으기 때문이다.

이 섬 住民들의 지배적인 分業方式은 性別分業이다. 作業方式이 단순하므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體力과 技術을 지니고 있으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資源을 이용하는 作業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島嶼의 生態的 特性에 의해 生計活動上 가정내의 남녀가 서로 다른 일을 하게 하고 있다.

島嶼의 自然的 特性은 남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야외에서의 일터를 상실하게 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漁業에 종사하는 경우는 48명의 남자 중에 6명에 지나지 않으며 그 소득도 저조하여 生計維持에 큰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

3) 戶當 年平均所得이 250만원을 넘고 있다.

다. 소를 돌보는 일도 共同 放牧場이 있으므로 남자들의 役割이란 대단하지 않다. 따라서 大部分의 남자들이 하는 일은 가정에서 아기보기, 돼지 사료 주기, 기타 장보기 등이다. 장보기는 남자가 배놓을 수 없는 일의 하나이다. 생활필수품의 대부분이 대정읍에서 구입해야 하므로 한가한 남성들이 주로 맡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實生活에서 남성들의 役割은 중요시되지 않으나, 조상을 위한 儀禮에서는 그래도 남성들의 권위를 유지시켜 주는 영역이 있다. 해야 할 重要한 일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시간을 술과 화투놀이로 보낸다. 특히 술은 마을내의 불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이렇게 형성된 習性은 결국 남성들로 하여금 일을 천시하는 경향으로 몰아갔고, 결국 여성들의 勞動力에 의존하는 扶養者로 변하였다.

가정내의 成人 女性은 거의 海女이면서, 또 사실상의 家長이다. 가족의 生計도 이들의 勞力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남성들이 그 능력을 다할 일터를 상실하고 扶養者의 처지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여 오는 과정에서 勞動에 대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반해, 여성들은 稀少資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성들 사이에서 은연중에 생기는 競爭心과 함께 적극적인 生活態度가 길러졌다고 할 수 있다. 가정 내의 일도 여성들의 손을 거쳐 처리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役割은 잠수업이다. 海女들은 바다가 잔잔할 때는 언제건 바다로 나간다. 그리하여 하루에 5~6시간씩 水中 作業을 감당한다.<sup>4)</sup> 生計活動에서와 같이 마을의 諸般 活動을 主導하는 것도 역시 여성이다. 資源의 保存을 위해 잠수기선의 침범을 막는 일, 타지로 결혼하여 나가는 여자로부터 냉정하게 入漁權을 박탈하는 일 등에서 우리는 여성들의 강인한 決意를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마을의 중요한 일이 형식적으로는 남자에게 의해 主導되는 듯하나, 實質적으로는 여성들의 뒷받침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다. 여기서 海女會는 가장 적극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요컨대, 生産活動에 나타나는 馬羅島의 社會의 特性은 女性 中心의 採取經濟的 社會의 形態를 띠고 있다.

이상과 같이 馬羅島의 自然的·經濟的 側面에서 地域共同體의 特性을 살펴 보았다. 이것을 江原道 原城郡 G面의 自然部落 P·K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相反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4) 이렇게 과도한 勞動의 후유증으로 잠수병에 시달려 괴로와하고 있다.

우선 P·K는 農業이 中心이 되고, 生計의 바탕을 土地에 두고 있는데 반해 馬羅島는 잠수업에 의지하고 있다. 勞動形態를 보면, P·K와 馬羅島가 다같이 自家勞動力에 의해 生産活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전자는 두레 등의 協同勞動이 있는데 후자는 없다. 生産품은 P·K의 경우, 自家消費가 이루어져 市場經濟에 대한 依存度가 대단히 얕으나<sup>5)</sup> 馬羅島는 海產物은 대부분 商品化되어 그 依存度가 상당히 높다.

또 社會構造上 分業의 정도가 낮다는 점에서는 양쪽이 같으나, 性別 分業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반되고 있다. 또 모든 生産活動은 協同에 의하는 것이 P·K의 경우는 뚜렷하나, 馬羅島의 경우는 오히려 競爭的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 2. 主漁從農의 경우

牛島는 主漁從農의 대표적인 곳으로 볼 수 있다. 牛島 전체의 年間 所得을 보면, 總 19억원 중에 漁業에서 얻는 것이 약 13억원, 農業에서 얻는 것이 6억원으로서 漁業所得이 을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섬은 濟州道 北濟州郡 舊左邑에 속해 있는 외딴 섬이다. 交通편은 성산읍 성산리에서 3.8km 떨어져 있어서 매일 정기선이 왕래하고 있다. 總面積은 6.8km<sup>2</sup>, 人口는 3,294名, 家口數는 692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상술한 馬羅島보다 약 20배 크기의 면적을 가진 섬으로서 웬만한 面 所在地가 지닌 社會·文化 環境에 뒤지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중학교, 국민학교가 있고, 종교도 基督教 개신교회 1개소, 佛敎寺刹이 2個所, 그리고 邑出張所, 單位農協分所, 경찰지서, 法人漁村契, 우체분국 등이 있어서 公共機關 내지 시설에서 보아 面 所在地에 못지 않다. 또 문화혜택의 상황을 보더라도 TV保有家口數가 總家口數의 半이 넘는 476家口, 냉장고는 3이 넘는 285家口, 카메라 保有家口數는 30家口, 신문 구독이 60家口에 이른다. 섬 안을 왕래하는 마이크로 버스도 3대나 된다. 이것을 볼 때, 島嶼地方으로서는 다른 곳에 비교하여 상당히 폭이 넓은 문화혜택을 받고 있는

5) 崔大權, 「法社會學」, 서울大學出版部, 1983, p.156.

곳이라고 할 수 있다.

海女數는 여자 總人口 1,774名중 486명으로 27.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취학하는 아동 및 고령자를 제외하면 여자의 상당수가 잠수업을 하고 있다. 한편 漁船數도 10屯 미만이지만 30척에 이르고 있어 馬羅島에 비해서는 漁船漁業도 왕성한 셈이다. 이 海女들이 어업활동을 통해서 얻는 收入도 1인당 연평균 약 25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牛島는 馬羅島에 비해서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고 12개의 마을로 나누어져 있어서 相互 統制를 가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마라도의 경우처럼 轉入者에게 상당한 入漁料를 부과하여 섬에의 移住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물론 이곳의 海女들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海產物 때문에 가급적이면 海女數가 줄어들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것을 표면화시켜 어떤 決定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오히려 轉出하는 경우가 많아 海女數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마라도와 같이 한정된 資源을 활용한다는 의도로 人口數를 줄이려는 戰略은 찾아볼 수 없다.

牛島 住民들은 總面積의 약 74%인 5km<sup>2</sup>를 田으로, 그 나머지를 목장 기타 연료 채취지로 이용한다. 따라서 풍부한 海產物 외에도 밭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주로 보리·유채·고구마 등이 대종을 이룬다. 營農方式은 가정을 중심으로 행해진다. 품앗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농사철이나 勞動力이 한정되어 있어서 개인의 勞動力을 기다리다가는 시기를 잃어버리기 쉽상이다. 그래서 가급적 자기 가족의 勞動力에만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勞働의 分業狀況을 보면, 女性들은 잠수하는 일을 주로 하지만 그 외의 일은 남녀가 같이 바다일을 한다. 또한 남자들은 선박을 이용하여 漁業에 종사하고 있다. 漁船漁業에 종사하지 못하는 남자들은 家事를 돌본다. 집도 수리하고, 밭도 정리하며, 기타 잡일을 한다. 마라도의 경우처럼 남자들이 무기력하여 扶養者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남자들은 전통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끌어 나간다. 비록 女性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所得을 올려 그것이 家計에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에 相應하는 自己의 權益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女性들이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생활자세를 지니고 있는 점에서는 결코 마라도의 海女에 못지 않다. 특히 이곳은 일찍부터 해외까지 出稼하여 그 收入으로 밭이나 집을 마련한 예가 많고 아직도 120명 정도의 海女들이 충무나



삼천포 등 南海岸 쪽에 출가하고 있다.

自強不息하는 참모습은 海女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은 옛날부터 면면히 내려온 전통이기도 하다. 남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家計를 꾸려나가야 한다는 강한 責任意識은 일 속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人生觀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남편들의 가끔 있는 바람끼에 대해서도 離婚을 요구할 정도로 크게 掛念하지는 않는다. 男子에게 종속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支配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들의 경제적 自立意志야말로 그 험한 바다속에서 몇 시간이건 고된 작업을 하게 하는 原動力이 된다. 깊은 바다 속에서의 作業이 쉽거나 즐거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海女들은 「밭일」이 「물질」보다 쉽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왜 그들은 바다속에 왜 기꺼이 뛰어드는가? 그것은 「물질」이 밭일보다는 단조롭지 않기 때문이다. 잠수는 본래 그 속성이 많은 모험과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10m 이상까지 잠수하여야 하는데, 이때 물속에서 나와서 뿜어대는 숨소리는 정말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느끼게 한다. 물 속에서 때로는 상어도 만나고 거북도 만난다. 상어에게 희생되는 예는 그리 흔하지 않지만, 거북은 바다 속에서 만나는 참으로 반가운 손님이다. 「용왕의 셋째 아기」로 觀念되는 이 거북이와의 잠간의 遭遇가 海女에게 낭만과 기쁨을 주는 것이다.

물 속에서 제일 기쁨을 주는 것은 전복을 발견했을 때이다. 無主物을 先占하는 原始採取는 그 어떤 作業과도 비할 수 없는 보람과 환희를 준다. 전복을 따는 海女の 뇌리에는 병약한 老母나 꼬마의 얼굴이 스쳐가기도 한다. 전복죽은 허약한 가족들의 건강을 회복하여 줄 수가 있겠기 때문이다.

고된 作業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같은 또래의 海女들과의 競爭心이다. 잠수능력이 워낙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런 競爭心은 크게 誘發되지 않지만,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海女들 사이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몰후에까지 물 속에서 나오지 않아 입어시간을 통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海女들이 잠수업에 열중하고 있지만, 그것은 「며칠 잠수 안하면 몸이 쭈실」<sup>6)</sup> 정도로 즐거운 것은 아니다. 과도한 물 속에서의 作業으로 잠수병에

6) 趙惠貞, “제주도 해녀사회연구”(韓相福編: 한국인과 한국문화), 심설당, 1983, p. 148. 趙教授는 이 論文에서 海女들의 作業意慾을 마치 生來의으로 갖고 나온 것처럼 보고 있다.

시달려 뇌선을 안 먹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런 때면 남편들이 주사를 놓는 등 간호원 노릇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海女들은 자식들에게까지 잠수업을 물려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가능한 훌륭하게 키워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 이러한 욕구가 잠수업의 고된 일을 堪耐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이다. 따라서 최근에 와서 海女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딸자식을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시켜, 잠수업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이상과 같이 主漁從農인 牛島에 관하여 海女の 가정내에서의 役割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家計를 꾸려나감에 있어서 女性의 役割이 남자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마라도처럼 女性中心인 사회는 아니다. 아무리 여성의 경제적인 役割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전래의 가정적인 전통은 牛島에서도 의연히 남아있다. 따라서 이곳의 남녀의 役割은 相互補完的인 關係를 유지하고 있고 어느 쪽의 優位를 따질 수는 없다.

### 3. 半農半漁의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濟州道는 그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해발 300m內외의 山間部落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마을이 半農半漁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山間部落은 농촌이라고 이름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마을은 뚜렷이 農村 또는 어촌으로 구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이러한 곳의 住民에 대해서도 農民 또는 漁民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물론 마을내에서는 農業이나 漁業에만 종사하는 주민도 다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어업과 농업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즉 農繁期에는 농사를 짓다가 農閒期에는 바닷가에 나가서 海産物을 채취하는 것이 濟州農漁村의 自然的·經濟的 側面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農漁村의 경우에는 그 마을 全體가 漁業에서 얻는 소득의 비율도 각각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特徵을 가진 마을 중 南濟州郡 西部地域의 大靜邑 下臺里, 東部地域의 城山邑 新陽里, 北濟州郡의 龍水里, 北村里, 그리고 濟州市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東貴里를 중심으로 하여 半農半漁(이하 農漁村이라 한다) 마을의 自然經濟的 側面과 海女들의 役割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濟州道の 農漁村은 규모가 큰 마을들이 많다. 이들 마을 역시 예외는 아니다.<sup>7)</sup> 이 곳들은 새마을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마을 진입로 및 안길 포장, 전기·전화의 가설, 상수도시설 등 각종의 문화시설이 개선되어 왔다. 근래에 와서는 새마을사업에 힘입은 바도 크지만 在日僑胞들의 도움도 일익이 되었다. 여기에 감귤을 비롯한 亞熱帶性 作物의 栽培가 비교적 他道에 비해 경제적인 풍부함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들 農漁村의 경우에는 밀감의 재배가 최근에야 시작되었다. 따라서 주요작물은 유채, 고구마, 보리, 콩 등의 田作物 栽培를 통하여 식량의 자급자족을 기하면서 농한기를 이용한 海産物의 채취로 자녀의 교육비, 기타 경비에 充當하고 있다.

海産物 중에 가장 중요한 資源은 툫이다. 툫은 70年代 후반부터 對日輸出이 활발하면서 그 價格이 急增하여 農漁民들의 소득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소라와 전복의 채취도 家計에 重要な 몫을 하고 있다. 그런데, 툫도 최근에 와서 日本이나 中共등에서 값싸게 大量으로 收入될 전망이어서 멀지않아 그 값이 폭락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미역과 같이 툫도 禁採期가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소라와 전복의 수량도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어 하루에 벌 수 있는 收入金도 과거의 1/3에 못미친다고 하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소라는 6cm미만의 것은 採捕하지 못하도록 규정되고 있고(水産資源保護令 제 10조 제1항 18호 但書), 또 소라의 양식을 위해 海女會의 주관으로 새끼소라들을 키우는데, 이것도 漁村契의 入漁內規로 6cm미만의 것은 禁採하고 있다. 따라서 海女들은 이러한 禁採期 때문에 원거리의 암초나 무인도 등에 배를 샅주고 나가서 채취하게 된다. 배의 샅이 하루에 5萬원(왕복하는 데에만)이나 주어야 하며, 이제는 원거리의 무인도의 자원도 고갈되어 가고 있어 海産物採取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한편, 어선을 이용한 고기잡이는 철에 맞추어 제주에 특유한 자리, 그리고 갈치, 오징어, 옥돔 등을 잡고 있으며, 여기에는 禁採期間이 없다. 문제는 고기의 양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어 바다 멀리 나가지 않고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는 최소한 75마력이상의 배를 이용해야만 漁

7) 1984年 현재 下幕里는 1695家口, 人口數 6,942名(男3,373, 女3,569), 東貴里는 315家口, 人口數(男627, 女685), 北村里는 332家口, 人口數 1,591名(男842, 女749).

船漁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과거의 영세한 漁夫들은 船主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결국 다른 船主의 밑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이러한 고기잡이에는 고기의 종류에 따라 船員數가 다르다.<sup>8)</sup> 船主와 船員사이의 분배율은 갈치잡이의 경우, 6:4(대정읍 하모리인 경우) 또는 5:5(성산읍 신양리인 경우)로서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선 一般經費로 수확의 30%를 제외하고 나서 분배율을 정한다는 원칙은 같다. 어느 경우이건 船主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자본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漁船 한 척의 값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선(장비 포함)에 이르는 점을 감안한다면, 영세어민이 이러한 배를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船員에서 船主로의 階層間的 移動은 실로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늘날 農漁村에서의 남성의 역할은 옛날의 그것에 비해서 훨씬 커지고 있다. 흔히 濟州에서는 여자가 많고, 또 여자는 남자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膾炙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와서는 어울리지 않는 옛말이 되어버렸다. 濟州 農漁村의 자연적 조건은 海產物의 채취와 발농사를 겸하는 경제활동을 낳게 하였고, 여기에서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남자의 그것보다 훨씬 왕성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근래에 와서는 경운기, 동력분무기, 트랙터 등의 각종 농기계의 대량 보급과 함께 농장에서의 남성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또 바다에서도 漁船의 근대화에 따라 大型 漁船이 다량으로 보급되어 漁船漁業이 활발하게 되었고, 잠수업을 제외한 툯 등의 海產物의 채취에 있어서는 남녀 공히 참여하게 됨에 따라 남성의 역할이 여성을 능가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漁船漁業이 왕성한 곳에서는 漁夫會가 결성되어 잠수회와 협력으로 海女 및 漁夫들의 복지, 각종 채취물의 판로, 그리고 가격의 절충 등 그들의 수익과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農漁村에 있어서는 남성들의 왕성한 경제적 활동과 함께 가정내의 일도 남성의 주도하에 이끌어 나간다. 그러나 龍水里나 北村里 같은 마을은 海岸線이 발달하여 海산물의 최적 棲息地를 형성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海女活動이 왕성하다. 특히 龍水里는 옛부터 잠수업이 성행하였고, 4·3사건 기타

8) 자리잡이는 보통 7명, 갈치잡이는 10명 내외.

고기잡이 등으로 과부가 많은데, 이들은 억척스러운 자립심을 발휘하여 가정은 물론 마을의 공동일에도 남자보다 더 적극적이다. 그리하여 마을 내의 폐습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예컨대 도박행위를 고발하기로 결의한 것은 海女會가 주동이 되었고, 이에 따라 남자들도 어느 정도 외견상이나마 순응하고 있다.

濟州의 農漁村共同體의 자연적·경제적 특성을 江原道 原城郡 G面의 자연부락인 農村의 그것과, 또 濟州道 馬羅島의 漁村과 비교하여 보면 여러 가지 대조를 이룬다. 우선 江原道の 農村인 경우, 農業이 중심이 되고, 生計의 바탕을 土地에 두고 있는데 反해, 馬羅島는 잠수업에 두고 있음은 위에서 살펴 본 바가 있다. 그런데, 濟州의 農漁村의 경우에는 半農半漁의 다각적인 生業에 종사하고 있으며, 農繁期에는 田作을 위주로 한 농사를, 농한기에는 海産物과 漁船을 통한 고기잡이를 중심으로 한 漁業에 의존하고 있다. 勞動形態를 보면, 江原道の 農村과 馬羅島가 주로 自家勞動力에 의존하고 있는데, 濟州의 農漁村에서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船主, 대농장의 지주에 의해 고용노동력도 사용되고 있다.

### Ⅲ. 漁村共同體의 社會構造

漁村共同體는 어떤 社會構造 속에서 그 구성원의 生活要求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이 속에서 개인 상호간은 어떤 관계하에서 행위(役割)하는 것일까. 무엇이 이 사회를 결속시키며 秩序化하는가. 이러한 것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規則性を 보이고 있는 몇 가지 役割群을 類型化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그래서 社會構造의 構成要素를 個人間的 關係構造, 集團構造, 그리고 이들과 밀접한 關係가 있는 價値體系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純漁인 馬羅島를 中心으로 하되, 다른 類型의 마을은 이와 다른 點만 비교하기로 하겠다.

#### 1. 個人間的 關係構造

馬羅島 住民들은 모두 12개의 姓氏로 構成되고 있으나, 이들은 서로 血族과 姻戚으로 얽힌 親族關係 내지는 親屬關係에 있다.

원래 婚姻한 夫婦의 出生子는 당연히 父系 親族集團의 一員으로 귀속된다. 또 婚姻하는 女性은 남편의 父系親族員으로 편입되어 친정가족과는 다른 이른바 「출가외인」으로 觀念하게 된다. 그런데, 이 馬羅島 마을 주민들의 경우는 다르다. 개척 초기에 이주한 주민들은 섬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누이 바꿈」으로 이주민 가족끼리 서로 通婚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상호간에 婚戚關係를 맺게 되어 복잡하게 얽혀졌다. 따라서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父系親族 集團으로서의 기능이나 결속은 弱化되고 地緣 中心의 心族組織으로 변모되어 갔다. 이러한 親屬關係를 통해 마을 주민들은 상호 부조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통합될 수가 있었다. 住民들은 모두가 서로 삼촌, 조카 사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姻戚이든 血族이든 잘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이한 父系親族集團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 것은 여성들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여성들의 관계여하에 따라 親族集團의 親密度가 결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혼인을 통한 婚戚關係의 확대로 父系親의 排他性은 약화되고, 地緣 中心의 결속력을 強化하는 共同體가 형성됨으로써 住民들은 상호간에 互惠的 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馬羅島는 이상과 같이 混姓 部落으로서 여러 성씨를 가진 가족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血族 및 姻戚關係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島內 주민 사이의 혼인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는다. 島外婚이 지배적인 婚姻 樣相이 되고 있고, 通婚 地域은 주로 생활권의 영역에 속해 있는 가파도와 대정읍에 한정되어 있었다. 혼인도 중매로 맺어지기보다는 주로 연애로 맺어진다.

婚姻의 居住 樣式은 夫方에 기초를 둔 新居制다. 따라서 여자들은 결혼과 동시에 친정을 떠나 남편의 가족에 편입된다. 혼인식과 함께 이 섬의 처녀들은 住民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동시에 島嶼內의 모든 資源을 이용할 수 있는 權限도 박탈된다. 이 利用權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란 남편이 사망하여 島嶼內에 再居住하게 될 때에 限한다.

혼인하는 아들은 長男이건 아니건 모두 分家해야 한다. 혼인하면, 신혼부부는 새로운 거처지를 정하여, 獨立된 가정을 꾸미고, 독자적으로 生計를 유지해야 한다. 分家하는 경우에도 재산의 분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理由는 우선 土地가 마을 주민 전체의 共有로 되어 있어서 利用權만이 서로 認定되고 있고, 또 土地가 생산성이 낮아 相續財產으로서의 의의를 잃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住民들의 지배적인 가족형태는 核家族으로서 家口當 평균 인원은 2.5명에 불과하다. 分家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점에서 각 가정이 核家族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核家族은 夫부중심의 성별 분업에 의한 사회적인 최소의 노동단위로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수단이 될 수가 있다. 특히 이 섬과 같이 海産物 採取를 주된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協業은 要求되지 않는다. 擴大家族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잉여노동력이 생길 수 있다. 이 점에서 核家族은 生計手段의 중요한 戰略이라고 할 수 있다.

生計手段을 해저의 水産資源에 의존하고 있고, 그 採取는 여성의 잠수기술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잠수기술을 갖지 못한 여자를 아내로 맞는 남성은 이 섬에서 살 수가 없다. 이와 같이 가족의 生計를 여성이 떠맡아야 하므로, 가정 내에서의 意思決定의 주도권도 여자가 갖게 된다. 따라서 혼인형태도 엄격한 一夫一妻制가 될 수밖에 없다. 남자가 외지의 다른 여자와 가가와질 경우 이곳의 여자들은 이혼을 자청하여 혼자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섬에서 처첩을 거느리고 있는 남자란 찾아볼 수 없다. 子女의 選好意識을 보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아들을 중시하는 풍조는 상당히 쇠퇴되어 있다. 아들은 생활에 부담이 되는 食率이 되지만 딸은 生活을 이끌어 나간다. 그래서 딸이 중시되고, 또 딸 많은 집안이 부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個人間的 關係構造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가족형태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馬羅島의 가족형태는 江原道の 농촌마을은 물론 다른 지역과도 상당히 다르다. 江原道の 農村의 경우 중매결혼이 압도적인 것에 비하여<sup>9)</sup> 馬羅島의 경우에는 연애결혼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이 섬이 都市의 경우와 같이 타인의 행동에 무관심 내지는 방과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섬의 社會構造는 전형적인 共同體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이 마을 주민은 모두 「우리」 group을 형성하여 어느 개인이건 마을 사람들의 道德的 支持를 받지 못하는 개별행동을 하기는 힘들다.

馬羅島가 夫부 중심의 核家族이라는 點, 또 가사에 관한 意思決定을 여자가 주도하여 가며, 一夫一妻制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는 점도 특기해야 할 것 같다.

9) 崔大權, 前掲書, p.169.

主漁從農인 牛島의 경우는 12개 마을로 구성된 큰 섬이므로 통혼지역도 島內에서 흔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島外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고, 이에 따라 100명당 30명 정도는 島外婚이 되고 있다고 한다.

牛島는 馬羅島처럼 여성들의 관계여하에 따라 親族集團의 親密度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교의 원칙에 따른 父系 中心의 親族制度가 의연히 유지되고 있다. 개인은 父系 集團의 구성원으로서 뚜렷한 主體性을 가지며 제사를 통하여 이 연대감을 강화시킨다. 土地는 父係 相續制에 의거하며, 제사의 相續은 대체로 土地의 相續과 일치한다.

家族制度는 核家族에 가까운 형태를 이루고 있다. 아들이 결혼과 동시에 分家해야 하는 것은 제주도의 어느 곳에서나 같다. 노부모의 경우, 거의 거동을 못하게 될 때까지 독립하여 산다. 남편이 먼저 죽을 경우 여자는 대개 혼자 산다.

牛島의 女性 역시 가족의 生計를 떠맡고 있고, 특히 자녀의 교육비를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남편의 不在는 경제적으로는 가정에 큰 변화를 가져 오지 않는다.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馬羅島의 경우처럼 一夫一妻制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남자는 親族社會의 중추로서, 또 제사를 지내는 세관으로서 사회적으로는 역시 그 우위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생활면에 있어서는 여성이 家計를 이끌어 간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의 주도권도 여자편이 강하다. 요컨대, 牛島의 경우에는 유교적 전통으로서 남자의 위신과 여자의 實勢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겠다.

半農半漁인 濟州道의 海岸 部落은 규모가 커서 300戶에서 500戶 정도로 되고 있어, 單一姓氏나 한두개의 성씨로 구성된 마을은 거의 없다. 대정읍 하모리의 경우 34個姓, 성산읍 신양리는 28個의 姓氏로 구성되고 있다. 통혼지역은 주로 생활권의 영역에 속해 있는 同一 邑面이었으나 이제는 차차 넓어져 道內 전체가 생활권이 됨에 따라 통혼지역도 道 전체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農漁村에서는 가업을 이어갈 수 있는 머느리를 구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부모들은 農漁村의 실정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경향이 뿌리깊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젊은 층은 가급적 도시로 진출하여 여기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것을 이상으



로 하고 있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고 있다.

혼인하는 아들은 장남이건 아니건 모두 분가한다. 分家方式은 일률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장자가 혼인하면 이웃에 집을 지어주어 내보낸다. 次子도 같은 방법으로 별거시키고, 결국 末子만이 本家에 남게 되는 셈인데, 이때에는 末子가 本家를 상속할 수도 있고, 부모가 마련해 준 집으로 별거하기도 한다. 다만 부모의 연령이 고령이거나 홀로 있을 때에 한하여 장남과 함께 거처한다. 따라서 濟州道의 지배적인 家族形態는 核家族으로서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자녀의 選互意識은 牛島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아들을 중시하고 있다.

相續은 대개 아들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장남에게는 位로부터 長男에게 내려오던 받을 「별급」이라 하여 우선적으로 상속된다. 相續의 균등한 분배에 맞추어 조상의 제사나 별초도 균등하게 의무지워진다.

## 2. 集團構造

馬羅島는 土地를 비롯한 주요자원을 共有하고, 그 利用權을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內部集團의 統合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外部集團에 대하여는 강한 排他性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 社會構造는 전형적인 共同體의 특성을 띠고 있다. 親屬(kindred) 關係로 맺어진 특수한 親族組織, 禁忌事項, 그리고 儀禮活動 등은 모두 집단 구성원의 同質性, 所屬感, 紐帶感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 마을은 우선 紛爭解決의 單位를 형성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紛爭은 마을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하나, 수많은 갈등, 알력, 분쟁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확대되어 외부기관, 예컨대 경찰지서나 법원 등이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紛爭으로 발전하는 일은 없다.

이 마을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분쟁사건은 음주폭행이다. 폭행 자체는 물론 親告罪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이것을 운수소관으로 돌리고<sup>10)</sup>, 마을 안에서 和解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찰지서에 형사

10) 暴行을 당하면 '맞는 놈만 손해'라고 생각하여 告訴하려고 하치 않는다.

입견되는 일은 없다. 和解에는 친척, 그중에서는 연로한 자가 나서서 중재한다. 이러한 중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따돌림을 당해 결국 이 마을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紛爭은 入漁權에 관한 문제이다. 入漁權의 침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오는 잠수기선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자원이용을 둘러싼 마을 집단내의 문제이다.

共同體內的 資源에 대한 외부의 개입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우선 자원보호를 위해서 '잠수기선이 침범할 때는 海女를 비롯한 마을 전주민이 사력을 다하여 싸운다. 특히 海底資源의 보호는 이 마을의 사황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잠수기선의 침범은 외적의 침입과 동일시된다.

이 섬의 거주민은 누구나 다 入漁權을 갖지만, 다른 지방으로 이주한 자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入漁權이 없다. 새로 轉入해 들어오는 사람은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入漁料도 現物로 지불하게 되었으므로, 이 마을로 이주해 오기가 사실상 어렵다.

入漁權이 없게 된 者가 慣習을 무시하고 入漁權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다. 어떤 海女가 다른 지방으로 혼인하여 이주한 후에, 다시 本島에 와서 海產物을 채취하려고 하였다. 이 때에 이 마을의 모든 海女가 入漁場에 나와서 그 해녀에게 集團抗議와 함께 설득하여 결국 그 海女는 入漁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한가지 경우는 계속하여 入漁權을 行使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外地인과 결혼한 海女가 있다. 入漁慣行의 엄격함을 잘 아는 이 海女는 入漁權이 박탈될 바에는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海女會에 호소하였다. 海女會로서는 딜레마에 빠져 장시간 協議를 하게 되었다. 결국 그 海女の 행복과 결혼상대의 생활능력 등을 감안하여 일정동안 기간만 예외를 허용한 적이 있다.

農村 共同體의 경우, 在來의 農村灌溉施設인 沘와 관련하여 紛爭이 일어나지만<sup>11)</sup> 아마 이 섬과 같이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때의 紛爭은 윗沘 受惠者와 아랫沘 受惠者와의 이해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섬의 入漁關係는 개인 대 마을 전체의 문제로서 제기되며, 이 入漁慣行의

11) 崔大權, 前掲書, pp.159~160.

rule이 깨지면 결국 이 漁村 共同體는 존속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섬에서 실질적으로 이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海女會이다. 자원은 한계가 있고, 이 한정된 資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本島의 사회적 형태는 어느덧 여성 중심적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남성들은 일터를 상실하여 生計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들은 採取作業에서 고조되는 競爭力에 의해 억척스러운 정도로 강한 作業意慾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음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가정에서의 중심적 役割은 마을의 공적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洞會가 있기는 하지만, 서로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여 意思決定이 쉽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 특히 이 섬이 한국의 최남단에 위치한 변방지역이므로 정부에서의 크고 작은 원조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住民 스스로가 섬을 개발하려는 의지는 약화되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호소하여 일을 처리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성들의 모임인 海女會는 모든 회원의 意思決定이 용이하여, 마을의 일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행동조직이 되고 있다. 남성이 중심이 되어 거행되는 畵祭祀도 부락민 전체가 참여하는 일종의 共同儀禮로 변모되었고, 마을의 共同儀禮로서 가장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포祭도 근래에 와서 중단되었다. 그런데, 여성이 중심이 되어 거행되는 「할망당祭」는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압력을 받아, 철폐될 위기에 놓이면서도 오늘날까지 철저히 지켜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農村 共同體에 있어서는 각 부락에 이른바 「유지」급이란 階層이 있어서 마을의 공적인 일에 강한 「發言權」을 가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유지급의 지위는 학식이나 公的地位, 예컨대 里長이나 區長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유지의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유지」로 지목되는 住民이 마을 사람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여, 마을 일에 경제적인 기여를 할 때에는 이에 상응하여 「마을 政治」에 있어서 그의 發言權이 커지고 또 유지로 인정받는다. 유지의 영향력은 마을 일에 기여도가 클수록 상승하게 마련이다.<sup>12)</sup>

이상과 같은 觀點을 馬羅島에 비추어 본다면 유지급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12) 崔大權, 前掲書, p.166.

海女會이다. 海女會는 마을의 공적인 일에 경제적인 기여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마을의 弊習을 禁止하는 기능도 한다. 파도가 일렁이는 대양의 孤島에서 한가한 남자들이 중요한 道樂은 음주행위이다. 술이 술을 부른다는 말이 있듯이 남자들은 과음에 빠져 서로 다투기가 일쑤였다. 이러한 과음현상을 막기 위해 75년부터 도서 내의 주류 판매를 일체 금지하기로 결의하였다. 이것을 주동한 것도 海女會이다. 이러한 海女會의 결정에 남성들은 잘 순종하고 있으며, 도서 내에서의 주류 판매금지 規則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牛島의 경우에는 섬 全體가 紛爭解決의 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2個 洞으로 구성되고 있는 이 섬은 각 洞內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그 洞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洞과 洞間의 紛爭은 조금의 양보도 없이 사력을 다해 싸운다. 이 紛爭은 자기 동네의 地先水面에 대하여 入漁를 독점하려고 하는 데서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섬주민들은 섬둘레의 共同漁場을 각 동네의 구역으로 나누지 않고 섬주민 모두가 共同으로 入漁하여 왔다. 그러나 툇, 우뭇가사리 등 해조류의 상품 가치성이 점점 높아져 감에 따라, 이 섬의 迎日洞의 海女들이 종래의 慣行에 따른 共同入漁를 거부하고, 다른 동네가 자기 동네의 地先水面에서의 入漁를 못하게 한데서 분규가 비롯했던 것이다.<sup>13)</sup>

東天津洞등 5개 동네 海女들은 水產業法에 명시된 共同漁場이므로 入漁할 권리가 있다고 맞선 이 漁場紛爭은 결국 법원의 결정을 보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 없었다.<sup>14)</sup>

이 紛爭은 「國家法이 없었다면 몇사람이 죽었을지 모를」<sup>15)</sup> 정도로 심각했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동네와 동네 사이의 싸움이므로, 여기에는 血緣關係가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島內婚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이 섬 안에서의 동네 사이의 싸움은 출가한 형제끼리도 적이 될 수 있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적대관계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각기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 海女들은 친형제라고 할지라도 서로 자기 동네를 위해 혈연관계를 가리지 않고 싸웠던 것이다.

13) 金斗熙·金榮敦, “海女漁場紛糾 調查研究”, 「論文集」 14集, 濟州大學校, 1982, P. 26.

14) 濟南新聞: 1974. 1. 24.

15) 어느 牛島 住民의 表現.

共同入漁를 둘러싼 동네사이의 紛爭은 아직도 분쟁의 소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 폭력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각하게 內燃되고 있다. 심지어는 같은 동네에서도 班과 班사이에서 入漁問題를 놓고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는 예를 볼 수 있다. 漁場의 확보는 生計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여기에는 人情으로는 해결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牛島의 경우, 같은 동네에서 주민들간의 入漁慣行은 마라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마라도처럼 轉入者에 대한 과중한 初入漁料를 징수하는 관행은 없고, 住民의 자격을 갖게 되면 누구나 海產物을 채취할 수가 있다.

馬羅島는 海女會가 중심이 되어 동네일을 주도하고 있고, 洞會의 기능은 형식적이 되고 있지만, 牛島는 이와는 다르다. 入漁에 관한 문제만을 한정시켜 놓고 보더라도 중요한 일이 洞會를 통해서 결정된다. 이 때의 洞長의 役割은 동네의 발전과 자원관계를 총괄하는 입장에 있고, 잠수회(海女會)는 동회의 決定事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일을 맡게 한다. 洞會에서는 물론 海女會도 참석하여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며, 入漁에 관한 일은 海女會의 의견이 거의 반영된다. 청년회도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漁場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漁場의 일부를 청년회에 빼어주어 그것으로 감시에 대한 보수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漁場管理에 관해서는 동네의 각 모임들이 서로 협동하면서 자기 기능을 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牛島 내의 몇몇 동네는 漁場問題를 놓고 경쟁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이 섬의 융화나 단합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牛島는 12個洞에 합해 行政上 演坪里라고 부르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공식적인 조직이 있다. 演坪里의 自治 契約을 보면, 代議員으로 구성되는 總會, 各洞에서 1명꼴로 선출되는 開發委員會, 開發委員 및 洞長 連席會의 추천에 의하여 總會에서 선출되는 里長 등이 있다. 代議員은 里 行政戶數 10戶에서 1명씩 선출되며 여기에 各洞長들은 자동적으로 代議員이 된다. 이외에도 演坪婦女會, 漁村契 등이 있다. 각 동네의 海女會長으로 구성된 이 婦女會의 기능은 馬羅島의 海女會보다는 그리 강한 것 같지는 않다. 한 때는 이 婦女會가 주동이 되어 牛島 내에서의 술판매 금지를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술판매상들의 저항으로 2개월이 못가서 포기되었다. 여기에는 남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었음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漁村契의 활동도 왕성하여 뜻이나 천초 등의 共同入漁의 시기를 정해주기도 하고, 해산물의 공동판매를 주도하고 있다. 요컨대 主漁從農인 牛島의 경우에는 馬羅道에 비해 規範의 強度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農漁村인 경우에는 漁村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조직과 農村이 지니고 있는 조직등을 아울러 갖고 있다. 여기서는 北村을 중심으로 하여 마을의 集團構造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組織的인 體系와 非組織的인 紐帶關係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組織的인 體系는 행정당국의 지시 내지는 권장에 의해 이루어진 公式的인 組織과 마을내의 친목이나 협동을 위하여 임의로 구성된 非公式的 組織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公式的 組織으로서 행정조직의 長인 里長, 漁村契 산하의 海夫會, 잠수회 등을 들 수 있다.

里長은 마을의 행정사무뿐만 아니라 鄉會를 소집하고 그 執行節次를 선출함에 있어서 중개역까지 하는 등 그 役割이 크다. 어부회 및 잠수회는 그들의 權益과 직접 관계되는 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村落의 수호신인 본향당에 당굿을 준비한다. 이외에도 몇 가지 組織에 있어서 이 마을의 유지들은 여기 저기의 일을 보느라고 몹시 바쁘다. 이러한 조직들은 村民의 결함에 큰 作用을 하고 있고 그것은 마을의 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非公式的 組織으로서 鄉會, 體育會, 산담契, 耆契, 단스契 등이 있다. 鄉會는 재래의 마을 自治機構로서 村祭의 執行管理, 도로수리, 村民의 制裁등 제반 村落管理를 하던 조직이었으나, 이제는 村祭인 포제를 집행하는 기구로서 밖에는 기능을 못하고 있다. 산담契를 비롯한 여러 가지 契도 村落의 경제순환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주민간의 사회적·정신적 결속을 다지는 데 중요한 役割을 하여 왔다.

비조직적인 유대관계는 위에서 본 형식적인 조직체계는 없으나, 사회적인 결함을 돈독히 하는 慣習 내지 慣行을 들 수 있다. 이것은 權利義務關係로 맺어지는 것과 그러한 관계가 없는 贈答의 慣習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전자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權利義務關係로 맺어지는 경우를 보면 用水의 수리, 도로의 수리, 방법, 방아의 관리 기타 이웃끼리의 扡役 등이 있다.<sup>16)</sup>

16) 자세한 것은 玄容駿, “제주도 해촌생활의 조사연구(1)”, 「제주대학 논문집」 제2집, 1970. p. 58~59.

用水는 그 물을 쓰는 사람들끼리 共同管理를 하고 있지만, 管理를 주도하는 조직은 없다. 그러나 공동우물을 수리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에는 누구든 먼저 그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고, 서로 합의를 한 후에 家戶마다 1인씩 나와서 작업을 한다. 이 부역은 의무화되고 있는데, 이 경우의 지도자는 대개 연장자가 맡는다. 도로의 수리도 마찬가지로 연장자의 지도밑에 자발적으로 의무적인 부역을 나온다. 이러한 이웃의 合同의 기회에 村落生活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이 의논되고 부역에 빠진 가구에 대한 제재방안도 강구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마라도처럼 海女の 잠수업에만 그 생계의 수단을 삼고 있는 경우에는 海女會의 역할도 그 만큼 크고, 발언권도 강하여 마을 일을 주도하는 실질적인 세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主漁從農인 牛島와 같은 곳에서는 다른 조직과의 긴밀한 협동을 통해서 海女會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독자적인 기능은 기대되지 않는다. 한편, 農漁村의 경우는 많은 조직 속의 일부분을 구성함에 지나지 않는다.

### 3. 價値體系

馬羅島가 지닌 限定된 海底資源을 올바로 利用하기 위해서는 入漁慣行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이 共同體 內의 자원에 대한 외부집단의 개입도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마을 사람들은 서로 결속한다. 그러면서도 자원을 채취할 때는 서로 경쟁한다. 강한 경쟁심에 자극되어 근로의욕이 높아진다. 그러나 海底 속에서의 作業은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작업시에 이따금 만나는 상어 등의 큰 물고기의 위협과 잠수시에 질식사의 우려 등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이나 긴장이 고조되고, 採取社會에서 여성들간에 은연중 생기는 競爭心으로 야기되는 갈등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女性들 사이의 갈등이나 심리적 불안 내지는 긴장을 풀어주는 종교 형태가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서 할망당(할머니堂)은 이러한 여성들의 심리적 욕구에서 형성되었고, 또 지속적으로 신봉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남성들이 주관하는 종교적 의식인 祖上儀禮나 部落祭가 이곳의 새로운 환경에서 거행되는 동안, 本來의 儀禮形式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되거나 소멸되었다. 그러나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거행되는 할망당祭는 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철저하게 지켜

지고 있고, 더우기 주민들의 신앙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日帝末期에는 1960년대부터 정부의 迷信打破施策에 따라 행정당국에 의해 여러번 堂이 폐쇄되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민들은 파괴된 堂을 복구하여 할망神에 대한 儀禮를 지켜왔다. 그래서 처녀로서 개척민을 위해 희생당한 할망神을 정성스럽게 받드는 것을 그들의 의무로 생각한다.<sup>17)</sup> 여신이 모두를 위하여 희생한 것처럼, 이 섬의 여성들도 가족을 위한 희생을 당연시한다. 할망堂神에 얽힌 신화의 내용도 여성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계기가 된다.

여성들은 가정에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였거나 불길한 事를 자주 꾸게 되어 심리적 불안이 고조되었을 때에 堂을 찾는다. 불길한 사건이 생기는 것은 여신의 기대에 어긋난 행동의 소치로 생각한다. 그래서 神의 노여움을 풀고 도움을 청구하기 위하여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면서 神의 환심을 되찾고자 한다. 그러므로 할망堂祭에서 행해지는 간단한 儀禮는 여성 개개인이 처한 심리적 葛藤이나 不安을 해소시켜, 生計의 責任을 履行함에 따른 난관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한다. 또 이 儀禮는 여성과 더불어 전 주민들에게 共同의 信念을 갖게 하므로, 주민간의 同質感을 형성하고 互惠的 關係를 강조하는 社會的 裝置가 되고 있다.

馬羅島의 祖上 儀禮라고 하여 다른 곳의 그곳과 다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섬에 이주하여 생활하는 동안, 의례의 성격은 상당히 변모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기능적인 면에서의 변화이다. 일반적으로 祖上儀禮는 父系 親族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동 조상을 중심으로 결속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儀禮에 참석하는 범위도 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섬의 경우는 다르다. 즉 儀禮時에는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것은 儀禮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것이다. 父系 親族의 유대강화의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 部落民 전체의 결속을 도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앞서서도 본 바와 같이 이곳의 특수한 親族 構造에도 그 원인이 있다.

祖上儀禮는 葬禮式, 朔望, 大小祥, 그리고 忌祭祀가 있다. 이러한 儀禮는

17) 開拓 初期에 移住民들의 원만한 뱃길을 트기 위하여 이 섬에 홀로 남겨져 餓死할 수밖에 없었던 어느 식모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할망堂 神話의 유래이다.



1965년에 郷約을 明文化할 때에 當時의 정부 시책을 따르고 있으므로 매우 간소한 형태로 되고 있다.

우선 葬禮式을 보면, 모든 주민이 일체의 작업을 중단하고 고인을 추모하며 매장하는 일에 참여한다. 이 때에는 海女들의 잠수작업은 물론, 마을의 공동작업인 툃이나 미역 채취까지도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중지된다.

朔望이나 大小祥은 郷約의 규정에 따라 주민들의 참석은 금지되고, 直系子孫인 喪主만이 고인을 위해 조석으로 식사를 올리는 절차로 끝난다.

祖上儀禮에서 주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忌祭祀이다. 5代孫 止祭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이곳의 忌祭祀는 전 주민이 참여하여 杯를 올린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그리고 罷祭前까지 모든 주민이 드나들며 제물로 마련된 음식을 대접받는다. 또 이 날에는 마을에서 판매가 금지된 소주도 나온다. 그러나 이 때에도 두되 이상의 술이 나오지 못하도록 海女會의 제지를 받는다. 忌祭祀는 자주 있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마을 내에 빈번한 忌祭祀에는 주민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飲福을 하는 일은 주민들을 친족 단위로 갈라 놓지 않고 하나의 共同體의 구성원으로 결속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교적 전통으로서 남성의 권위와 여자의 實勢가 공존하고 있는 牛島의 경우, 여성들은 死後의 祭祀를 받기 위해서는 남성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적어도 아들 하나는 갖기를 원한다. 따라서 祖上儀禮를 중시하는 것은 馬羅島의 경우와 같다. 面單位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섬에서는 신앙도 다양화되어 있어 馬羅島 경우처럼 俗信的인 儀式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용왕마지 굿」이 각 마을별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바다는 畏敬의 대상임이 틀림없다. 바다는 海女들에게 삶과 죽음, 빈곤과 풍요를 선택하여 줄 수 있는 위력을 지닌 곳이다. 바다가 진노할 때는 모든 것을 삼키고 앓아가 버리지만, 그 노기가 가라앉으면 자기가 지닌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관용의 장이다. 그러므로 바다와 관련이 있는 神을 숭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바다를 앞두고 바다로 나가는 길은 「철성관을 뚫어진 죽음의 길」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漁村은 직업의 분화나 階級分解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고, 여기에 신앙의 同質性이 겹쳐져, 이질적 요소를 배제하는 「慣習의 社會」가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韓國의 漁村을 「慣習社會=傳統的 停滯社會」로 도식화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sup>18)</sup> 그러나 牛島나 濟州道 漁村을 전적으로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곳의 海女들은 일찌기 韓半島 각연안을 비롯하여 일본·노서아·중국 등지로 出稼해 온 전통이 있다.<sup>19)</sup> 그리하여 결혼하기 전에 밭을 산다든지 하여 生計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적극적인 생활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 海女들이 그 고된 작업을 堪耐하며 마다하지 않는 것은 자식들의 교육에 가장 삶의 보람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잠수업을 통한 수입이 없다면 자식들의 고등교육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半農半漁인 대부분의 農漁村의 경우에도 할망당을 비롯한 각종의 俗信을 믿고 있다. 이것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漁船을 타는 船主는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을 기하여 메를 올려 朔望과 비슷한 행사를 한다. 이러한 현상은 버스나 택시 등 運輸業을 하는 사람들이 초하루와 보름에 祭를 지내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결국 航行중에 무사고를 비는 기원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海女 또는 船主(또는 船員) 개개인의 심리적 갈등이나 불안을 해소시켜 生計의 책임을 이행함에 따른 난관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하고 있다.

이러한 個人的의 求福的 행사이외에 部落祭인 포제가 해마다 개최된다. 이것도 정부의 강력한 미신배척운동에 의해 다소 주춤하였지만 아직도 이 部落祭의 맥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어지고 있다.

農漁村에 있어서도 잔치나 葬禮式은 마을 전체의 행사이다. 장만하는 음식의 양이나 모이는 사람의 범주를 볼 때 마을 전체가 대상이 된다. 葬禮式을 보면, 매장하기 전날을 日晡祭라 하여 마을의 모든 주민은 고인의 빈소를 찾아 배례하고 상주들에게 조의를 표한다. 남자들은 배례시에 봉투에 약간의 조의금을 담아 자기의 성의를 표하는 것으로 족하지만, 여자들의 경우에는 상주들마다 그들의 친분관계 또는 전에 자기가 받았던 만큼의 조의금을 전달한다. 이 조의금은 여자들의 경우 대부분 쌀 한 말정도의 現物이나 이에 상당한 금전으로 賻儀한다. 상주의 수가 많은 집에 조의금을 전달하려면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

18) 朴光淳, 「韓國漁業經濟史研究: 漁業共同體論」, 裕豐出版社, 1983, p. 67.

19) 金榮敦, “濟州島 海女の 出稼”, 「石宙善教授回甲紀念民俗學論叢」, 1971, p. 309.

는 금액이 5만원선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扶助의 습성은 「받은 만큼 되 돌려야 한다」는 원칙이 묵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객지에 나가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사후에라도 찾아가 조의금을 전달하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런데, 장례식 당일에는 班別 내지는 洞別로 구분하여 班長이나 洞長의 책임하에 마을 젊은이 모두가 매장하는 일에 참여한다. 다른 班에 속한 사람은 친족이나 親睦會員 등 상주나 고인과 긴밀한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이것은 불필요한 노동력의 낭비를 막음과 동시에 마을 전체의 규모에 비례한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다. 같은 班에 속해 있으면서 별다른 이유없이 매장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상주가 되었을 때 전혀 협조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이 참여의무는 制定法보다도 더 구속력이 있다.

大小祥은 三年祥에서 一年祥으로 변모하고 있고 朔望도 예전과는 달리 초하루인 朔祭만을 지내는 경향이 뚜렷하다. 노인층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不孝의 愆도 느끼는 것 같지만 자연적인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畝祭祀는 친족끼리 모여 지낸 후 음복하는데, 이 때 동네의 가까운 이웃이 술 한병이라도 들고 오면 같이 참가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웃에 대해서는 음식물을 대접하고 자정이 되기 전에 모두 돌려보내는 경우(대정음 하모리)와, 畝祭祀를 지낸 후 이웃도 친족과 함께 飲福에 참석하는 경우(성산읍 신양리)등 서로 다르다. 이것은 지역적인 풍습이 다르다는 면보다는 도시화에 따른 주민의 친소관계로서 이해할 수가 있겠다.

#### IV. 漁村共同體의 法規範

모든 社會體制는 「憲法」 내지는 基本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成文形式으로 되기도 하며 不文形式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것은 참여자들이 함께 행하기 위한 기본적 規則을 제공한다. 이러한 「法的」 뒷받침이 없으면, 構成員間의 相互作用이 秩序化되지 못하여 그 體制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sup>20)</sup>

20) Gerald R. Leslie外: *Order and Change*(Introductory Soc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p. 655.

馬羅島 住民들은 이 섬에서 생활하고 生計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規範을 유지·발전시키고 있다. 이것을 이 섬이 지니고 있는 鄉約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이 鄉約은 행정관청의 관여없이 이루어졌고, 또 지켜져 왔다. 이 鄉約의 주요내용은 앞에서 이따금 살펴보았으나, 여기서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制定法과의 비교, 기타 이것이 이 사회의 統合을 위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섬은 1883년에 開拓되었다. 그후 100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農耕 및 漁業을 병행하다가, 生態界의 변화로 어느덧 海產物 採取를 主要生計의 수단으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海產物 採取에 있어서는 舊來의 慣習에 의해 그 秩序가 유지되어 오다가 1965年 2월에 이 慣習을 토대로 「鄉約」이라는 規約를 만들었다.<sup>21)</sup> 이 鄉約은 총 64個條 附則 五個條로 구성되고 있다.

第一章 總綱에서는 鄉約의 目的, 任員의 任務와 任免, 任員의 報酬關係를 규정하고 있다. 鄉約의 目的을 「地方의 建設과 그 組織 및 秩序를 維持하고 島民의 福利 增進에 寄與」함에 두고 있고, 任員으로서 班長 1인<sup>22)</sup>, 總務 1인, 內務 1인, 그리고 外務 1인을 두고 있다. 班長은 鄉會의 다수결에 의해 선출되며, 鄉員을 통솔하고 모든 행정적 사무를 담당한다. 役員 즉 總務, 內務, 外務는 班長의 諮問機關임과 동시에 補佐機關이다. 이들도 역시 鄉員의 다수결로써 선출되며, 班長을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다. 任期는 班長과 같이 모두 1년이다. 役員들은 班長과 똑같은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있으며, 班長을 보좌하고, 자문하며, 추천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견제하는 기능까지도 갖고 있다. 이들은 각기 정부기관의 財務部, 內務部, 外務部에 비견할 수 있는 공식기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마을 일을 자치적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機構이다. 보수는 물론 鄉員의 入漁料에서 충당된다.

鄉約 第二章에서는 海產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海產物은 주민들의 절대적인 生業의 대상물이 된다는 점에서 本章은 馬羅島 鄉約의 要諦라고 할 수 있다. 특히 第二章의 규정을 올바르게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罰則을 두고 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 섬에 살 수가 없고, 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21) 高翔龍, “韓國의 入漁權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67. p.104.

22) 오늘날에 와서는 里長으로 그 명칭이 바뀌어졌다.

지켜야 하는 강한 效力을 가지고 있다. 이 規約은 65년도에 와서 갑자기 設定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慣習으로 내려온 것을 明文化시킨데 불과하다.

海産物 중 미역, 툇, 김에 대하여 各各 따로 禁·解禁 기간을 두고 있다. 다만 미역은 최근에 와서 가격의 하락으로 그 상품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放任되고 있다. 이 기간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監視規定을 두고 있다. 즉 班長의 지시에 의하여 役員이 監視를 하게 되는데, 監視成績이 不良할 경우에는 鄉會의 決議에 따라 그 보수를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다.

許採期間이라고 하여 아무나 海産物을 채취할 수는 없다. 이 섬의 거주민은 누구나 入漁權을 가지고 있지만, 그 資格은 여러 가지로 制限되어 要件이 엄격하다. 우선 툇과 같은 海産物을 채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섬에 一年 이상 거주하면서 賦役動員 및 公共施設에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하고 난 후에, 現物로 入漁料를 내야 한다. 다만 이 섬에 거주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주민이었다고 하더라도 타지방으로 轉出된 경우에는 入漁權이 박탈되는 것은 앞에서 기술하였다. 더 나아가서 海産物을 採取한 후에 出他하여 이 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入漁權이 없다.<sup>23)</sup> 入漁權을 代理하여 行使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入漁權者는 役員會議에서 결정하여 年末의 鄉會에서 발표하게 되어 있다.

本島에 居住하여 入漁權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약자로서 採取를 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一定의 海岸을 割愛하고 있고, 또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賦役도 免除하고 있는 규정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것은 교사 등 本島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당연히 入漁權을 주는 規定과 함께 社會福祉的인 측면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

入漁權者가 禁採期를 어기고 密採取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現物은 물론 채취 도구까지 빼앗기게 되며, 상당한 액수의 罰金을, 그것도 10日 이내에 「賠償」하여야 한다. 2回 이상의 密採取者는 2배의 罰金을 賠償한다. 密採取者가 노인이거나 어린이였을 경우에는 그 世帶主를 「犯罪者」<sup>24)</sup>로 看做하여 賠償하도록 하고

23) 居民일지라도 許採期間만을 이용하여 來島하는 경우를 豫想하고 있는 것 같다.

24) 違反者가 아니라 '犯罪者'로 表現하고 있는 것은 이 密採取者를 窃盜犯과 同一視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있다. 다만, 入漁資格이 없는 자가 入漁했을 경우에는 現物 및 도구만 몰수한다. 여기서 採取道具를 압수당한다는 것은 생활의 무기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므로 결코 가벼운 處罰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그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入漁慣行은 툫과 같은 海草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복이나 소라와 같은 패류의 채취에도 적용된다. 이 패류의 採取야말로 海女들의 主所得源이 된다.<sup>25)</sup> 이 패류의 채취는 사시사철에 걸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禁採期間이 따로 없다. 그러나 入漁權者만이 채취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共同漁場에서의 入漁形態는 共同入漁와 自由入漁로 구별할 수 있는데, 툫이나 우룻가사리의 채취 경우는 共同入漁하여 채취한다. 툫은 공동으로 판매하여 그 收益金이 均等分配가 된다. 이것을 제외한 貝類 또는 海藻類는 자유롭게 入漁하여 자유경쟁으로 채취하며, 그 收益은 개인 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慣行은 本島에 한한 것은 아니다. 濟州道 연안의 전역에 걸쳐 마을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慣行들이 옛부터 행해져 왔다.<sup>26)</sup> 다만 本島가 다른 곳에 비하여 이러한 慣行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馬羅島는 거의 완전하게 「社會的 單位(social unit)」로서 결속되어 있는 곳이다.

馬羅島의 法規範을 農村 共同體인 강원도 마을 등과 비교하여 보면, 개인을 초월한 共同體 規範과 個人間의 去來가 構造的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점, 개별적인 행동에 대하여 마을 전체가 하나의 陪審團의 역할을 하고 있어 개인적 逸脫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sup>27)</sup> 강원도 마을과 같은 點을 찾아볼 수 있다. 또 마을 주민들은 서로 인척과 친족으로 밀접히 관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생존을 위해서나, 그 規範的인 支持를 위해서 대단히 相互依存的이라는 점에서 農村 共同體와 같다. 그런데 이 점은 農村 共同體보다도 훨씬 強度가 높다. 入漁慣行을 어긴 자를 犯罪人으로 취급하여 賠償시킨다는 점, 장례식 및 忌祭祀 때의 扶助가 의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農村 共同體의 規範보다 훨씬

25) 81年度 水協支所의 입찰가격을 기준으로하여 볼 때 해녀 1人的 所得은 月 30~40만원이 넘는다.

26) 金斗熙·金榮敦, 前掲論文, p. 32.

27) 崔大權, 前掲書, pp. 182~186.

法的이다.」.

農村 共同體는 유교적인 規範과 미분화된 상태라고 한다.<sup>28)</sup> 물론 馬羅島도 祖上儀禮 등에 온 마을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 잔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祖上崇拜보다는 마을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共同的 儀禮로 그 기능이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결속은 다른 마을에 대해서는 강한 排他性을 띠지만, 그것은 단순한 「뵈세」가 아니라 한정된 資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戰略에서 비롯한 점에서 農村 共同體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主漁從農인 牛島의 入漁慣行은 馬羅島와 대체로 같다. 그러나 規範의 強度나 遵守의 強制를 위한 장치는 馬羅島에 비해 약하다. 이것은 半農半漁인 農漁村으로 가면 더 약화된다. 密採取者에 대한 制裁가 없거나(北村의 경우), 制裁가 있더라도 한두번 정도는 용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렇다고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관용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마을사람인 경우에도 이러한 非行이 알려지면 소외 내지는 고립되게 마련이다. 결국 入漁慣行을 위반한 사람은 마을 전체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 「누구 아들, 누구 손자」가 그러한 짓을 했다는 지탄을 받으면 共同體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위반으로 罰金을 내는 것이 犯法行爲인 줄 알면기도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一定한 罰金을 내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賠償을 하기도 하지만, 罰金 그 자체보다 마을 사람들의 비난이 더욱 무서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入漁慣行이 成文化되어 있지 않고 또 罰金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잘 지켜지는 것이다.

馬羅島가 入漁慣行에 관한 다른 곳보다 강도 있는 規範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그것이 그들의 生計에 밀착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共同體는 그들 生活에 가장 필요한 規範을 형성하면서 生活의 變化에 따라 그것을 變質시키는 것이다. 漁村 共同體가 유지· 존속될 수 있는 근거도 이 入漁慣行의 母體인 漁場의 總有制度에 있다. 漁場이 土地와 같이 私有化되지 못하는 것은 耕地와는 다른 많은 특징, 즉 相互關聯性(一體性), 流動變易

28) 崔大權, 前掲書, p. 183.

性, 立體的 多岐利用性 등의 많은 특성을 동시에 具有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9)</sup> 그리하여 所有權의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排他的인 支配가 어려운 水界가 있는 것이다.

漁場은 끊임없이 유동하는 水界를 實體로 하고 있으므로, 海流·氣象과 같은 자연적인 변화에 좌우되며, 또 불가분의 水界를 實體로 하고 이 水界를 매개로 하여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一定한 위치와 면적을 가지고 漁場을 分割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한 漁場과 그 이웃 漁場은 서로 불가분의 一體로서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연 요소로서의 漁場을 구획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漁場을 獨占的으로 支配한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며, 여기에는 복잡한 法律問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 나라 연안어장의 殆半은 어업공동체의 總有라는 所有形態로 존재하여 왔으며, 現行의 水產業法도 이러한 慣行을 바탕으로 하여 「漁村契」에 의한 어업권의 행사라는 형태로 적법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연안어장의 어업공동체에 의한 總有라는 漁場秩序가 결국 어업공동체 존립의 일차적인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 V. 結 語

이상과 같이 漁村 共同體의 전형인 馬羅島를 중심으로 하면서, 다른 農漁村을 이와 對比하여 規範生活의 特色을 살펴보고, 그 法規範이 拘束力을 갖게 되는 근거를 살펴 보았다. 특히 濟州道 대부분의 漁村에서는 타도와는 달리 海女들이 그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役割이 크므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그 機能 내지 役割을 비교하였다.

慣行 내지 法規範은 그 사회의 社會構造의 反映이며, 또 그것은 그 사회가 처한 자연적·경제적 환경과 무관할 수 없다. 우선 生計의 基盤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여성 특히 海女の 役割의 비중도 달라지고 있다. 生計의 基盤을 주로 해산물 채취에 두고 있는 馬羅島의 경우에는 海女の 役割도 아주 크고,

29) 朴光淳, 前掲書, p. 40.



발언권도 강해지며, 入漁慣行의 強度도 훨씬 法的이라는 것을 感知할 수가 있다. 主漁從農의 형태인 牛島의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의 役割은 相補的으로 그 어느 쪽에 우위를 둘 수 없다. 마을의 公的인 일은 남성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면서도 入漁에 관한 일은 海女會의 의견이 대폭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入漁慣行의 強度도 馬羅島에 비하여 완화되고 있으며, 대외적인 排他性도 뚜렷하지는 않다.

한편, 半農半漁의 형태인 農漁村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役割이 약해지고 있다. 마을의 모든 일이 남성의 主導下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生産活動도 여성의 그것에 못지않다. 최근에 와서는 훨씬 남성의 役割이 두드러지고 있다. 入漁慣行의 強度도 馬羅島는 물론 牛島에 비해서도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農村에 특유한 여러 慣行들이 混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漁村을 비롯한 農漁村까지도 국가의 制定法과 충돌하지 않고, 또는 지배를 받지 않는 영역이 있음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고 制定法이 완전히 排除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馬羅島의 鄉約을 보면, 冠婚喪祭가 당시의 국가시책을 완전히 반영시켜 規範化하고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儀禮가 간소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國家施策을 맹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곳에서는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이 여기에서만큼은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生活環境이 그만큼 그들을 단순·소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시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 儀禮를 형편에 맞게 변용시켰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의 規範生活도 상당한 合理性이 內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은 결국 인간과 그 환경과의 함수관계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法規範의 이해도 環境을 적응 내지는 극복하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흔히 島嶼民의 生活을 「낙후성」과 「정체성」으로 보고, 그 원인을 전근대적인 共同體의 生活樣式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근대적인 慣行이 유지되고 있는 데에는 그만큼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그들은 모든 여건을 고려하면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行爲를 選擇하고 있는 것이지, 도서지역의 주민들이라고 하여 맹목적으로 전통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濟州道의 漁村(半農半漁의 형태를 포함하여)은 물론 우리나라의 대부분

의 漁村이 漁場의 總有制度에 의한 入漁慣行으로 漁場秩序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았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合理性도 있다. 그러나 이 總有制度에 따른 폐단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첫째로, 그것은 漁場의 管理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海產物의 收益性이 높아지면서 근로의욕도 강해져 바다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디게 하고 있으나, 그것은 결국 자원의 고갈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漁村契에서는 자원의 증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 實效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다. 總有制度가 공동체의 결속을 도모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자원의 효율적인 管理라는 측면에서는 약한 것이다. 둘째로 漁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海女數의 감소이다. 정확한 統計數値는 알 수 없으나 최근에 와서 20대의 海女가 거의 없다는 것은 이것을 傍證하고 있는 것이다. 海女 스스로가 잠수업을 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식들에게는 그것을 시키지 않고, 훌륭한 교육을 받아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앞으로 더욱 그 數는 감소될 추세이다. 더구나 고 무잠수복의 착용으로 물 속에서 作業時間이 길어지고, 그 결과 잠수병에 시달리는 海女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무시할 수 없다.

요컨대, 자원의 고갈과 海女數의 감소는 앞으로 漁場의 總有制度에 변화를 주게 될 것인데, 과연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변모할 것인지, 또 변모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三. 民俗學的 側面

#### I. 海女の 生活과 作業

海女라면 女人이 거치른 바다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世人들이 보는 눈이 유다르다. 곧 해녀들은 가냘픈 女人들인데도 第一種共同漁場이라는 거친 海原에 뛰어들어 우뚝가사리·툇 따위 海藻類와 전복·소라 등 貝類를 채취하는 특이한 職種을 지녔다. 더구나 그들은 險한 바다를 마치 집안이나 들판으로 여기면

서 특수한 장비를 갖추도 없이 裸潛漁法으로 무자맥질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海女는 흔히 '潛嫂', '潛女'라고도 일컬어지고, 일본에서는 'ama'(海女)라 한다. 海女의 原鄉으로 보이는 제주도에서는 요마적에 '잠수'(潛嫂)·'海女'라는 말이 섞여 쓰이며, 노파들 사이에서는 가끔 '잠네'(潛女)라 하기도 한다. 英譯하기는 至難한 바, women divers, diving women, female divers, sea women, Haenyu 등으로 표현하는데, 아예 Haenyu라 해서 註解하지 않는 이상 海女의 譯語로서는 무슨 다이빙선수를 指稱하는 것 같아 어딘가 마뜩지 않다.

海女の 삶과 그 漁撈作業을 간추리기란 그 課題가 폭넓고 육중해서 마치 무성한 수풀 속에 들어선 듯 어렵다. 여기에서는 現場調查를 근거로 다음 몇가지 관점에서 논의해 보려 한다.

- ① 海女는 어떻게 分布되었으며, 한국 농어촌에 있어서의 位相은 어떠한가.
- ② 海女の 入漁時期와 그 方法은 어떠한고, 그 作業技倆은 어떻게 익혀지는가.
- ③ 海女會(潛嫂會)의 機能은 어떠한가.
- ④ 濟州海女는 어떠한 特殊技倆을 지니고 있는가.
- ⑤ 海女들은 어떠한 海產物을 채취하는가.
- ⑥ 海女漁場의 實態는 어떠한며, 海女들과의 상관은 어떠한가.

## I. 海女の 位相

海女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韓國과 日本에만 있고, 이 地球上 다른 어느 곳에도 本格的인 職業人로서 存在한다는 사실이 아직 확인된 바 없다.

- ① 어찌하여 海女는 韓國과 日本에만 分布되었고, 세계 각처의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
- ② 海女는 언제 어떠한 機緣으로 發祥되었고, 그 發祥 당시의 漁撈方法은 어떠한이었을까.
- ③ 海女の 發祥地는 어디일까. 그리고 그 技倆의 전파는 어떤 經路에 따라 이루어졌을까.

海女の淵源에 따른 이 몇가지 의문은 우리에게 매우 切實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할 해답을 찾기란 어렵다. ①의 경우 그 해답을 아직 구할 수 없고, ②는 水産業의 始源과 같은 맥락에서 推斷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③의 경우 海女の 發祥地를 제주도로 보는 견해가 있다.<sup>1)</sup>

海女の 發祥을 논의하는 데, 그 時期를 명백하게 밝히기란 어려울 뿐더러, 徒勞에 그칠 우려가 짙다. 아득한 옛날 바닷가를 거닐던 사람들은 문득 바닷속을 유심히 살폈을 것이다. 술한 海藻類와 貝類들이 제멋대로 서식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관찰하다가, 이를 캐고는 그냥 날것으로 試食해 보았겠고, 혹은 불에 익혀 먹어 보기도 했을 것이다. 제법 먹을 만해서 잇따라 캐다가 보니 옷을 입은 채 그냥 허리만 굽혀서 켈 수 있는 미역·툇과 전복·소라 따위는 없어지고 깊은 바다에 뛰어들어야만, 곧 자맥질했어야만 캐게 되었던 것이 海女の 始源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男女共同으로 작업하다가 배를 짓고 漁撈作業하는 生業이 일게 됨으로써 점차 배를 運用하는 漁撈는 역센 男性의 일로, 裸潛하는 일은 女性의 일로 分業하기에 이른 것이 아닐까. 海女の 始源이 水産業의 始初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함은 어린이들의 修練을 쌓아 어엿한 海女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헤아려도 推論하기에 어렵지 않다. 곧 소녀들은 우선 바닷가에서 옷을 벗지 않은 채 툇이나 게 따위를 잡으면서 바다의 生理를 익히고, 어머니 언니를 따라서 점차 헤엄과 무자맥질을 배우다가 점차 한몫의 海女로 독립해 가는데, 그 過程은 海女の 發祥段階를 살피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겠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韓國과 日本에만 분포되어 있는 海女數는 정확히 파악할 길이 없지만, 대략 한국에 약 1만6천, 일본에 약 7천, 도합 2만3천쯤에 이를 것으로 본다. 한국해녀의 대부분은 제주도에 몰려 있어서 제주도의 해녀수는 1만5천 내외가 아닐까 한다.<sup>2)</sup>

1) 洪碼基·Hermann Rahn; “韓國과 日本의 海女”(The Diving Women of Korea and Japan), 「論壇」第3卷 第3號, p.151, 美國公報院. (by Scientific American, Inc. Scientific American誌 1967年 5月號에서 轉載)

제주도에는 裸潛漁業者로서 海女들뿐이요, 男性裸潛漁業者는 없는데, 한들 있다면 그 稀貴性 때문에 記事거리일 수 있다. 이 점은 日本의 南九州 등에서 술한 男性들이 무자맥질하는 사실과 썩 대조적이다.

해녀들은 오로지 해녀질만 專業하는 게 아니다. 여느 農家에서처럼 밭을 가지고 못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으면서 물때에 맞춰 물질을 한다. 그러나 그들의 밭은 육지에만 있지 않고 바다까지 쭉 뻗어 있는 셈이 된다. 예를 들어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 곧 소섬<sup>3)</sup>의 경우는 水産業의 소득이 農業에 따른 소득을 훨씬 앞질러 그 갑절에 이르는 主漁副農의 섬이지마는, 純農家は 소섬 주민의 3%뿐이라 한다.<sup>4)</sup> 제주도 해녀의 경우 그들의 밭은 물과 바다 두 곳에 널따랗게 펼쳐져 있다. 그들은 거의 농사를 지으므로 그 兼業率은 97%에 이르리라 推算된다.

海女라고 하면 血統에 따라서 世襲하거나 하는 특수한 人種으로 자칫 曲解하는 듯이 보이지만, 해녀들에게는 특수한 血統이 있을 수 없다. 말하자면 그 潛水能力이 遺傳의인 素質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자맥질은 열두세 살부터 익히기 시작해서 열일곱살쯤 되어가면 그 裸潛技術이 뚜렷이 관가름되어 간다. 海女作業이 극성스런 마을에서는 어린 소녀의 물질도 家庭經濟의 중요한 所得源이 된다.

2) 濟州道나 水協濟州道支部의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의 해녀수는 1980년 이래 8천~6천 사이를 오르내린다. 이는 漁村契員數의 集計를 근거로 그 女契員數를 합산한 것인데, ①裸潛漁業을 生業으로 하면서도 漁村契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②父母만이 漁村契에 가입되고 그 집안의 딸들은 어엿한 海女이면서도 漁村契員이 아니므로 그 통계에서는 누락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해녀수는 公式統計의 倍數에 이를 것으로 본다. 濟州道水産課나 몇 漁村契(演坪漁村契, 北村漁村契, 杏源漁村契, 大坪漁村契)의 실무자들과 확인해 본 결과 역시 海女の 實數는 공식통계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주민들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이라도 실제 해녀수는 公式統計의 갑절쯤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소섬(舊左邑 演坪里) 東天津洞의 해녀수는 1985년 현재 공식적으로 43명으로 집계되었으나(「1985年度 業務報告」, 演坪法人漁村契), 東天津洞 주민들은(김선옥, 여·56, 우평순, 여·48 등) 80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3) 牛島, 제주도의 城山浦 東北쪽 3.8km 지점에 있는 면적 6.79km<sup>2</sup>의 자그만 附屬島嶼. 1985년 현재 693家口에 3,294명의 人口를 지닌 主漁從農의 섬이다.

4) 1985년 8월, 演坪里 農協支所의 통계.

이제 소섬의 경우엔 중학생이 우뭇가사리 등을 채취해서 상당액을 저금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진학률이 점차 높아져서 1960년대에만 해도 소섬에서 속담처럼 만연되었던 바, “딸 셋이면 한 해에 밭 한때기씩 사들인다”는 말은 옛말이 되어 간다. 소섬 東天津洞의 경우, 1985년 현재, 高卒海女는 단 한명이라 할 만큼<sup>5)</sup>, 우선 부모들이 해녀질을 平生 職業으로 물려 주려 하지 않는다. 소섬에서는 극성스런 해녀질로 말미암아 女兒選好意識이 짙었다. 곧 소섬에서는 지난날 “딸은 낳으면 돼지를 잡아서 잔치하고, 사내는 낳으면 영덩이를 밭로 박찬다”는 말까지 번졌었다. 또한 소섬에서는 친부모의 계집애를 데려다가 戶籍에 넣고 한 식구로 삼아서 해녀질을 하게 하는 養女制度<sup>6)</sup>가 꽤 번졌었는데, 이제는 男女兒 가릴 것 없이 진학하므로 딸을 도리어 부담스러워 한다. 밑물 같은 高學歷趨勢와 함께 高卒이라더라도 해녀작업을 즐겁게 택하고 自尊意識을 지녀 신성한 生業으로서 이어나갈 건전한 職業觀이 아쉽다고 역설하는 소섬의 주민들도 있었다.

## 2. 海女の 入漁와 그 技倆의 習得

海女の 물질은 <갯물질>(加波島 등지에서는 <덕물질>이라 한다.)과 <뱃물질>로 나누어진다. 해녀들이 바닷가에서 헤엄쳐 나가서 치르는 물질을 <갯물질>(덕물질)이라 하며, 15명~20명쯤이 함께 배를 타고 나가서 치르는 물질을 <뱃물질>이라 하는데, 이의 구분은 海岸의 생김새에 따른다. 예를 들면 소섬의 경우는 <갯물질>(덕물질)을 하며 城山邑 吾照里에서는 <뱃물질>이 위주다. 해촌에 따라서는 <갯물질>(덕물질)과 <뱃물질>을 병행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그 入漁時期와 시행하는 海女階層의 구별이 드러나기도 한다. 加波

5)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 1750-6, 우평순(여·48)의 말.

6) 이 養女制度는 소섬 특유의 慣行으로서, 養女가 한 식구로 큰 다음에 소섬에서 결혼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國文學報』 第5輯, 濟州大國語國文學會, pp. 106~110, 1973) 소섬 동청진동 등대여인숙의 우평숙여인(48)의 孀家에도 2남 3녀가 있지만, 어렸을 때 釜山에서 데려온 여인(전○, 40)이 울케로서 구김살없이 그곳에서 결혼하고 2남2녀를 키우면서 지내고 있다. 海女들이 술한 日本의 齋島에서도 貧農의 계집애를 데려다가 養女로 삼는 慣行이 있었다. (瀨川清子, 『海女』, p. 112, 未來社, 1970)

島の 경우 <뱃물질>은 3월~9월 사이에만 치러지며 上軍海女들만이 감당한다. <뱃물질>하던 上軍들도 10월이 들어 날씨가 추워져 가면, 겨울철을 나기까지 <갯물질>(덕물질)을 한다.<sup>7)</sup> <뱃물질>할 때의 배는 지금은 모두 4톤~8톤 정도의 發動船이지만, 1960년대초까지만 해도 돛배를 썼었다. 바람이 너무 자거나 風向이 거슬릴 때에는 돛배를 탄 해녀들이 함께 櫓를 저었었고, 櫓를 저으면서 <해녀노래>를 구성지게 불렀었는데, 이제는 發動船으로 대체됨으로써 <해녀노래>의 自然的 歌唱機緣 역시 잃은 셈이다.

해녀들은 한달 평균 15일쯤 작업하는데, 추운 겨울철에는 그 작업일수가 줄어든다. 春夏秋冬 사시절을 가리지 않고 물질하지만, 파도가 일거나 물속이 너무 흐리거나 하는 날엔 쉰다. 눈이 오거나 비가 내리더라도 바다가 거칠지만 않는다면 물질을 한다. 海女作業은 潮水의 상황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음력을 기준으로 15일간 단위의 潮水週期를 해녀들은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다. 제주도내 몇마을의 潮水名을 일람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해녀들에게는 바다가 밭이나 다름 없으므로 바다의 事情에는 툇히 밝다. 15일 단위로 되풀이되는 潮水의 週期를 <흔물찌>라 하면서 그날그날의 漁場의 實態는 성숙한 해나라면 누구나마 어렵히 익히고 있다. 上軍海女인 어느 누구는 우뭇가사리를 엄청나게 잘 캐어서 <흔물찌>에 몇십만원 소득을 올렸다느니, <두물찌> 물질하고 벌어서 무슨 家具를 사들였다느니 하는 얘기가 과다하게 마을에 번진다. 이런 話題는 그들 日常의 소담스런 喜悅이기도 하다.

물질 나갈 때 해녀들의 식사는 간편하다. 만약 배가 부르게 되면 몸놀림이 민활하지 못해서 해산물 採取活動에 지장이 온다. 따라서 조반을 간단히 치르고 고무옷을 입어서 아침나절에 裸潛活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아랑곳함이 없이 종일 작업한다. 고무옷을 입으면서부터 작업시간도 6·7시간이나 이어갈 만큼 무척 길어져서 배가 몹시 고파야 작업을 그만둔다.<sup>8)</sup> 고무옷

7) 濟州大國語國文學會：「國文學報」, p.168, 1974.

8) 박성인 외(박양생지도) “한국해녀의 잠수생리학적 특성”(「히오라비」 제2집, p. 111, 고신대학의학부학도호국단, 1985)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고무옷 곧 潛水服을 착용함으로써 해녀들이 잠수작업시 外殼絶緣度는 綿水泳服을 착용할 때보다 2.7배가량 증가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결과 작업시 體熱損失量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體溫下降이 미미하게 되어 體溫調節問題가 더이상 潛水作業時間을 결정하는 要因이 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濟州海女の 月別 平均 作業日數 對比

月 別	城山邑吾照里	西 歸 浦 市 大 浦 里	舊左邑演坪里 (소섬)	大靜邑加波島	翰京面龍水里
1	9.6日	13.1日	4.4日	6.5日	4.1日
2	9.6	9.3	6.3	8.6	5.3
3	12.6	8.7	7.3	12.6	13.4
4	16.6	8.5	10.2	14.6	7.8
5	12.3	7.8	12.5	13.5	3.4
6	14.0	10.9	13.7	16.8	8.3
7	17.7	11.6	16.5	16.5	12.1
8	10.6	8.4	15.0	16.5	13.2
9	7.6	5.2	14.0	14.2	5.6
10	7.0	4.3	9.7	12.1	3.1
11	6.3	5.4	4.7	8.7	3.6
12	7.0	8.1	6.6	6.2	0.8

資料：「海村生活調査報告書」，濟州大，1978.

○吾照里：1974年 7月 調査

○大浦里：1975年 8月 調査

○소 섬：1973年 8月 調査

○加波島：1974年 8月 調査

○龍水里：1973年 12月 調査

潮水名一覽

陰曆日字	加波島	中文里	龍水里	吾照里	倉川里	소섬
陰曆 1日	일곱물	일곱물	일곱물	으둑물	일곱물	으둑물
2	으둑물	으둑물	으둑물	아홉물	으둑물	아홉물
3	아홉물	아홉물	아홉물	열물	아홉물	열물
4	열물	열물	열물	열흔물	열물	열흔물
5	열흔물	열흔물	열흔물	열두물	열흔물	열두물
6	막물	막물	열두물	막물	열두물	막물
7	아끈조금	아끈채기	아끈채기	아끈채기	아끈채기	아끈조(채)기
8	한조금	한채기	한채기	한채기	한채기	한조(채)기
9	분할	부날	게무슴	훈물	부날	훈물
10	훈물	훈물	훈물	두물	훈물	두물



11	두물	두물	두물	서물	두물	쇠물
12	쇠물	서물	서물	너물	쇠물	니물
13	너물	너물	너물	다섯물	너물	다섯물
14	다섯물	다섯물	다섯물	으솟물	다섯물	으솟물
15	으솟물	으솟물	으솟물	일곱물	일곱물	일곱물
16	일곱물	일곱물	일곱물	으덥물	으덥물	으덥물
17	으덥물	으덥물	으덥물	아홉물	아홉물	아홉물
18	아홉물	아홉물	아홉물	열물	열물	열물
19	열물	열물	열물	열흔물	열흔물	열흔물
20	열흔물	열흔물	열흔물	열두물	열두물	열두물
21	막물	막물	열두물	막물	아끈체기	막물
22	아끈조금 (죽은조금)	아끈체기	조금	아끈체기	한체기	아끈조(체)기
23	한조금	한체기	한조금 (한체기)	한체기	부날	한조(체)기
24	분할	부날	게무슴	흔물	흔물	흔물
25	흔물	흔물	흔물	두물	두물	두물
26	두물	두물	두물	서물	쇠물	쇠물
27	쇠물	서물	서물	너물	니물	니물
28	니물	너물	너물	다섯물	다섯물	다섯물
29	* 다섯물	* 다섯물	* 다섯물	** 으솟물	으솟물	** 으솟물
30	으솟물	으솟물	으솟물	일곱물		일곱물

\* 29 日인 달은 29 日을 「으솟물」로 하고 「다섯물」은 빼다.

\*\* 29 日인 달은 29 日을 「일곱물」로 하고 「으솟물」은 빼다.

- 加波島：「國文學報」제 6 집 (1974)
- 中文里：「國文學報」제 7 집 (1975)
- 龍水里・吾照里：「海村生活 調查報告書」(1978)
- 소섬：「國文學報」제 5 집 (1973)

착용으로 깊은 바다에 들어가 오래 일할 수 있으므로, 漁獲量은 불어나는 반면, 體力消耗에 따른 健康管理, 증가하는 職業病的 문제가 그 逆機能으로 절실히 대두된다.

單獨入漁는 삼가고 이웃 해녀들과 함께 물질하는 것이 그들의 不文律이다. 일단 채취할 곳까지 이른 해녀들은 지니고 간 <테왁>과 <망시리>를 水面에 띄워 두고 潛水, 採取하는 일을 수10회 되풀이한다. 무자맥질, 곧 潛水하는 일

을 제주도에서는 <숨빈다>고 하는데, 한번 숨비어 나오는, 곧 1회의 潛水時間은 제각기여서 대충 없지마는 평균 30초 동안이다. 上軍의 경우에는 무려 2분까지 견딘다는 점에서 국내외에 걸쳐 해녀들의 特殊生理 연구에 유다른 관심을 쏟고 있다.

무자맥질을 수10회 되풀이하고 나면 바닷가나 배 위에서 불을 지피고 몸을 췌다. 이때에는 서로가 큰소리로 떠들면서 까발리는데, 마치 싸움이라도 하는 듯 그야말로 왁자지껄이다. 潛水作業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몹시 떠드는 일은 활력을 되살리는 기능도 지닌 듯, 日本의 海女들도 불을 췌면서 왁자지껄한다고 기록하고 있다.<sup>9)</sup> 어찌어찌해서 큰 전복을 캐었다든가, 숨이 너무 짧아서 우동통 살찐 전복을 놓쳤다든가, 水中眼鏡에 물이 들었다든가, 깊은 물속에서 발이 암초에 걸려 혼났다는가, 모처럼의 採取物을 들고 나오다가 멀어뜨렸다

濟州海女の 月別 1日 平均作業回數 對比

月	城山邑吾照里	西歸浦市 大浦里	舊左邑演坪里 (소섬)	大靜邑加波島	輪京面龍水里
1	1.9回	2.4回	1.1回	1.7回	1.2回
2	1.9	2.3	1.2	1.8	1.5
3	2.1	2.4	1.8	2.0	2.4
4	2.4	1.8	2.0	2.3	2.2
5	1.8	2.1	1.9	2.4	0.6
6	1.9	2.1	2.1	2.6	0.8
7	1.7	2.3	2.2	2.8	2.1
8	1.9	1.6	1.9	2.8	2.0
9	1.8	1.4	1.7	2.2	1.4
10	1.8	1.3	1.7	2.1	0.8
11	1.8	1.7	1.3	1.8	1.3
12	1.8	1.9	1.3	1.7	0.3

資料：「海村生活調査報告書」, 濟州大, 1978.

○吾照里：1974年 7月 調査

○大浦里：1975年 8月 調査

○소 섬：1973年 8月 調査

○加波島：1974年 8月 調査

○龍水里：1973年 12月 調査

9) 瀨川清子：「海女」, p.147, 未來社, 1970.

든가, 어느 여, 어떤 바위틈에 큰 전복이 보였지마는 도저히 캐 수는 없겠더라 든가, 어느 누구의 漁獲量이 유달리 많다든가, 주로 採取物과 採取過程을 둘러싼 이야기가 話題의 主流를 이룬다. 우스갯소리를 던져서 한바탕 신명나게 웃기도 한다. 이처럼 발랄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은 <조물질>인 경우는 바닷가요, <벧물질>일 때에는 배 위다. 곧 바닷가에서도 여름이면 바위 밑을 가려 5~10명씩 짝을 이루어 脫衣場을 삼은 곳이요, 겨울철이면 바닷가 군데군데 마련된 <불턱>이다. <불턱>이란 바닷가 바위 위의 바람막이에 둥그스름하게 돌들을 쌓아서 만든 해녀들의 脫衣場이면서 불을 쬐며 쉬는 곳이다. 한번 바다에 들고 나서 다시 드는 사이에 불을 쬐고, 물질을 모두 마치고 나서 또 불을 쬐다. 빨감은 보리짚이나 조짚, 雜草木 따위다. 해녀들은 불을 쬐며 쉴 때, 서로가 採取物을 견주어 보면서 內心으로는 격렬한 競爭意識도 품는다. 일단 무자맥질하기 시작해서 쉬러 물으로 나오는 동안에 한번의 물질이라 한다면, 해녀들은 하루 평균 두번 물질한다.

위 圖表에서 보면 1일 평균작업회수가 2회로 드러났지마는, 이는 <물옷>이라는 在來의 綿製海女服을 입었거나 在來服과 고무옷을 混用할 때의 상황이고, 어디를 가든 고무옷을 專用하는 오늘로서는 일단 바다에 들면 3~4시간 물질이 이어지거나 6시간 남짓까지도 견딘다는 점에서 그 作業回數는 줄어드는 터이다.

<테왁>과 <망시리>를 물 위에 띄워 두고 무자맥질한 해녀들은 30초쯤 물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水面으로 나왔다가 또 潛入하는 일을 되풀이한다. 일단 水面으로 올라올 때마다 해녀들은 呼吸을 調整한다. 한꺼번에 긴숨을 내쉬면서 炭酸개스를 삼시간에 뱉고 酸素를 받아들이는 작용이다. 이른바 過度換氣作用으로서 이 때에 입술을 움츠리고 갑자기 큰 숨을 내뿜는 휘파람 소리가 바닷가 멀리 번진다. 물질이 한창일 때면, 술한 해녀들의 휘파람소리가 해안에 메아리치는데, 이는 흡사 交響樂 같아서 異國的情趣를 자아내게도 한다. <숨비소리>·<숨비질소리>·<숨비질소리> 등으로 불리는 이 過度換氣作用은 生理學的으로도 유다른 관심이 쏠리는 줄 안다.

海女는 그 技倆의 차이에 따라 대체로 세단계로 구분된다. 이른바 上軍·中軍·下軍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구분은 한몫의 해녀가 된 다음, 오로지 그 漁獲技倆에 따를 뿐, 반드시 연령의 높낮이에 매이지는 않는다. 그 呼稱도 갖가지로

드러난다.

上級海女~上軍·상잠수(上潛嫂)·큰잠네(潛女)·왕잠네 등.

中級海女~中軍·중잠수(中潛嫂)·중잠네 등.

下級海女~下軍·하잠수(下潛嫂)·족은잠수·족은잠네·돌파리·뚝군·  
又잠네·불락잠네 등.

下軍을 <돌파리>·<뚝군>이라 함은 그 技倆이 썩 모자람을 빗대어 말하는 말 이겠고, <又잠네>란 말은 <又>, 곧 바닷가 얕은 곳에서나 물질하는, 곧 初步的인 <又물질>이나 하는 해녀란 뜻이다. <불락잠네>라는 뜻은 한참 무자맥질할 시간인데도 技倆이 모자라서 海面에 드러나고 애써 <테왁>을 붙잡으려고 숨을 할딱이며 <불락불락>함을 빈정거리려 표현한 말이다. 소섬 등지에서는 上軍 가운데 特出한 해녀를 <大上軍>이라 일컫기도 한다. 해녀의 계층이 이처럼 三分 되기는 하지만, 흔히 通用되는 말은 上軍과 下軍이다. 이 계층은 곧 무자맥질의 技倆과 能力의 차이이며, 그 所得도 역시 꽤 거리가 있다. 예들어 소섬 해녀의 수입은 1985년을 기준한다면, 한달 上軍은 50만원쯤, 中軍은 30만원쯤, 下軍은 5만원~10만원이었다.

海女作業, 곧 물질의 技倆은 어떻게 익혀지는 것일까. 그 기량은 대대로 世襲하는 것도 아니요, 갑자기 熟達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꾸준하고도 웅결된 修練에 따를 뿐이다. 先天的, 遺傳的 素質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裸潛技倆을 몸에 지니고 나는 해녀는 없다.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서 살면서 거듭거듭 꾸준하게 익혀온 反復訓練의 결과인 것이다.

바닷가 어린이들에게는 질푸른 바다가 그들의 집이요 마당이다. 어린이들은 멀리 펼쳐진 水平線을 집 울타리로 관념한다. 海村의 여자 어린이들은 여름철 내내 날이면 날마다 <작은테왁>을 바구니에 넣고 바닷가로 메지어 왁자지껄 물러든다. 바닷가 바위 위에 옷을 훨훨 벗어 바구니에 구겨 넣어둔 채, 물안경을 끼고 <테왁>을 들면, 물에 들 채비는 끝난다. 아직 해녀질을 익히지 못한 조무라기들도 함께 뛰어들어 헤엄치기를 배운다. 솜씨가 서툴러서 제대로 잡힐 리 없지만 우뚝가사리도 캐고 소라도 캐는데, 얼마쯤을 꼭 캐어야 할 強迫이 없으며, 캐어져도 그만, 못 캐어도 그만이다. 벗들과 더불어 시원하고 신비로운

바닷속을 드나들며 즐기는 데 오히려 뜻이 있으므로 캐어지면 喜悅이 일고 못 캐더라도 그리 안달복달할 것 없다. 대부분 국민학교에 다니는 이 어린이들은 일과 遊戱의 구별이 모호하다. 반드시 所得이 없매이지만은 않는, 썩 즐거운 놀이이기도 하다. 아직 세력으로 무자맥질할 줄 모르는 꼬마는 언니의 몸을 붙잡고 헤엄을 배우는데, 번번이 실수할 때면 그들은 박장대소한다. 배가 고파질 쯤해서 집으로 가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수다스러워서, 이야기가 반이요, 行動이 반이다. 놀이를 겸한 그들의 물질은 單調롭지만 健康하다.

이렇게 자라는 사이에 이들은 어엿한 下軍이 되고, 技倆이 늘면서 中軍·上軍이 된다. 하얗은 우뭇가사리와 소라를 팔아서 備蓄하면서 自立·自尊의 기틀도 굳히는 셈이다. 필자는 이러한 어린이들의 물질 모습을 1973년 여름 어느 날, 하루종일 소섬의 바닷가에서 관찰한 바 있었다. 1985년에 이르러서는 20대 해녀도 썩 줄어들었을 뿐더러, 어린이들이 물질을 즐겨 배우는 關心과 熱意도 激減되었음을 보고 사람살과 世態의 急變을 실감했다.

이들은 몇살쯤해서 한 몫의 海女로서 나서게 되는가. 1973~74년 사이의 조사결과를 보면, 해녀질을 시작하는 연령은 15세~18세 사이다. 마을에 따라서 해녀작업이 시작되는 연령의 차이가 드러나는 까닭은 갖가지이겠지만, 그 마을에서 얼마나 물질이 극성스러운가, 또는 그 마을의 물질은 <뱃물질>·<갯물질>(덕물질) 어느 쪽인가에도 부분적인 까닭은 있겠다. <갯물질>(덕물질)일 경우는 해녀들이 作業場까지 헤엄쳐 나가서 치르므로 水深이 얕고 비교적 일이 수월스러움에 비하여, <뱃물질>은 함께 배를 타고 일정한 바다에까지 나가서 하는 작업이므로 海底가 깊숙하고 일이 벅차서 어린 나이로는 감당키 어렵다. 따라서 물질이 극성스러워서 바다에 의한 家計依存度가 농사에 비해 감절쯤 될 뿐더러, 온통 <갯물질>(덕물질)만 치르는 소섬의 경우, 해녀들이 물질을 시작하는 연령 또한 평균 15.9세로서 가장 앞섰다. 이에 비하여 龍水里나 呑照里 海女들인 경우 18.4세, 17.4세 등으로 물질을 시작하는 연령이 늦어진 까닭은 다른 지역들이 主漁副農인데 비하여 半農半漁라는 生業의 차이가 있겠고, 또한 <뱃물질> 위주라는 데도 원인되는 줄로 안다.

이들은 몇세에 이르기까지 해녀작업에 종사하는가. 漁村契員의 加入規程은 15세에서 60세 사이로 되어 있으나, 실제 裸潛漁業에 종사하는 연령은 70고령까지 치달는다. 1985년 여름에도 80세의 노파가 무자맥질하지는 않은 채였지

濟州海女の 作業始作年令對比

里 別	城山邑 吾照里	西歸浦市 大浦里	舊左邑濱坪里 (소섬)	大靜邑 加波島	翰京面 龍水里
海女作業始作 平均年令	17.4 歲	16.9	15.9	16.7	18.4

資料：「海村生活調査報告書」，濟州大，1978.

- 吾照里：1974年 7月 調査
- 大浦里：1975年 8月 調査
- 소 섬：1973年 8月 調査
- 加波島：1974年 8月 調査
- 龍水里：1973年 12月 調査

만, 툇을 채취하는 것을 舊左邑 杏源里 바닷가에서 목격했었다. 그러나 이들이 무자맥질할 경우란 지난날 미역을 解警(許採)하거나, 오늘날 우뭇가사리·툇따위를 解警(許採)하는 날에서 며칠 동안에 쏘린다. '解警'이란 '許採', 또는 '대즈문'이라고도 하는데, 資源保護를 위해 採取物을 일정기간 禁採했다가 일제히 채취하는 일을 말한다. 이 때는 한창 活動期인 해녀들 외에 소녀들과 노파들마저도 물질에 참여하고, 채취물을 운반하느라 남자들까지도 동원된다. 바닷가는 그야말로 人山人海를 이루며, 生業의 아우성이 마을과 바다로 메아리친다.

노파해녀들의 물질은 解警(許採)하는 한 무렵뿐이요, 평상시에는 가끔 얕은 바다에서 소라따위를 캐거나, 脫衣하지 않은 채 물속 바위를 거닐며 툇따위를 캐는, 이른바 潛在海女들이다. 노파해녀들에 대한 特惠가 규정되어 있거나,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다. 물질하던 한창인 해녀가 漁場에서 노파해녀와 마주쳤을 때에는 水面에 나왔다가도 이내 또 무자맥질해서, 곧 <곰숨비여서> 소라따위를 캐고 선사하는 禮遇도 가끔은 있다. 1970년에 현지조사한 바에 따르면, 韓國의 最南端 馬羅島의 경우, 이른바 <할망바당>(할머니의 바다라는 뜻)이라고, 61세 이상 된 노파들만이 입을 할 수 있는, 해안에 이르는 通路가 덜 가파르고 해산물이 가멸진 어장을 일종의 敬老慣行으로서 劃定해 놓았었다.

### 3. 海女會(潛嫂會)

해녀들의 어로활동을 원활히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마을마다 自治機構인 海

女會가 있다. ‘潛嫂會’라고도 하는 이 海女會에서는 漁村契와 함께 해녀들의 義務와 權利를 管理하고, 漁場管理, 入漁權 規制, 入漁時期 調整, 海女들의 集團意思의 代辯, 海女の 權益伸長 등을 맡는다. 漁村契 單位로 海女會가 조직되는 게 常例이지마는, 所屬 같은 경우에는 單一法人漁村契 구역인데도 지역이 너르고 裸潛漁業이 極성스런 곳이므로 洞別로도 海女會(婦人會)가 조직되어 있다. 곧 所屬은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라는 한마을로 되어 있으나 가멸진 漁場을 지닌 자그만 섬이다. 이 섬은 몇몇 官署와 學校들이 들어선 中央洞까지 12개 自然部落으로 나누어졌는데, 섬 한복판인 中央洞을 빼고 섬을 뱅 둘러 바닷가에 흩어져 있는 11개동마다 劃定된 漁場을 지니며 제각기 海女會도 조직되어 있다. 所屬에서는 ‘대즈문’ 또는 ‘즈문’이란 말을 흔히 쓰지마는, 우뭇가사리나 툇을 解繫할 때에도 漁村契長·里長·洞長과 함께 海女會長이 주관한다. 海女會는 海女社會에 있어서 實質的인 機能이 뚜렷하다. 海女會는 形式的이거나 儀禮的인 모임이 아니라, 日常的인 삶과 生計와 직결된 일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모임이기 때문이다.

海女作業은 여러면에서 共同體的 性格을 띤다. 우선 물질은 언제나 혼자 나가질 않고 이웃과 함께 메지어 나가는 게 不文律이므로 아예 共同作業의 성격이 짙다. 또한 그 採取時期나 採取物의 販賣가 共同으로 결정되며 雜草를 베어서 가멸진 漁場을 가꾸거나, 紛爭이 일 경우 그 동네의 漁場과 入漁權을 합리적으로 확보하는 일도 共同으로 처리된다. 더구나 漁場은 한결같이 평온하기만 한 農土와 달라서 危險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므로 共同對處가 늘 절실하다. 그들의 共同漁場인 바다는 潮流와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그야말로 千態萬象이므로 그날 그날의 作業의 可否와 作業時間 調整 등만 해도 서로 유대가 깊어야 되고 情報疎通이 활발해야 한다. 그날 물질을 하든 말든, 많이 채취하든 말든, 무엇을 채취하든, 얼마나 오래 물질하든, 그것은 전혀 個人的인 所管이요, 어느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個人的이지마는, 물질은 그 作業性格上 이처럼 共同體的 要素를 짙게 띤다. 합의된 바 集團意思에 따라서 작업하고 행동해야 實利的이고 海女社會의 秩序가 순조로우며, 두려운 바다의 위험에서 함께 대처할 수도 있다. 함께 論議하고 實行하는 데서 生産的인 즐거움이 솟고, 삶의 보람도 소담스레 가꿀 수 있게 된다.

海女會에는 회장·부회장·총무를 두고 정기총회는 한해에 한번 열린다. 그

들의 모임은 오히려 生産活動과 직결되는 協議事案이 구체적으로 불쑥불쑥 드러날 때마다 물질 채비를 하거나, 마쳤을 때 바닷가 脫衣場 부근에서 열리는 임시 모임이 잦다.

#### 4. 濟州海女の 特殊技倆

해녀작업은 農繁期나 農閑期가 구분되는 농사짓기와는 달리, 그 작업시기가 따로 마련된 게 아니어서 年中無休다. 따라서 제주해녀들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겨울에도 바다에 뛰어들 만큼 추위에 견디는 힘, 곧 耐寒力이 유별스럽다. 따라서 이들의 한겨울철의 물질 모습을 처음 목격하는 이들은 크게 感動하게 된다. 이러한 耐寒力 등 제주해녀들의 特殊技倆은 강조될 만하며 술한 과제를 던져 준다.

世宗 때에 奇度牧使가 제주도에 부임해 와서 처음으로 도내를 巡歷할 때의 逸話다. 눈보라와 하늬바람이 짓궂게 몰아치던 날, 사또가 初度巡視를 나서서 어느 海岸에 이르렀을 때 해녀들이 바닷물속으로 퐁퐁뚱뚱 뛰어드는 모습을 목격했다. 너무나 엉뚱한 광경에 부딪친 사또는 깜짝 놀랐다.

“저런, 저런 일이 다 있나? 이것 참 큰 일이고구나. 제주도엔 왜 미친 여자들이 이처럼도 많은가?”

해녀작업에 대한 見聞이라곤 전혀 없었던 사또로서는 일행들의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해녀들의 물질 모습임을 알아챘다. 해녀들은 春夏秋冬 가릴 것 없이, 嚴冬에도 저렇게 裸潛漁業을 해야 삶을 꾸려 나간다는 말을 유심히 듣고서야, 자기가 먹는 전복·소라도 저렇게 목숨 걸고 캐어지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확인했다. 드디어 사또는 생명을 바쳐서 캐낸 전복·소라를 차마 어떻게 먹겠는가고, 그 다음부터는 제주목사를 離任할 때까지 일체 海藻類·貝類를 밥상에 올리지 못하게 하고 먹질 않았었다는 말이 전한다. 朝鮮朝 正祖 또한 제주도에서 진상해 올린 전복에 대하여 그 採取過程을 살살이 듣고난 다음부터는 해녀들의 非常한 辛苦를 헤아리면서 전혀 들지 않았었다 한다.

海女の 耐寒力은 학계에서도 관심거리의 하나다. 延大의 洪礪基 교수와 뉴욕州立大의 허만 란(Hermann Rahn) 교수가 共同研究 執筆한 <韓國과 日本의 海



女>(The Diving Women of Korea and Japan)<sup>10)</sup>에서도 이 特有的의 耐寒力은 지적되고 있다. 곧 한국의 해녀들은 바닷물의 온도가 50°F밖에 안되는 추운 겨울에도 潛水를 계속하고 있으나, 이 때에는 추위 때문에 작업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 해녀들은 일반여자들보다 低溫의 水中에서 戰慄을 일으키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점을 관찰하여 이를 밝혔다. 말하자면 正常男子의 경우 88°F에서 전율을 일으키며, 일반여자는 전율을 일으키는 水中水溫 82.0°F에서도 해녀들은 세시간 동안 전율을 일으킴이 없이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녀들에게는 長期間의 訓練으로 말미암아 寒冷暴露時 戰慄發生에 대한 低抗이 생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함이다.

해녀작업과 月經 및 分娩과는 어떠한 상관일까. 해녀들은 月經이거나 分娩 直前 直後에도 물질한다. 分娩이 닦친 무거운 몸으로도 千辛萬苦를 무릅쓰고 해녀작업을 치른다. 물질을 마치고 歸家하기 앞서서 분만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예를 들면 南濟州郡 城山邑 吾照里에서는 '축항둥이'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滿朔인 한 부인이 다른 해녀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른바 <뱃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항구에 내리자마자 產痛에 직면하여 애를 분만했는데, 그 애의 별명을 '축항둥이'라 이름했다는 것이다. 소섬 西天津洞의 한 여인은 소섬 안에서 해산물이 썩 가멸지게 생산되는 迎日洞의 <너런지바당>이란 漁場으로 물질 나갔었다. 소섬의 남쪽 西天津洞에서 북쪽 迎日洞까지는 섬 한복판을 가로질러 걸어다녀야 한다. 그녀는 <너런지바당>에서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產痛을 느껴 다급한 대로 길에서 분만했고, 애의 별명을 <질둥이>라(제주에서는 '질'을 '질'이라 한다.) 했다 한다. 北濟州郡 翰京面 龍水里에서도 한 여인이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애를 낳았었고 길에서 낳았음을 기념하여 <吉童이>라 이름지었었으니, 1939년의 일이었다 한다. 이런 逸話는 그다지 드물지 않다. 產後調理는 대체로 7일~15일 정도인데, 어떤 해녀는 產後 3~4일후 억척스럽게 물질을 나서는 경우도 있다.

해녀들은 어느만큼의 水深에서 작업하는가. 在來의 綿製 海女服을 입었을 때에도 이들은 보통 바다속 15~20피트에서 물질하지만, 필요할 때면 70피트까지 들어간다. 70피트라면 21m 33.6cm에 이른다. 물속에서의 작업시간은

10) 洪鶴基·Hermann Rahn : 앞의 논문, pp.150~170.

평균 약 30초 동안이며, 그 가운데 15초는 海底에서 海産物을 채취하는 데 소비하고 水面으로 떠오른다. 水面으로 돌아온 해녀들은 <태왁>에 몸을 의지한 채 약 30초쯤 이른바 <숨비질소리>란 過度換氣를 하고 다시 물속으로 潛入한다. 따라서 潛水의 週期는 약 1분이 되는데, 잠수는 꾸준히 되풀이된다. 특수한 장비를 갖추지 않는 裸潛漁法으로 水深 21m 이상 潛入, 採取作業할 수 있다는 그 技倆은 주목할 만하다. 제주에서는 물속의 깊이를 <질>(<길>의 제주어)로 헤아리는데, 열질 남짓 물질할 수 있는 上軍이라면 소문날 만큼 손꼽힌다. <질>(<길>)이란 사람의 키의 길이로서 1m83cm로 환산되는데, 열질이라면 18m30cm에 이른다.

1974년 南濟州郡 攀瑟浦 앞바다의 加波島에서 확인해 보았더니, 그곳에서 열질 이상 물질할 수 있는 해녀는 20명에 이르렀고, 열두질 들어갈 수 있는 해녀는 김여옥 등 11명이었다. 加波島는 모슬포에서 한국의 最南端 馬羅島로 이르는 사이에 놓여진 부속도서인데, 전복·소라 등 해산물이 풍부하고 물질이 극성스런 곳으로서 城山浦 앞바다의 소섬(牛島·舊左邑 演坪里)과 함께 해녀 마을로 이름높다. 열두질이라면 무려 21m96cm에 이른다. 더구나 197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在來의 海女服이 고무옷으로 탈바꿈됨으로써 潛水作業時間이 연장됨은 물론, 潛入하는 깊이도 15질(27m45cm)까지 이른다 한다. 그들은 실로 櫓 저으며 부르는 <海女노래>에 드러나 듯이 “七星板을 타서 다니고, 銘旌布를 머리에 이고 살면서”, “저승길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저들의 生業에 全力 投球한다.

· 탕병기는 칠성판아  
 잉영사는 멩정포야  
 못 훔일이 요일이여  
 모진광풍 불질말라

(拙著：「濟州島民謠研究(上)」, 833번의 자료)

<語釋> 타고 다니는 칠성板아  
 이어 사는 銘旌布야  
 못할 일이 요 일이베  
 모진 狂風 불질 말라

너른바당      앞을재연  
 혼질두질      들어가난  
 저승질이      왓닥갓닥  
 (위의책, 832번의 자료)

〈語釋〉 너른 바다      앞을 재어  
           한길 두길      들어가니  
           저승같이      오락가락

世人들이 해녀를 주목하는 이유의 한가지로는 이처럼 危險이 도사린 바닷속에 뛰어들어 목숨 걸고 제 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다는 점에 서다. 그의 生業과 經營이 무엇이든, 제 일에 至誠을 쏟되, 이처럼 生命까지 던지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이들을 敬畏하게 된다. 이들의 修道僧의 마음자리와 崇高한 삶의 모습 때문이다.

水中作業에만 몰두하다가 해녀들은 生命을 잃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필자도 1958년 여름 민요 수집차 西歸浦市 甫木洞의 어느 집에서 채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집의 子婦가 물질하다가 그만 窒息死함으로써 몹시 당혹했었다. 不意의 事故는 대체로 전복을 캐 때 일어난다. 20세기초까지는 그대로 전복이 흔해서 水中眼鏡, 곧 <눈>없이 맨눈으로 潛入하더라도 꽤 잡혔었다지만, 이제는 水深 깊은 海底에서만 발견된다. 전복은 깊디깊은 海底 가운데에서도 구부렁구부렁 오그라진 바위틈,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서식하기 일수이며, 감격스럽게 이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숨이 가빠진다. 숨이 막히는데도 이를 꼭 캐고자 억지부릴 때 애꿎이 질식할 수도 있다. 전복을 캐는 쇠붙이를 <빗창>이라 하는데, 이 <빗창>에는 손잡이끈이 달렸다. <빗창>으로 전복을 캐러 할 때 그만 전복에 끈이 물리어 뗄 수 없는데다, 손목에 감겨진 끈이 얼른 빠지질 않아서 進退維谷으로 목숨을 잃기도 한다.

물질할 때 해녀들을 해치는 알곳은 고기들도 있다. 상어떼가 몰려 와서 해녀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人命을 해치는 수가 드물게 있으며, 새우라는 물고기가 해녀를 덮쳐서 해치는 수도 있다 한다. 城山邑 吾照里의 한 해녀는 지난날 새우에게 乳房을 물어뜯긴 일마져 있었다. 솔치·물새기 같은 고기도 해녀를 해친다. 이 고기들에게 물리면 痛症이 심하고 부풀어 오르는데, 體質에 따라서는

아무렇지도 않는 해녀들도 있다. 물새기가 바다에 나타나면 해녀들은 일제히 바닷가에 나서서 “물 알로 가라”, “물 알로 가라”하고 외치는 習俗도 있다. (西歸浦市 大浦洞, 舊左邑 杏源里 등) 가끔 어린 아이들도 물새기의 과란 비누거품 같은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손으로 잡으려다가 물리는 수도 있다. 물고기에 붙렸어도 엉간한 정도라면 해녀들은 물질을 強行한다. 다만 불행히도 生命을 잃는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마을의 물질은 당분간 止한다. 물질하다가 龍宮이나 저승에 갔다 온 이야기도 가끔 전해지며,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이른바 <살>이라는 절굿공이만큼의 하얀 빛이 쭉 달려올 때가 있는데, 자칫 이를 맞게 되면 죽는다는 말도 전한다. 그리고 비올 듯한 곳은 날씨에는 아무도 없는데도 하얀 수건을 이쁘게 쓴 해녀가 물위에 나타나서 반갑게 손짓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이 해녀를 따라 갔다가는 죽는다는 말이 전한다.

## 5. 海女の 採取物

해녀들은 年中 주로 무엇을 채취하는가. 그 採取物은 地域과 時代에 따라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한 지역의 예를 드는 게 이해가 빠를 줄 안다. 소섬 곧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의 月別採取物은 다음과 같다.

소섬(牛島)은 해산물이 워낙 풍부한 곳이라 연간 약 11억~12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sup>11)</sup> 그 가운데 주된 해산물은 우뭇가사리다. 현지에서는 ‘우미’, 혹은 ‘天草’라고도 하는 이 우뭇가사리는 소섬을 黃金漁場으로 이끄는 바탕이 되며, 그래서 소섬을 ‘돈섬’이라 부르기도 된다. 1985년도의 제주시수협의 漁獲目標量이 9천6백7십가마니인데, 소섬에서의 채취목표가 6천가마니에 이른다는 게 소섬 演坪法人漁村契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제주시 수협관내 우뭇가사리 채취량의 3분의 2가 소섬에서 산출된다는 말이다. 소섬어촌계의 집계에 따르면, 1984년의 소섬해녀의 수입을 그 所得額順으로 볼 때 5억4천만원에 이르는 우뭇가사리를 비롯하여 툃(약 2억7천만원), 소라(약 1억4천3백만원),

11) 演坪法人漁村契에 따르면, 1984년도의 해녀수입은 11억3천7백만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漁村契에서 집계한 해녀수를 기준한다면, 1984년 현재 430명이므로 해녀 1인당 수입은 2백64만4천원에 이른다.

牛島海女 月別 重要採取物

月別	重要採取物	備考
1	소라·전복·오분자기	
2	소라·전복·오분자기	○ 바다풀 캐기
3	뚝·소라·전복·오분자기	
4	우뭇가사리·갈래곰보	○ 우뭇가사리 1반초 캐기
5	벚붉은잎·소라·전복·오분자기	
6	우뭇가사리·벚붉은잎·갈래곰보	○ 우뭇가사리 2반초·3반초 캐기
7	감태	○ 전복禁採
8	소라·오분자기	○ 전복禁採
9	소라·오분자기	○ 전복禁採 ○ 바다풀 캐기
10	(休業)	○ 전복禁採 ○ 고구마 절간 때문 바빠서 물질을 쉽
11	소라·전복·오분자기	
12	소라·전복·오분자기	

○ 1985年 8月 筆者調査

○ 提報者: 김선옥 (여·56, 소섬 동청진동)外

섬게(약 5천8백만원), 감태(약 3천만원), 오분자기(약 2천7백만원), 갈래곰보(약 2천만원), 문어(약 2천만원), 전복(약 1천2백만원) 등이다.

우뭇가사리는 한번 캐고난 다음에 일정기간 禁採했다가 또 자라나게 되면 두어번 다시 캔다. 첫채취를 '일반초', 그 다음을 각각 '이반초', '삼반초'라 한다. 소섬해녀의 收入源의 大宗을 이루는 우뭇가사리는 <돌우미>와 <섭우미>로 나누어진다. <돌우미>란 썰물일 때 바닷가 바위 위에 나타나는 자갈한 우뭇가사리로 주로 下軍이나 노파해녀들이 무자맥질하지 않은 채 日常作業服으로 채취한다. <섭우미>란 해녀들이 물질해서 캐는 비교적 현철한 우뭇가사리로 깊숙한 바다속 바위에서 자란다.

<톨>이라고도 하는 톳 역시 상당한 收入源인데, 우뭇가사리와 함께 그 採取日時를 공동으로 協議, 決定하고 엄격한 規制 밑에 채취된다. 漁村契長과 里長, 海女會長(婦人會長) 등의 합의 아래, 採取開始日時를 정해 놓고 해녀들 모두가 한꺼번에 채취한다. 이처럼 시일을 정해 놓고 일제히 공동채취하기 시작

1984年度 소섬海女 漁獲高

해 산 물	어 획 고	해 산 물	어 획 고
소 라	142,893,060 원	갈래곰보(鷄冠草)	19,498,872
전 북	12,288,950	섬 계	58,004,640
오분자기(떡조개)	27,281,243	해 삼	9,290,450
우 못 가 사 리	541,310,987	문 어	20,744,661
툫	270,597,164	모 자 반(馬尾傘)	5,135,895
감 태	29,962,240	계	1,137,008,162 원

資料: 濱坪法人 漁村契

함을 <解警>·<許採>라 하기도 하고 <대즈문>·<즈문>이라 일컬기도 한다. 우 못가사리의 禁採가 풀려서 처음으로 採取하는 일을 “우미즈문훈다”고 하고, 툫 채취가 시작됨을 “톨즈문훈다”고 이른다. 소섬에서의 <대즈문>이라면, 지난해 미역과 넓미역의 경우가 壯觀이었다. 요마적에 이르러 <줄미역>, 곧 養殖미역이 1970년대 중반기에서부터 흔히 생산되자, 미역을 공들여 캐지 않아서 이른바 <에역즈문>과 <넓메역즈문>은 사라지고 말았지만, 1969년 여름의 넓미역 채취광경은 대견스러웠다. 소섬 가운데에서도 下牛目洞 앞바다에는 1백여척의 낚싯거루가 雲集하여 1주일 남짓 큰잔치를 벌였었다. 소섬 배만이 아니라, 終達·始興·城山·禾北·爲美 등지에서 물려든 낚싯거루들은 마치 示威하듯 온 바다를 덮는다. 배에선 <갈궁이>(갈쿠리)로 넓미역을 건지고, 해녀들은 물질해서 캔다. 男女老少 할 것 없이 가족들도 온통 바닷가에 들끓는데, 캐어 놓은 넓미역을 <바지계>로 저 나르고 바닷가 평퍼짐한 잔디 위에 널어 말린다. 넓미역 캐는 배들 백여척이 사열이라도 하듯 준비해 있는 下牛目洞 앞바다에는 물질하며 캐는 해녀들, 이를 저 나르는 남정들, 널어 말리는 아낙네들, 조반밥을 나르며 뒷바라지하는 어린이들로 푸르른 바다와 바닷가는 그야말로 아우성이었다. 불과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을 뿐인데도, 미역이든 넓미역이든, 이제는 고작 집안의 부식 정도만 캐고, 나머지는 雜草로 보아 베어 던지고 있으며, 生業의 세계에도 世態의 改變은 無常하다.

미역과 넓미역이 채취대상에서 밀려나고, 요마적에 이르러 새로이 등장한

海藻類로서 갈래곰보나 벚붉은잎이라는 게 있다. 갈래곰보는 그 모양이 닭의 벚 비슷하다고 해서 <鷄冠草>, 또는 <독고달>(닭의 벚이라는 濟州語)이라 불리며, 벚붉은잎은 <고장풀>, 또는 <고상초>라 일컬어진다. 1980년부터 그 效用이 인정되어 캐기 시작한 갈래곰보는 84년에는 무려 소섬에서만 2억원의 소득을 올리자, 종전에 法廷싸움까지 벌이고 썩 시끌시끌했던 迎日洞 앞 <너런지바당>을 둘러싼 紛糾가 再燃될 기미다.

소라는 고동 또는 <구쟁기>라 하는데, 자잘한 소라를 <조쿠쟁기>라 하고 중간을 <쌀쿠쟁기>, 큰 것을 <민둥구쟁기>라 한다. <민둥구쟁기>란 소라가 아주 커감에 따라 殼表에 생긴 뿔 모양의 突起가 뭉툭하게 되어 버린 形狀에서 온 말이다. 전복은 대체로 生鰓이라고 부르며, <수침복>(雄鰓)과 <암침복>(雌鰓)으로 나뉘지고 자그맣고 突起가 특수한 <마드레>가 있다. 전복의 雌雄의 차이는 해녀들이 쉽게 구분한다.<sup>12)</sup> 전복은 어차피 貝類의 王座에 군림한다. 전복은 따라서 조선시대에 제주도의 主要進上品으로서도 널리 알려졌었다. 물질을 하다가 겪는 커다란 喜悅이 무엇이나고, 해녀들에게 불쑥 묻는다면, 그것은 우뚝 통 살편 전복을 발견하는 喜那라고 흔히들 답변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을 터이다. 섬계는 <구사리>·<퀴살>·<퀴>·<구살>이라 하는데, 韓半島 出稼海女에 따라 <성계>·<성계>라는 말도 수입해 와서 이제는 꽤 번졌다. <오분자기>는 떡조개의 濟州語.

전복·소라·섬계 등을 채취하는 일을 두루뭉수리로 묶어서 <헛물>, 또는 <허무레>라고 말한다. 이에 대칭되는 표현으로 우뚝가사리 채취를 <우미무레>, 미역 채취를 <메역무레>라 표현한다. <헛물> 가운데에서도 그날의 주요한 채취물을 강조할 때에는 <오분작무레>, <성계무레>라 일컫기도 한다.

## 6. 海女漁場

海女作業과 漁場과는 어떠한 상관에 놓여 있으며, 그 義務와 權利를 둘러싼 慣行은 어떠한가. 海女漁場에 따른 慣行은 이 글에서도 法社會的 考察에서 논

12) <암침복>(雌鰓)은 둥굴넓데데하고 색이 좀 회멀건 편이면서 이쁘장한가 하면, <수침복>(雄鰓)은 색이 거무죽죽하여 살찌고 껍질이 움푹한 꼴이다.

의되고 있고, 이제까지도 일부 고찰한 바 있으나,<sup>13)</sup> 그 課題는 술하다. 여기에서는 裸潛漁場의 性格과 해녀와의 상관 및 漁場管理를 위한 해녀들의 義務를 논의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해녀들에게 바다는 곧 삶의 터전이요 生命源이다. 바다는 삶과 直結되기 때문에 사시사철 해녀들이 쏟는 관심이 유별스럽다. 漁村社會에서 바다에 얼마나 관심을 쏟는가 하는 그 強度는 沿海에 불쭙불쭙 솟아 있거나 물속에 잠겨진 岩礁, 곧 여의 이름이 海村마다 술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도 이내 증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北濟州郡 舊左邑 杏源里 앞바다만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30가까이의 여가 있는데, 주민들은 그 여 이름을 순식간에 異口同聲으로 나열할 만큼 어렵히 기억한다.<sup>14)</sup>

석은녀 · 흰돌코지 · 솟고냉이 · 북테기소 · 망마로코지 · 하나질성창 · 상자릿녀 · 물탄녀 · 노린녀 · 오즈여 · 넙은녀 · 알넙은녀 · 개굴녀 · 만선녀 · 송어통바우 · 셋집은녀 · 개굴녀 · 모서여 · 남당알 · 등대알 · 느르코지 · 한갓목 · 닳겨린녀 · 아침개 · 지방녀 · 개대가리 · 지픈개 · 한모살

이러한 여이름의 命名에는 그나름의 뜻을 머금기도 한다. 개의 머리 비슷하게 생겼기에 <개대가리>라 한다거나, 水深이 깊은 곳에 있으며 <지픈개>라 하고, <남당>이라는 할망당(巫俗儀禮의 神堂) 북쪽에 위치했으므로 <남당알>이라 일컫는 따위다. 言語는 곧 사람삶에서 우러나는 關心의 表象임이 實證된다. 물속 사정을 그림을 보듯 속속들이 파악하는 해녀들은 어느 여의 어느쪽 바닷속은 어떤 모습이고, 거기에는 전복과 소라가 어느 만큼 혼한 사실까지도 파악하는 수가 있다. 가끔 혼자만이 은밀히 알고 있는 전복 棲息處가 있기도 하지만, 이는 반드시 그의 딸이나 며느리에게 인계되지도 못한다.

해녀들로서는 漁場이 곧 발의 延長이다. 농사를 짓는 물의 발만이 발이 아니

13) 高翔龍, 「韓國의 入漁慣行權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 大學院, 2967.

金斗熙 · 金榮敦, “海女漁場紛糾調查研究: 海女入漁慣行의 實態와 性格分析을 中心으로”, 「논문집」 제14집, 제주대, 1982.

14) 1985년 8월 舊左邑 杏源里 이만행(남·49) · 고윤석(남·48) · 문도석(남·55)을 대상으로 필자 조사.



라, 漁場 또한 그들의 밭이다. 裸潛漁場, 곧 海女漁場은 해녀들의 소중한 生業道場이며, 法的으로도 第一種共同漁場으로 규정해서 이를 보호하고 있다. 곧 第一種共同漁場이란 水産業法施行令 제11조 2항에서 最干潮時 水深 10m 이내 (海藻세리網漁具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m 이내)의 水面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해녀들은 해녀의 바다, 곧 第一種共同漁場을 그들의 집안이나 마당처럼 관념한다. “모자반덩일랑 집을 삼고, 놀고갸랑 어머니를 삼아서” 바다와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이 그들이 櫓를 저으며 부르는 <해녀노래>에서도 불쑥불쑥 드러난다.

- 몸짱으랑          집을삼앙
- 늦고갸랑        어멍을삼앙
- 요바당에        날살아시면
- 어느바당        걸릴웨시라

(拙著：「濟州島民謠研究(上)」, 816번의 자료)

- <語釋> 모자반덩일랑      집을 삼아
- 늦고갸랑            어머니를 삼아
- 요 바당에          내 살았으면
- 어느 바당          걸릴 리 있으랴

海原에 너풀거리는 모자반덩이를 집을 삼는다 함은 물질하는 바다를 운동 집안처럼 관념함이다. 따라서 해녀들은 제 집안 구석구석에 무엇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놓여졌음을 살살이 파악하듯이 바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아차릴 뿐더러, 海圖는 이미 머리속에 그려져 있다. 바닷속의 岩礁와 모래밭, 海流의 모습만이 아니라, 갖갖 海藻類와 魚貝類가 그나름의 生理와 個性을 지닌 채 살아가는 모습을 제 집안의 일처럼 親熟하게 파악한다. 늘 新鮮하기만 한 海底의 千態萬象을 관찰하는 일이란 물질의 갖은 辛苦를 잊게 하는 짜릿한 喜悅이라고 해녀들은 말한다.

主漁副農의 해안마을에서는 바다의 사정을 둘러싼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 가급적이면 넓은 共同漁場을 확보하고 해산물이 가멸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들의 日常的인 삶과 實利的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漁場은 본디 물의 밭과 달라

서 개개인의 所有權이 인정될 수 없다. 漁場은 마을, 또는 동네 단위의 共同所有일 뿐더러, 마을과 마을 사이, 동네와 동네 사이의 境界가 밭 경계처럼 可視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入漁境界를 둘러싸고 심심찮게 紛爭이 인다. 더구나 오랫동안 入漁해온 慣行權을 둘러싸고도 漁場紛糾가 일 수 있는 실마리가 꽤 潛在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一定海域을 둘러싼 紛糾, 한 事案만을 대상으로 그 背景과 近因, 發端과 進展, 妥結 및 住民生活과의 관련을 소상히 기록하더라도 육중한 부피에 이를 줄로 안다.

해녀들은 주어진 共同漁場에 入漁하여 해산물을 캘 수 있는 權利를 지니는 한편, 제 漁場을 알뜰히 가꾸어 나갈 義務를 진다. 잡다한 義務 가운데 古來로 내세울 만한 것은 우선 共同漁場에 떠오른 屍體處理와 개담기다. 지난날 제 어장에 떠오른 屍體處理를 외면했기 때문에 어장도 포기하게 된 사례를 가끔 본다. 예를 들면 北濟州郡 舊左邑 杏源里의 <더뎡이물>이란 바다는 본디 그 이웃의 漢東里의 바다였고, <개머리>란 바다는 원래 月汀里의 바다였는데도 杏源里의 주민들이 앞장서서 떠오른 屍體를 처리했으므로 杏源里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海女漁場의 개담기는 주민들의 水平的인 合議에 따라 충실히 치러진다. 개담기란 바다속에 쓰잘데없이 자라는 雜草를 제거하는 작업인데 이른바 “바당풀 캔다”, “물 캔다”고 말한다. 곧 <고지>·<듬북>·<노랑쟁이> 같은 잡초를 베어 버림으로써 우뚝가사리·툫 따위 필요한 海藻類가 잘 자라도록 하는 조치로서, 말하자면 논밭의 김을 말끔히 매는 일이나 한가지다. 소섬의 경우는 음력 1월 그믐에서 2월초승 및 秋夕이 끝난 음력 8월말 두번에 걸쳐 <바당풀>을 캔다. 이 작업은 海女會(僮嫂會)가 주관하는데, 15세~16세 사이의 해녀로서는 철저히 義務的이다. 앵간한 疾病中이라도 이 共同作業의 義務를 외면할 수는 없다. 重症일 경우라도 罰金 반액을 내야 하고 輕症일 때에는 闕席으로 간주해서 罰金 전액을 바친다.<sup>15)</sup> 만약 移住해 오거나 해서 <바당풀>을 안 캐고, 그 해에 우뚝가사리를 캐려 할 때에는 소위 <이베리>라 해서 더 많은 액수를 내야 入漁할 수 있다. 그 義務와 罰金額은 동민의 民主的 合議에 따르기 때문에 소섬의 경우 11개동마다 좀 다르다. 베어 버린 잡초는 거둬 쌓았다가 보리를 파

15) 1985년 8월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소섬 東天津洞의 경우 <바당풀> 캐기를 한번 闕席했을 때 그 벌금은 1만원이었다.

종할 때 밭에 깔아 밑거름으로 쓰이기도 하고 바닷물에 그냥 흘러 버리기도 한다.

## Ⅱ. 海女の 出稼

濟州海女들은 단지 제주연안에서만 물질해 온 것이 아니고, 東北아시아일대에 進出했었다. 그들은 곧 韓半島의 각연안과 섬들은 물론이요, 日本의 여러 지방 및 中國과 소련의 바다에까지 물질나갔었다. 지금도 韓半島 漁場에는 일부 出稼한다. 19세기말부터 제주해녀들은 釜山 등지에 물질나가기 비롯해서 1세기 동안 日本 바다의 곳곳을 누비고, 山東省 靑島나 大連 등의 中國 바다에까지, 심지어는 소련의 블라디보스톡까지 나갔었으니, 그야말로 東北아시아 일대의 바다가 제주해녀들에게는 그대로 그들의 마당이요 밭이요 들판이었던 터이다.

고향을 떠나 낯선 他郷으로 出稼하는 일을 그들은 흔히 <물질나간다>, 또는 <물질간다>고 한다. 어찌하여 제주해녀들은 정든 山川을 버리고, 오랜 세월 千里他郷으로 물질나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더 나은 收益을 얻기 위해서다. 제주도 연안에는 水産資源이 한정되었는데다가 出稼對象地에는 가멸진 資源이 바다속에 깔렸는데도 이를 갠 만한 해녀가 별로 없기 까닭이다. 그들은 첫봄에 20명내외씩 집단을 이루고 섬을 떠나고, 6개월쯤 낯선 땅에서 물질하다가 秋夕 직전에 돌아오곤 했다. 1910년대에 와서는 韓半島로 出稼했던 제주해녀의 수효가 2천수백명에 이르렀었고, 해방후에는 急增하여 5천명을 넘어섰는데, 그 수효는 20여년간 이어졌었다. 韓半島의 중요한 出稼對象地는 慶尙北道の 九龍浦·甘浦·良浦 일대였다. 많은 해녀들의 出稼入漁가 오래 끌어 가자, 慶尙北道の 이 지방과 제주도와의 사이에는 入漁慣行을 둘러싼 騷擾가 시끌시끌하게 일어 入漁慣行權消滅確認訴訟을 내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sup>16)</sup> 日本 出稼는 20세기초에서 1945년까지 이어졌었는데, 主要出稼地는 對馬島를 비롯

16) 康大元, 「海女研究」, 韓進文化社, pp.132~140, 1973.

하여 靜岡·東京·高知·長崎·鹿兒島·千葉·德島·愛媛·島根 등이었다.<sup>17)</sup>

國內外에 걸친 제주해녀의 出稼는 그 行動半徑이 너무나 넓고 다양하였으  
 매, 그 實相을 파악, 정리하기란 쉽질 않다. 그 조사항목도 술할 뿐더러, 고찰  
 할 視角도 갖가지다. 장차 어떤 觀點에서 深層的으로 접근하든, 우선 첫단계로  
 서는 事例調查부터 착수하는 게 순서인 줄 안다. 그 조사기록은 歸納的으로 해  
 녀의 出稼實態를 밝혀 줄 것이며, 해녀들의 유다른 獻身沒入度를 살피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다. 그런 필요에서 여기에서는 해녀 개개인의 生涯歷(life  
 history)과 더불어, 그 出稼經驗을 소개하기로 한다. 해녀질을 극성스럽게 치  
 러 왔을 뿐더러, 물질나가기를 여러 차례 거듭했던 해녀 몇을 택하기로 한다.

## 1. 海女出稼事例(①~⑤)

### [海女出稼 事例 ①]

- 조사일자 : 1985. 8. 23.
- 조사지 :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소설) 1750-6
- 제보자 : 조완아(女 71세,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 東天津洞)

北濟州郡 舊左邑 下道里에서 태어나서 16세에 결혼했다. 얼굴도 못본  
 채 부모가 마련한 婚處였는데, 남편은 一字無識이라 헤어지고, 소섬 분과  
 再婚하여 6남매(아들 1, 딸 5)를 슬하에 두었다. 부디 9남매를 두었었으나,  
 아들 셋은 여의었다. 열두질(‘질’은 길, 12장이면 11m96cm)물질했을 만큼 그  
 技倆이 出衆한 해녀다. 조노파가 열살쯤인 때에는 눈(水鏡)을 안 쓰고 작  
 업하는 해녀들도 이따금 보였다. 조노파도 어렸을 때에는 水鏡을 안 쓰고  
 물질했었는데, 그 당시엔 水鏡이 귀했을 뿐더러, 세 눈에 알맞는 水鏡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조노파는 16세인 처녀때에 對馬島에 出稼하기 비롯해서, 18세에는 오빠  
 의 인연을 따라 북한의 淸津에 물질나갔었고, 24세에 黃海道, 27세에 忠淸

17) 金榮敦, “濟州島 海女の 出稼”, 「石宙善教授回甲紀念民俗學論叢」, pp. 307~324, 1971.

도를 다녀왔다. 첫出稼는 <초용>이라 하는데, 16세(1930)에 對馬島로 <초용>으로 나갈 때에는 친정인 下道에서 화물선을 타고 일본인 인솔자를 따라서 5일만에 도착했었다. 음력 3월에 나가서 6개월 살고 秋夕 직전에 귀향했었다. 對馬島에서는 <뱃물질>을 했었으며 주로 소라·전복·미역을 캐었었다. 해녀들은 서너사람씩 제각기 짝을 지어 自炊하며 지냈었다. 그곳 주민들의 人心은 따뜻했고 고구마 절간가루로 만든 음식 등을 받으면, 해녀들은 스스로 캔 해산물로써 答禮하곤 했었다. 그곳에도 해녀들이 있었고 男子들도 팬티만 입고 海水浴하듯이 얇은 물에서 물질하고 있었다. 海士들이 물질하는 모습은 서툴러 보였으며, 서로의 紛糾은 없었다. 한달에 15일 내지 20일 작업했었는데, 對馬島의 바다는 물속이 흐렸었다. 조노파는 단한번 對馬島에 出稼하여 1백량을 벌어들여 6백평의 밭을 살 수 있었는데, 보람되게도 이 밭은 다음에 돈을 모아 덧붙이고 1천5백평의 밭을 사서 바꾸게 되었다.

24세 때(1938) 黃海道에 물질나간 곳은 지금의 휴전선 가까이였다. 15일간 배 위에서 생활하면서 이 섬 저 섬을 돌며 이른바 <난바르>를 했었다. 조노파가 <난바르>한다고 바로 배에 타서 물질을 시작하려 옷을 갈아 입을 때 심한 産痛을 느끼더니 애를 분만했다. 해녀 일행 12명과 船主, 機關長, 사공 3명, 도합 15명이 일부러 <난바르>를 나선 길이라 조노파 혼자만의 사정 때문에 回航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바람도 거세어서 배 위에서 그대로 조섭하면서 지낼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그 때 분만한 애는 만딸인데 잘 자라서 지금 48세나 되었다. 이른바 <난바르>라면 여러날 下船하지 않고 船上生活이 이어지므로 宿食도 배에서 치렀다. 배 위에 화덕을 꾸며 장작을 때어 식사를 해 먹고 불도 배에 올라 쪼곤 했다. 조노파의 다리에는 이제도 장작불에 댄 자국이 거뭇거뭇 남겨졌다. 밤이 되면 알맞는 갯가를 찾아 寄港하고 잠을 잤다. 물질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부자리도 그냥 둔 채 조반을 먹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아침 10시쯤 되면 船主가 줍쌀로 미움을 쏘아 나눠 주었고, 물질은 저녁때까지 이어졌다. 줍쌀밥도 제때에 배블리 먹을 수 없어 목숨 걸고 갖은 辛苦를 견뎌냈다. 그곳에서는 소라·전복·합자·해삼 등을 주로 캐었다. 龜岩主는 일본인이었고 채취한 해산물은 仁川에 가서 팔곤 했다. 그곳에 해녀는 없었고, 이따금

남자들만 팬티를 입고 물질하는 모습이 신기하게 보였다. 그 남자들은 <테왁>이나 <망시리>도 준비함이 없이 나뭇조각으로 임시 신주머니처럼 꾸민 것을 <테왁> 代用으로 쓰고 있었고, 採取物은 그냥 손에 들고 나오곤 했다. 4개월 살고 예정보다 한달 앞서서 30톤의 화물선을 타고 莞島를 거쳐 돌아올 때에는 무려 28일 동안이나 걸렸었다. 아기를 데리고 나갔던 한 해녀는 莞島바다에서 애를 배에 두었다가 그만 물속에 빠뜨리고 가까스로 구출했던 애처로운 일도 겪었었다. 조노파는 받은 바 없지만, 그 때 인솔자는 해녀들이 出稼하기 앞서 前渡金을 내주곤 했었다. 미리 前渡金 일정액을 받고 나간 해녀 가운데는 그 前渡金 액수만큼 벌지를 못할 때 歸鄉시키질 않고 人質로 묶이게 되는 딱한 경우도 목격했었다.

27세(1941)에는 忠淸南道에 물질나갔었다. 船主는 일본인이었고 인솔자는 제주 남자였는데, 인솔자는 나중 그곳에서 사공으로 일했다. 舊左邑 終達里의 해녀는 애를 데리고 함께 갔었다. 어느날 물질하고 돌아와 보니, 두고 갔던 애가 종적없이 사라져서 해녀들 모두가 마을 안과 바닷가를 샅샅이 뒤졌었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다. 바람이 불거나 <웨살>로 물속이 어두워질 때에는 물질을 쉬었는데, 주민들의 모심기를 돕거나 들에 나가서 뽕감을 마련해 오기도 했다. 역시 봄에 나가서 秋夕 직전에 돌아왔는데, 주로 우뭇가사리를 캐었고, 入漁料네, 무슨 手數料네, 배삯이네 공제하다가 보면, 해녀들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實收入은 수입총액의 3분의 1쯤이었다. 우뭇가사리를 저울질할 때에는 不正檢斤이 이뤄지는 줄 알았었지만, 不可抗力이었다. (조노파는 해녀자신의 人權伸長을 위해서도 해녀들 모두가 기초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力說한다.) <1반초>, <2반초>의 우뭇가사리 채취가 끝날 때마다 회계되었지만, 해녀들 일행은 거의 歸鄉할 때 一時支給을 받았다. 出稼地에서는 가끔 집단오락도 열렸었는데, 푸짐하게 고기를 마련해서 노래 부르기를 즐기기도 했었다. 물질을 나갔다가 그곳 남자와 결혼하는 여인도 가끔 생겼었다. 물질 나갈 때에는 海女器具는 물론이요 보리쌀 15말~20말(小斗), 된장, 이부자리 등을 챙겨 갔었는데, 갖고 간 쌀이나 간장, 부식 따위가 모자라면 그곳 주민들과 物物交換으로써 보충곤 했었다.

딸들은 부산 등지에서 식당과 다방을 차려 잘 살므로 조여인을 동네에서

는 ‘부산할망’이라 일컫는다. 가끔 부산에 나갔어도 방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답답하기 이룰데 없어 고작 한달쯤 살다가는 歸郷하곤 한다. 지난 날 해녀를 모집해 인솔하기도 했던 남편은 여의고 지금은 혼자 지내는데, 勤儉·自立의 생활습관이 몸에 배어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별 어려움은 없다. 지금은 社會改變으로 사람살도 썩 편리해졌거니와, 해녀작업만 해도 고무옷·오리발을 갖춰 물질을 하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고, 요새 태어나지 못했음이 썩 안타깝다고 지난날의 千辛萬苦를 회고한다. 조노파는 <해녀노래>를 비롯한 노동요도 썩 잘 부른다.

### [海女出稼 事例 ②]

- 조사일자 : 1985. 8. 23
- 조사지 :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 西天津洞 고동환씨
- 계보자 : 김효형(女, 79세,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 西天津洞)

소섬, 곧 舊左邑 演坪里 西天津洞 洞長 고동환씨의 모친으로서 함께 산다. 15세에서 32세까지 18년간 韓半島의 각연안과 對馬島에 出稼했었다. 오랜 세월 거의 해마다 물질 나갔었으므로 다녀온 곳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다. 18년 동안이나 바깥물질을 다녔었으나, 57세에 질병으로 여원 남편의 身病 뒷바라지 등으로 보람되게 발뺌기를 마련하거나 하지는 못했다. 出稼할 때마다 해녀들의 수입은 각종 수수료와 생활에 따른 잡비 등을 공제하다가 보면 實收入의 3분의 1쯤이 해녀들에게 지불되었었으며, 빚을 내고 돌아오는 해녀들도 적지 않았다.

얼른 기억되는 出稼地域으로는 慶尙北道 울산·당포·서성·강구·구룡포와 全羅南道의 옥지도·소리도·우왕리·보길도 및 忠淸南道·黃海道와 對馬島 등지다. 黃海道에 나갔을 때에는 이른바 <난바르>로 中國의 大連 물질도 겪어 봤다. 出稼地와 왕래하는 데는 주로 돛배를 이용했었으며, 제주에서 직접 출발하기도 하고, 가끔 蠶岩主(錢主)가 돛배를 갖고 와서 실어 가기도 했다. 出稼地까지는 보통 사흘이면 닿곤 했다. 식량은 보리쌀로 3말~10말 쯤(小斗) 준비해서 나가기도 했고, 그대로 가서 그곳서 사 먹기

도 했다. 이불은 간편한 <뚜테기>를 가져 갔었는데, 물질을 한번 마쳐서 배에서 불 쬐 때 뒤집어 쓰기도 하고, 밤에 잠잘 때 덮기도 했었다. 어린 자식을 데리고 물질갈 때가 흔했으며, 그 자식들도 이제는 40대 후반에서 환갑에 가깝다. 자식들은 더러 서울에도 살아서 비행기도 여섯번이나 타 보았음을 자랑스리 여기고 있다.

黃海道로 나갔다가 遼東半島의 大連까지 물질했던 것은 35세때(1941)였다. 돛배를 타고 黃海道로 나갈 때에는 밤이면 알맞은 포구에 寄港하곤 했는데 船主는 黃海道 사람이었고, 인솔자는 제주 사람이었다. 黃海道를 근거지로 해서 그날 그날 아침에 大連으로 나가서 물질하다가 저녁때 돌아 오곤 했었다. 그때에도 세째아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 아들은 지금 49세나 되었다. 그곳에서는 오로지 전복만 캐었었는데, 그곳 전복은 자갈했고 소득은 시원칠 않았다. 大連에서는 作業漁場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물질하곤 했다. 그곳 물속은 어두컴컴했고, 해녀들이 없는 반면, 남자들의 작업이 극성스러웠다. 2·30대의 남자들이 서넛씩 배에 타서 물질하면은 부인들은 채취물을 저나른다든가 열심히 뒷바라지하곤 했다. 黃海道에는 4월에 나갔었지만, 大連 물질은 5월이 돼야 본격화되었다. 大連 물질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黃海道와 忠淸南道 사이에서 <난바르> 물질에 들어갔었다. <난바르> 물질이란 며칠동안 배 위에서 宿食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작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때에는 한번 물질나가고 6개월쯤 살아서 귀향할 때에 1백량을 벌면 수월찮은 수입으로 컸었다. 귀향할 때에는 흔히 옷을 사고 가족들에게 선사하는 게 價例였다. 늘 돛배를 탔었는데, 바람이 자거나 거슬러 불 때에는 열심히 櫓를 저었다.

### [海女出稼 事例 ③]

- 조사일자 : 1985. 8. 23.
- 조사지 :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소섬) 1750~6
- 제보자 : 김춘산(女 48세,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 東天津洞)

17세부터 12년간 韓半島 일대를 누비다시피 물질을 다녔다. 17세에 <초



용>(처음으로 물질 나가는 일)으로 釜山 동삼동에 나갔음을 시초로, 18세에 閑山島 가옥도, 19세에 閑山島 매물도로 나갔었고, 20세에는 江原道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蔚山을 들렀었다. 21세에는 統營 중화도에 나갔었고, 그해에 결혼도 했다. 22세에 全羅南道 청산으로, 23세에는 年初에 부산 남천동에 나가서 3개월간 물질하다가 봄이 되자 慶尙北道 구룡포·대보지방 일대로 올라가서 물질했었다. 이 구룡포·대보 지방에는 그후 3년간 연거푸 出稼했었는데, 그 일대의 솔머리·구만·대천·삼정·강구미 지방을 누벼 다녔다. 26세에도 慶北 구룡포 남쪽 솔머리라는 곳에 나갔었고, 27세에는 全南 소완도를 다녀왔다. 세 살때 해방을 맞이했으므로 對馬島 등 日本出稼 경험은 없다. 김여인은 韓半島의 東海岸 일대와 全南 多島海를 살살이 거쳤었으며, 이제 出稼했던 곳을 다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出稼는 대체로 돛배를 이용했었다. 19세에 매물도로 나갈 때에도 역시 돛배를 탔었는데, 그만 거센 風波에 휘말리어 九死一生으로 목숨을 건졌었다. 고향에서는 다들 沒死했다는 소식까지 번졌을 정도였다. 또한 釜山 앞바다에는 침몰한 배가 물속에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었으며, 그곳에 홍합 따위가 자라나서, 이를 캐던 해녀들이 위험에 직면했던 일도 있었다. 곧 험난한 船體 안까지 들어가 過欲해서 작업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었던 일이다. 물질 나갈 때마다 배를 짚는 고생이야 겪었지만, 그런대로 산뜻한 보람도 있었다. 이른바 <초용>이라고, 釜山 동삼동에 첫물질을 다녀 오면서 번 2천원이 바탕이 되어 5천원짜리 발한마지기를 산 일이다. 번질나게 육지를 드나들었지만, 입쌀밥을 먹어 본 일은 없다. 언제나 물질나갈 때 가지고 간 좁쌀 몇말로써 粗食, 忍苦했었다. 勤儉質朴으로 일관해서 찬거리라고 따로 마련할 엄두도 내질 못했다. 絶海孤島에 갇혀짐으로써 애써 副食을 마련하려 해야 不可抗力이었다. 식사는 좁쌀밥과 된장이 고작이어서 김장정도도 마련할 수가 없었으며, 게다가 된장마저 떨어질 경우엔 캐어 놓은 홍합과 멧게 몇개 들고 마을을 찾아가서 된장과 바꾸곤 했었다. 배 위에서 며칠씩 宿食하며 이른바 <난바르>를 할 적에는 가끔 食水가 모자라서 큰 고생을 겪기도 했었다. 별이가 그런대로 괜찮았을 때에는 崔岩主가 돼지를 잡고 잔치한 적도 있었고, 일행들이 함께 觀光하기도 했었다.

漁獲高 총액 가운데, 해너들에게 실제 지불되는 액수는 35%쯤이었다. 舊岩主에게 돌아가는 여러 명목의 수수료가 50%, 나머지 50% 가운데서 <뱃물질>할 때 사공에게 지급되는 비율이 15%이었기 때문이다.

#### [海女出稼 事例 ④]

- 조사일자 : 1985. 8. 17.
- 조사지 : 北濟州郡 舊左邑 杏源里 1313
- 제보자 : 이도화(여 80세, 北濟州郡 舊左邑 杏源里 1313)

杏源里에서 태어난 이노과는 슬하에 딸만 아홉을 두었다. 이노과가 사는 杏源里는 해너들에 따른 裸潛漁業이 극성스런 마을로서 해너들에 의한 漁獲高가 농사수입에 비해 갑절에 이른다. 제주도내에서도 농토가 메마르고 家口當耕地面積이 비좁으므로 주민들의 삶은 바다에 의존하는 율이 높다. 第一種共同漁場도 杏源里 소유를 자치적으로 三分해서 <앞바당>·<뒤터지>·<버멍이>라 부르는 海域을 각각 2개반이 한 海域씩 순번제로 관리하고 그 海域 안에서만 採取權을 지닌다. 세바다의 구분을 어렵히 하기 위해서 이 마을에서는 해너들의 <태왁>색을 赤靑白 3색으로 자율적으로 정해 놓았다는 점에서도 해너작업에 대한 熱意를 짐작케 한다.

15살에 해너질을 시작해서 60세까지 이어왔던 이노과는 20세에서 몇년 동안 釜山·蔚山 및 多島海 등지에 물질나갔었다. 고생스런 번 돈은 서울에서 고향했던 5살 밑의 남편의 학비로 충당했었다. 당시엔 遊學하는 일이 드물었으므로 물질나가서 얻은 수입을 남편의 학비로 쓰인 사례는 특수하다. 이노과는 19세에 결혼했는데, 여윈 남편의 연령은 고작 14세였다. 당시엔 두세해 물질다녀 오면, 7백평~1천평의 밭 한뼉기씩을 살 수 있었다 한다. 일행은 2월이나 3월에 물질나가서 秋夕 직전에 돌아오곤 했었는데, 보리쌀과 좁쌀을 제각기 20말쯤(小斗) 실어 가곤 했었다. 해너를 실은 돛배가 이 쌀 무게에 눌리어 바닷물에 잠길 듯했었다. 쌀을 이처럼 술하게 실고 갔던 것은 辛苦萬狀을 견디며 버는 돈을 備蓄하려는 뜻이었다. 돛배로 나갈 때에는 열심히 櫓를 저으면서 <해너노래>를 부르곤 했었다. 세차게

거슬러 부는 바람을 이른바 <한전>이라 하는데, 이때에는 심한 멀미를 이기기 힘들었다. 船主는 돼지 한마리를 犠牲하여 배에 실어 가다가, 怒濤로 이름난 바다 <사서와당>에 이르게 되면 告祀를 지내곤 했었다. 한배에는 10~20명이 同乘했었고, 이불은 그 당시 出稼地에서 사들일 수가 없었으므로 반드시 마련해 갔었다. 方魚津까지는 3일, 唐浦까지는 5일쯤 걸렸었는데, 밤에는 알맞은 곳에 寄港하곤 했었다. 5~6인씩 宿食을 함께 했는데, 장작은 船主가 한배 가득 사들여다가 나눠 주곤 했었다. 바다의 사정에 따라 한달 10일에서 20일쯤 물질했었는데, 주로 <뱃물질>을 했다. 歸郷時엔 부모형제에게 옷이나 고무신, 바늘 등을 사다가 선사하곤 했었다. 그의 남편은 학업을 마치고는 19세부터 사업을 벌였었는데, 이노파는 寒天工場을 경영하는 남편을 따라 淸津까지도 다녀온 일이 있었다. 당시의 젊은 여인들로서는 海女出稼가 피할 수 없는 生計手段이었고 삶의 방법이었다는 게 이노파의 견해다.

#### [海女出稼 事例 ⑤]

- 조사일자 : 1985. 8. 18.
- 조사지 : 北濟州郡 舊左邑 杏源里 웃동네
- 제보자 : 강미춘(女 64세, 北濟州郡 舊左邑 杏源里 웃동네)

親庭은 舊左邑 下道里인데, 17세에 <애기上軍>(나이 어린 上軍海女)이 될 만큼 물질에 능란하다.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는데, 모두 서울에서 산다. 12·3세에는 친정인 下道에서 夜學修學을 했었고, 그때에 은밀히 배운 <海女歌> 등을 아직도 어렵히 기억하고 있으며, <해녀노래> 등 민요도 능숙하게 부른다. 17세에 蔚山·성외·목섬을 <초용>(첫 出稼)으로 나가기 시작해서 20수년간 국내외를 누벼 다녔다. <초용>으로 나간 蔚山 목섬에서는 3년간 눌러살았었고, 23세에 日本, 24세에 江原道 당진, 26세에 閑山島 대섬, 33세에 忠淸南道 안흥 앞섬, 34세에 巨濟島 등에 나갔었으며, 36세에서 2년간은 해운대 옆 해창에 살면서 물질했었다. 그 술한 出稼生活 가운데에서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은 24세때 이북에서 해방을 맞아 九死

一生으로 월남했던 일과, 33세에 忠淸南道에 나갔을 때 白翎島를 거쳐 小靑島에 이르러 작업하다가 風浪으로 배가 침몰해서 몇 친구들을 여윈 사건이다.

蔚山 성외·목섬으로 17세에 첫 出稼할 때에는 인솔자를 따라서 발동기로 나갔었다. 두가마니에 좁쌀 10말(小斗)씩을 넣고, <대마리구덕>이란 커다란 바구니에 좁쌀 5말(小斗)을 넣는 등 넉넉한 식량과 海女器具, 食器, 이부자리 등을 야단스럽게 챙겨서 떠났었다. 出稼時의 채비란 늘 이처럼 번거로웠고, 出稼生活 역시 質朴했다. 새벽에 별을 보며 시간을 가늠하고 첫닭이 울면 깨어나서 서둘렀어야 먼 漁場으로 나갈 수 있었다. 식사는 좁쌀밥과 된장이 고작이었는데, 그것도 배위에서 떨어지는 몸을 꺾면서 먹는 게 보통이었다. 出稼地에 이르면 작업하기 앞서 일행은 날짜를 택일하고 祝言하면서 입쌀을 백지에 싼 <지>를 바다에 던져 龍王에게 致祭했었다. 그때 강여인은 첫 出稼인데도 그 漁獲高가 일행중 세번째여서 막걸리 한통으로 일행에게 한턱내었던 게 즐거운 추억이 된다.

東京 곁 하시마라는 자그만 섬에 어린 딸애를 데리고 君代丸을 타서 나갔던 것은 23세였다. 그때는 증명을 갖추면서 杏源에서도 20명이나 동행했었다. 韓半島 出稼와는 달리 빈 몸으로 나가면, 그곳에서 海女器具를 내주었고, 3월에 나가서 8월에 귀국했었다. 우뭇가사리만 캐어 <물우미> (말리지 않은 우뭇가사리)로 팔았었고, 전복이나 오분자기(떡조개)는 채취하지 못하게 했다. 日本 海女들은 해녀 1명에 작업을 돕는 남자 1명씩 실은 배 2·30척이 가지런히 나가서 작업하곤 했다. 바다에서 다툼이 이는 일은 없었으며, 日本 海女들은 가끔 出稼 海女들과 함께 불을 피곤 했다. 日本 海女들은 부부동반해서 물질했고, 남편은 배위에서 기계를 조작했는데, 이른바 <기릿물질>(フナド, フナモグリ)이라 했다. 出稼 海女들은 <테왁> 대신 <담뽀>를 썼으므로 <담뽀물질>이라 일컬었다. 兵傭처럼 방이 여럿 달린 집에 인솔자와 출가해녀 모두가 함께 지냈었는데, 식사는 콩 섞인 쌀밥과 고구마가 위주였다. 뇌선 따위의 藥은 먹은 바 없다. 韓半島 出稼때와는 달리, 海女班長을 두는 일은 없었으며, 인솔자가 작업과 생활 일체를 거들었다. 데려간 어린애는 고향에서 함께 간 업저지가 돌봐 주었다. 그 수입은 韓半島 出稼때나 별다름없었는데, 1백원이면 자그만 밭 한뼉기를 살

수 있었던 그때 강여인은 50원을 벌었었다.

해방되던 해, 곧 24세에는 벌이가 좋다 해서 이북땅 江原道 당진으로 나갔었다. 자그만 發動船으로 당진을 도착하기까지는 風波를 만나서 9일간이나 시달렸었다. 그곳에서는 섬계·전복·미역 따위를 캐었었는데, 그런대로 벌이는 괜찮았었다. 8월 15일, 해방을 出稼地에서 맞이하였고, 일행 6명과 함께 越南하느라 死境을 해맨 일이 지금도 회고하면 惡夢 같다. 6일간을 밤낮으로 걷다가 신발이 헤어지자, 쓰다 버린 車體에 올라 시트를 잘라내어 발에 묶어 신발을 대용했던 일, 몇차례 소련군에게 저지당하여 공포에 떨던 일, 캄캄한 밤에 목숨 걸고 渡江하던 일 등은 생각만 해도 등이 오싹하다. 번 돈 1만원으로 서울에 와서는 크림을 한 드럼통 사고 귀향해보니, 집안에서는 살아서 오리라고 믿질 않고 있었다.

33세에 忠淸南道 안흥 앞섬 신진이란 곳에 나갔던 때에도 큰 사고를 겪었었다. 杏源里에서는 넷이 동행했었는데, 그곳은 水溫이 너무 차가와 한 번은 울며불며하더니 出稼期間中에 歸郷해 버린 일마저 있다. 추위와 싸우며 하루 4·5회 入漁하기란 모진 苦役이었는데, 미역과 전복을 캐던 그곳 물질은 음력 7월이면 마감되었다. 그대로 歸郷하기란 아쉽고 해서 仁川에 가서 어렵게 證明을 얻고 돈벌이가 썩 좋다는 白翎島로 갔었다. 白翎島 바다에는 메밀꽃이 필 때면 그 냄새를 맡고 사나운 고기가 나타나서 人命을 해친다는 소문이 번졌었다. 따라서 아침마다 入漁할 때에는 불안했으나, 그렇다고 주어진 生業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전복은 술하게 잡혔으나, 물밑이 지나치게 어둡고 군인이 주둔한 要塞地라 불편하기도 해서 小靑島로 옮겼었다. 小靑島 바다에서는 작업도중 모진 突風을 만나 배가 破船되는 큰 事故에 직면했다. 그때 船主와 동료해녀 1명을 여의었는데, 여원 해녀는 忠南으로 가서 장사를 치렀었다. 그 무덤에서는 늘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었는데, 나중 고향으로 移墓했다. 강여인의 그 숭한 出稼 經歷을 통하여 喜悅이 있었다면, 가는 곳마다 바다 모양이 千態萬象이요, 해산물, 특히 貝類의 生理가 제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이상 제주해녀들의 出稼事例 몇을 간편하게 살펴 보았다. 이런 사례를 살살이 기록해 놓는다면 엄청난 부피에 이를 터인데, 世態의 急變과 海女の 激減에

직면한 오늘날, 이는 우리의 시급한 과제다. 現場調査에 따른 이런 기록은 海女出稼에 대한 立體的인 자료로서 활용될 뿐더러, 이들의 生涯歷을 통해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까무러쳐져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살의 모습을 살필 수 있게 된다. 곧 우리는 이상의 몇가지 사례에서 해녀들의 出稼準備, 出稼過程과 船便, 航路에서의 告祀, 出稼期間과 出稼對象地, 出稼地에서의 宿食方法과 生活樣相, 採取物, 물질 모습, 出稼에 따른 收益과 그 用途, 出稼期間中 부딪치는 苦難과 事故 및 보람, 出稼海女の 權益, 齧岩主와 인솔자의 기능 등 그 共通分母가 밝혀진다. 앞으로 質疑事項 項目이 더욱 치밀하게 細分되고, 그 조사가 深層的으로 本格化되어야 할 課題가 무척 쌓였다. 어차피 이상 몇해녀의 出稼經驗만 보더라도 東北아시아 일대의 바다에까지 제주해녀의 生活半徑은 뻗었다고는 사실과, 그들의 生業에 대한 獻身沒入度가 유다르게 강렬함을 이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2. 海女出稼引率事例(⑥~⑦)

제주해녀들은 韓半島 각연안과 일본에만 出稼했던 게 아니라, 中國 遼東半島의 大連과 山東省의 靑島, 소련의 블라디보스톡까지 나갔었다. 大連·靑島·블라디보스톡에 出稼했던 해녀들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블라디보스톡에 出稼했던 해녀로서는 北濟州郡 舊左邑 杏源里 578번지의 姜禮吉노파(89세) 등이 있으며<sup>18)</sup> 靑島 出稼는 소섬(舊左邑 濱坪里)의 文德進씨(作故)가 1940년대초에 소섬의 미역포자를 移植하고 採取物을 얻어 제주의 上軍海女들을 인솔해 가서 몇해동안 채취했던 일에서 연유한다. 1985년 8월, 南濟州郡 安德面 大坪里에서 出稼海女를 인솔하고 大連에 다녀온 姜應壽씨(남 78)와 그곳에 물질갔던 이찬옥노파(89)를 만났었다. 여기에서는 大連에 出稼海女를 인솔했던 姜應壽씨의 경험담과 靑島의 海產物 採取權을 얻어 제주해녀를 출가시키고 채취를 主導했던 文德進씨의 경우를 소개한다. 文德進씨의 경험담은 文씨의 靑島 進出을 도왔던 소섬, 곧 舊左邑 濱坪里 東天津洞에 거주하는 姜老燦씨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18) 「觀光濟州」 제6호, 月刊觀光濟州社, pp. 90~94. 1985.

## [海女出稼(引率) 事例 ⑥]

- 조사일자 : 1985. 8. 5.
- 조사지 : 南濟州郡 安徳面 大坪里 마을거리
- 제보자 : 姜應壽(男 78, 南濟州郡 安徳面 大坪里 849)

23세부터 10여년간 국내의 江原道·黃海道·慶尙北道の 각연안과 對馬島 및 中國 遼東半島 大連까지 제주 해녀를 인솔했었다. 23세에 江原道の 양양·대포지방으로 나갔을 때에는 귀향길에 海路를 잃어 寄港할 곳도 쉬 못 찾았고 물결이 거센 <사수와당>에서 풍파를 만나 死境을 헤맨 적도 있었다. 大連까지는 돛배를 타고 나갔었는데, 바다가 잔잔해서 3일 밤낮 항해하니 도착되었었다. 해녀들은 대체로 보리쌀 20말(小斗)과 <테왁>·<빗창>만을 챙겨 갔었다. 오직 전복만을 캐고, 우뭇가사리나 미역은 캐질 않았으므로 <중계호미> 따위는 불필요했었다. 그해 大連으로 나간 제주 해녀들은 도합 2십수명이었는데, 大坪里(조사 도중 大連으로 出稼했던 大坪里의 88세 된 이찬옥 노파가 합석했다.), 沙溪里와 翰林邑 瓮浦里 출신들이었다. 출가해녀들은 두셋씩 합숙하면서 자취했었는데, 국내와는 달리 言語不通이 꽤 困惑스러웠다. 水深은 얇은 편이었고 제주도나 對馬島와는 달리 전복은 자잘했다. 그곳 출신의 해녀들은 없었고 남자들만이 물질하면서 전복을 캐었는데, 박으로 만든 <테왁>을 쓰기는 했으나 자그만 것이었다. 또한 무자맥질하는 모습이 제주도 해녀들과는 달라서 <테왁>을 깔고 앉은 채 물속으로 潛入하고난 다음 헤엄치기 시작했다. 자칫 所管海域을 어길 경우면 그곳의 男性裸潛漁業者들이 우리의 해녀기구를 압수하는 등 분쟁이 일곤 했다. 우뭇가사리는 생산되지 않았고, 미역 養殖은 성공했었는데, 전복을 채취하는 기량은 그곳 남자들에 비하여 제주해녀들이 월등했다. 採取物은 馬車로 시장에 실어가서 판매했었다. 채취물은 鑿岩주가 1할, 배삯 1할, 사공삯 1할을 제하고 秋夕 직전 歸郷할 때에 해녀들에게 계산되었는데, 國內에 물질나갔을 때와 그 所得은 비슷했다. 쌀 1마지기 에 15원이었을 당시에 大連 出稼海女들의 수입은 최고 80원~100원이었

다. 大連은 물론, 그 당시 出稼地와의 往復은 주로 뱃길을 이용했었으나, 陸路를 피했던 까닭은 旅費를 아끼기 위함에서였다.

### [海女出稼(引率) 事例 ⑦]

- 조사일자 : 1985. 8. 22.
- 조사지 :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소섬) 1751-1
- 제보자 : 姜老燦(男 65세,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 1751-1)

여기에서는 소섬 출신 文德進씨가 中國 山東省 靑島에 創意的으로 海女出稼의 길을 터놓았던 사례를 소개한다. 소섬, 곧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 上牛目洞 1082번지에서 출생한 그는 學力도 없었으나 옹골지고 활달하였을 뿐더러, 社交的이며 開拓的인 眼目과 意志가 남달랐다. 일제때에 元山에 나가 사업하다가 실패하자, 단돈 50원을 밑천으로 釜山에서 여관을 차렸었는데, 애꿎어도 火魔가 덮쳤었다. 또한 對馬島에서 海産物 輸出加工業을 수년간 치르다가 不運은 잇따라 겹쳐 화재를 다시 만났다. 그럼에도 그는 까무러쳐지지 않고 오뎅이처럼 일어서서 中國 山東省의 靑島로 事業次 나갔었다. 그곳에는 해녀들이 없으므로 술한 우뭇가사리를 켤 수 없음을 보고 문득 고향의 해녀들을 想起했다. 그곳 바닷속에 미역이 없음을 보고 고향의 미역 移植을 創案했다. 미역은 아예 자라질 않았었고 우뭇가사리를 캔다고 해야 고작 남자 潛水夫들이 앉은 자세로 무자맥질해서 서툴게 켤 따름인 그곳 실정을 살피면서는 進取的인 그로서는 큰 충동을 느낀 터였다. 소섬의 미역포자가 자라는 돌들을 그곳으로 옮기고, 그 漁業權을 획득하려는 뜻을 굳혔다. 1933년에 귀국한 그는 미역포자가 붙은 돌과 전복 등을 싣고 靑島로 가서 移植하고 增殖事業을 벌였다. 2년후 전복 양식은 실패했으나 미역 移植은 성공했다. 그 採取權을 당시 그곳을 점령했던 일본 관헌에게서 획득한 그는 제주로 돌아와서 前渡金을 내주고 上軍海女 80여명을 싣고 갔었다. 그 上軍海女들은 소섬에서만 아니라, 舊左邑 終達里, 城山邑 古城里, 翰京面 龍水里, 安德面 沙溪里, 表善面 表善里 등 세



주도일원에 걸쳐 두루 모집했던 것이다. 그곳 中國人들과 日本 官吏들의 협조로 그의 사업은 순조로왔다. 5월에 靑島에 나가서 8월에 돌아올 때까지 미역과 우뭇가사리를 캐었던 出稼海女들은 3개월간 평균 3백원씩 수월찮은 수입을 올렸다. 당시 소학교 교사의 봉급이 40원이었으므로 꽤 많은 수입이었는데, 그곳은 인플레이여서 화폐가치가 폭락했었으나, 歸國하면 가치 있게 쓰였었다. 姜老燦씨는 1939년(19세)에서 5년간 靑島에 머물면서 文德進씨의 사업의 書記를 맡았었다. 出稼海女들은 靑島 往復時에 18톤의 發動船을 이용했었는데, 그 배는 어업조합과 경찰관서에 所定의 手續을 거친 다음, 소섬에서 出航했었고, 出航할 때마다 돼지고기 등 祭需를 차려 告祀를 치렀었다. 소섬에서 靑島까지는 發動船으로 55시간쯤 걸렸었다. 다행히도 바다에서 風波에 시달린 적은 없었다. 그곳은 남자 潛水夫뿐이 裸潛漁業에 종사했었는데, 온통 발가벗은 채 水鏡도 끼지 않고 앉은 자세로 潛水했었으며, 그 技倆은 우리 海女들과 견주어 썩 서툴렀다. 제주 해녀들이 靑島로 나가서 移植한 미역을 다량 채취하게 되자, 山東省 일대에서는 외국에서의 미역 수입을 중단하기까지에 이르렀었다. 해녀들이 그곳에 나가서 出稼生活를 하는 동안 주민들과의 알력은 없었다. 그곳에서는 바닷가에서 헤엄쳐 나가서 치르는 <갯물질>과 먼 바다로 배 타고 나가서 치르는 <뱃물질>을 함께 했었는데, 이른바 <난바르>라고 며칠씩 먼 바다에 나가 배위에서 지내면서 裸潛漁業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뭇가사리는 水草로 寒天工場에 직접 판매하였었는데, 해녀들의 實收入은 채취액의 50%쯤에 이르렀었다. 그곳 漁業權을 둘러싸고 일본인들도 탐내곤 했었으나, 중국측에서도 漁業權은 한결같이 文德進씨의 專有로 인정했었다. 그의 수입은 대단해서 이른바 돈을 가마니에 쌓을 정도였다는데, 그것도 해방이 되자 단 2년간의 채취로써 歸國하고 말았다. 해녀들과 함께 종사원 30여명(사무직원 6명, 현장종사원 4명, 선박종사원 20명) 역시 모두 귀국했다.

文德進씨는 귀국한 다음, 西歸浦에 定着하면서도 잇따라 사업을 벌였었다. 신서탄을 재배하여 이를 원료로 한 로프공장을 경영하기도 했고, 西歸浦市 吐坪洞에 대나무를 재배하기도 했었다. 하와이 교포한테서 파인애플을 기증받아 이를 西歸浦에서 재배해 본 일도 있었다. 1963년 作故했는데, 소섬의 중앙동 거리에는 그의 功績碑가 세워 있다. 슬하에 5남 6녀를 두었

는데, 아들들은 모두가 일본이나 서울, 부산 등지에 나갔다. 丈씨는 異國 中國의 山東省 靑島에 제주해녀들을 出稼하게 했던, 그 획기적인 동기를 마련했었다는 점에서, 進取的이고도 奇拔한 뜻의 實現은 기억할 만하다.

## V. 要 約

이상 제주도해녀를 經濟的 側面, 法社會學的 側面, 民俗學的 側面에서 現場 調査를 바탕으로 조사 연구한 바를 간추린다. 그 重要時急性에 비추어 海女 및 海女社會研究가 앞으로 더욱 활발히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1) 제주도 해녀는 1974년을 고비로 減少趨勢에 있으며 1983년말 현재 海女數는 1970년의 33%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몇년 안 가서 그 수는 몇백명으로 격감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海女數의 격감에 의해 漁業從事者도 1965년 30,149명의 약 35%에 미달하는 10,550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해녀의 연령별 구성도 젊은 연령층의 海女數가 상대적으로 적어졌고, 특히 본도의 生活水準 向上에 따른 높은 進學率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 한 앞으로의 海女數의 減少趨勢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濟州道의 水產物 輸出 高가 대부분 이들 海女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濟州 地域經濟에 큰 공헌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海女數의 減少에 대응할 수 있는 海女の 厚生福祉施設의 擴充과 脫衣場施設 등 作業環境의 改善, 模範海女の 産業視察, 優秀海女會의 施賞 등 精神的·經濟的인 報償策이 아울러 요구된다.

또한 海女保護를 위해 깊은 水深에서 長時間 作業으로 인해 생기는 頭痛, 皮膚病, 胃腸病 등의 海女の 職業病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年1회의 정기 건강진단은 물론 月1회의 정기 순회진료가 필요하며, 특히 이와 병행하여 198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수가 할인제를 더욱 확대하여 해녀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濟州道 水產物 總生産量은 36千톤으로 全國 生産量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海藻類는 약 4%의 生産比重을 점하고 있다. 漁業別 生産量 중 海女作業에 의한 第1種共同漁場에서의 生産量이 全體 生産量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濟州道의 第1種共同漁場의 面積은 전국에서 제일 넓어 天惠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潛水服補給, 潛水器船의 不法漁業, 廢水에 의한 汚染 등으로 漁場이 荒廢하고 있으며 資源枯渴問題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不正漁業의 강력한 團束과 海女の 作業日數 및 作業時間의 制限 등을 통해 資源保護에 힘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지속적인 養殖事業과 魚樵施設事業 등으로 마구잡이 漁業에서 기르는 漁業으로 轉換해야 한다.

濟州道 總生産高 中 水産物 輸出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이며 그 중 소라와 톳이 81%를 점하고 있어 輸出戰略 品目으로 育成이 요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魚種의 生産·輸出에만 치중하는 것은 競爭國의 등장으로 輸出不振, 價格下落 등 不確實性이 뒤따르므로 일부 魚種의 對日輸出에만 의존하고 있는 輸出市場을 多邊化하고 加工食品의 開發과 海藻를 사용한 工業原料의 生産 등 多品種商品 開發로 國際市場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해 나가야 한다.

(2) 어느 사회의 慣行 내지 法規範은 그 社會의 社會構造의 反映이며, 그 사회가 처한 자연적·경제적 환경과 無關할 수가 없다. 濟州島의 漁村의 경우, 우선 生計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女性 특히 海女の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생계의 기반을 주로 해산물 채취에 두고 있는 마라도의 경우에는 해녀의 역할이나 발언권도 아주 강하고, 入漁慣行의 強度도 훨씬 法的이다. 主漁從農의 형태인 牛島의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相補的으로 그 어느 쪽에 우위를 둘 수 없다. 마을의 公的인 일이 남성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면서도 入漁에 관한 일은 海女會의 의견이 대폭 받아들여지고 있다. 入漁慣行의 強度도 마라도에 비하여 完化되고 있으며, 대외적인 배타성도 뚜렷하지는 않다.

한편, 半農半漁의 형태인 農漁村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약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남성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고, 入漁慣行의 強度도 마라도나 우도에 비해서 약화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漁村을 비롯한 農漁村까지도 國家의 制定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한마디로 그들의 규범생활은 合理性이 內在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人間과 그 환경과의 함수관계에서 그 환경을 적응 내지는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入漁慣行 기타 規範生活의 資源管理를 위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3) 제주도를 중심으로 韓國과 日本에만 분포된 海女の 發祥은 水産業의 始源

과 비슷하리라 추측되며, 그 發祥地는 제주도로 보인다. 제주도 해녀수는 약 1만5천으로 추산되며, 專業하는 해녀는 드물다. 제주해녀들은 거의 농사를 지으면서 물질하는데, 그 潛水技倆 역시 遺傳的 素質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한 달 평균 15일쯤 하는 물질은 潮水週期와 밀착된다. 在來의 綿製海女服이 고무 옷으로 바뀌지고 體溫이 유지됨으로써 潛水作業時間도 훨씬 길어졌다. 20여m의 水深까지 들어가서 2분이상 견뎌내는 特殊技倆과 유별스런 耐寒力 및 過度換氣作用, 分娩直前直後의 작업 등 제주해녀들의 特殊生理는 학계의 관심거리다. 技倆의 차이에 따라 해녀는 下軍·中軍·上軍으로 나누어지며 15세~18세 사이에 해녀로서 독립되고, 대체로 60세까지 이어진다. 해녀질은 共同作業이므로 마을단위, 혹은 동네단위로 海女會(潛嫂會)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 집단은 生業과 직결되는 實質的인 機能이 뚜렷하다. 해녀들이 캐는 해산물로는 우뚝가사리·툇·감태·갈래곰보·소라·성게·오분자기(떡조개)·전복·문어 따위이며, 養殖미역이 번짐으로써 본격적인 미역 채취는 중단된 상태다. 漁場은 해녀들에게 물의 발이나 다름없이 소중히 인식되고, 海圖를 외듯이 살살이 파악하고 있다. 해녀들은 共同漁場에 入漁할 수 있는 權利와 함께 雜草除去 등 민주적 합의에 따른 管理義務를 철저히 치른다. 漁場은 共同所有이면서 그 境界가 물의 발처럼 명확하지 못하고, 入漁慣行이 따르기 때문에 그 入漁權을 두고 紛爭이 잦다.

제주해녀들은 19세기말부터 韓半島 각 연안과 日本·中國·러시아로 出稼했었다. 오늘날에도 韓半島에는 일부 물질나가지만, 그 出稼의 實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섯해녀의 出稼事例와 出稼海女引率事例 들을 소개했다. 이 事例들을 통하여 우리는 해녀들의 出稼過程, 出稼生活와 作業, 그 所得과 權益 등을 파악하게 되고, 그들의 生業에 한결같이 全力投球하는 獻身沒入度를 살필 수 있게 된다.